사찰을 수익자로 지정이 가능한 Heungkuk 흥국생명
49재 보험 & 다비 보험
상담 문의 1522-1543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71호 HYUNBULNEWS.COM 2026년 3월 25일(음력 2월 7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를 비롯한 불교단체들은 3월 17일 서울 조계사에서 주한미국대사관 인근까지 '중동 전쟁 중단과 평화 촉구'를 위한 오체투지를 실시했다.

불교계 "전쟁 멈춰라" 오체투지

조계종 사노위 등 3월 17일
조계사 출발 미대사관까지
평화 염원 목소리 행동으로

"전쟁과 살생을 멈춰라! 무력 충돌을 중단하라!"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 이하 사노위)는 3월 17일 서울 조계사에서 주한미국대사관 인근까지 '중동 전쟁 중단과 평화 촉구'를 위한 오체투지를 실시했다. 이번 오체투지는 격화되는 중동 전쟁 상황 속에서 모든 전쟁과 살생이 멈추고 평화가 찾아오기를 발원하며 마련됐다.

사노위 스님들과 불교단체들은 이날 조계사 앞에서 전쟁 중단을 촉구한 뒤 광화문 방향으로 몸을 낮춰 오체투지 행진을 시작했다. 두 손을 모아 절을 올리고 온몸을 땅에 완전히 엎드린 뒤 다시 일어나 한 발짝씩 앞으로 나아가는 방식으로 거리를 이동하며 평화를 기원했다.

출발에 앞서 사노위원장 지몽 스님은 "지금 중동 전체가 아비규환의 상황"이라며 "2026년 인류가 사는 지구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이어 "먼저 미국과 이스라엘이 시작한 폭격을 멈추고 이란 역시 맞대응을 자제해야 한다"며 "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특히 스님은 미국의 군함 파견 요청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지몽 스님은 "미국은 우리나라의 군함 파견 요청을 거둬들여야 한다"며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함을 보내라는 요구는 마치 입으로 불을 뿜는 용의 아가리로 들어가라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조계사를 출발해 종각을 지나 주한미국대사관까지 오체투지를 이어 가며 전쟁 종식과 평화를 기원했다. 글 · 사진=임은호 기자

조계종 출가종책 성과…올해 본사 역량 결집

소년출가 · 출가학교 등 효과↑
'전(前)출가 인큐베이팅' 운영
10 · 20대 비중 40%…거점 구축
"지속가능한 출가 양성 시스템"

여수령 · 임은호 기자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추진해 온 출가장려 종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며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소년출가제도와 단기출가학교, 종립학교 연계 프로그램 등 다각적인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면서 젊은층 출가자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한 출가학교 확대 운영이 본격화되면서 출가자 증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 장면은 3월 18일 김천 직지사에서 열린 제70기 사미·사미니계 수계교육 회향식이었다. 이날 회향식에서 소년출가자인 18세 고등학생 태열 사미가 5급 승가고시 수석 합격의 영예를 안았다. 진우 스님은 회향식에 직접 참석해 표창장을 수여하며 격려했다. 총무원장이 사미·사미니계 수계교육 회향식에 참석한 것은 종단 출범 이후 처음으로, 출가자 양성에 대한 종단의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진우 스님은 "앞으로 종단의 대중 모두가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며 출가자 양성에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조계종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미·사미니계 수계자 가운데 10대와 20대 비율은 최근 4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 수계자 중 10·20대는 2023년 23명(사미 18·사미니 5), 2024년 34명(사미 26·사미니 8), 2025년 42명(사미 39·사미니 3)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소년출가자 증가는 출가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 확충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종립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출가 인재 발굴 프로그램 '선연(善緣)'이 대표적인 사례다. 템플스테이와 사찰 순례, 명상 프로그램 등을 통해 불교적 삶을 체험하도록 하는 이 프로그램으로 지금까지 17명의 소년 출가자가 배출됐다. 직접적으로 출가를 권유하기보다 학생들이 스스로 삶의 방향을 고민하고 수행자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체험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 방식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5급 승가고시 수석 합격자 태열 사미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 제공=조계종

단기출가학교 역시 출가 인연 확대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3월 17일 열린 제1차 교구본사 포교국장 회의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덕사와 선운사, 진관사 등에서 운영된 단기출가학교에는 총 33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6~7명이 출가 확정 또는 예정·희망자로 분류돼 잠재 출가 전환율은 약 20%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운사 프로그램에서는 참가자의 36%가 출가 의지를 밝히는 등 높은 전환 가능성을 보였다. 포교부는 단기출가학교가 기존 홍보 중심의 출가 권유 방식보다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조계종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출가체험학교를 전국 단위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운영 사찰에 더해 동화사, 운문사, 신흥사, 범어사, 통도사 등으로 확대해 전국 5대 권역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한 출가 거점 체계를 형성한다는 게 조계종의 구상이다.

아울러 월정사, 봉녕사, 붓다선원 등과 협력해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또 체험자 통합 관리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출가 상담과 멘토링 체계를 마련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단기 체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출가로 이어지는 '전(前)출가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포교부장 정무 스님은 "출가자 증대는 특정 사찰의 문제가 아니라 종단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며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청년수행캠프, 은퇴자 대상 설명회, 사찰 연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출가 장려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 고

4월 1일부터 구독료를 인상합니다

현대불교신문은 오는 4월 1일부터 월 구독료를 기존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합니다. 구독료 인상은 2002년 이후 24년 만입니다.

현대불교신문은 1994년 창간해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를 기치로 불교 언론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왔습니다. 그동안 물가 상승과 함께 신문 원자재 가격, 인쇄비, 우편 발송료 등이 크게 올라 신문 제작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현대불교신문은 지난 24년간 구독료 인상 없이 비용 절감과 경영 합리화를 통해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신문 제작비 상승으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현재의 구독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부득이하게 구독료 현실화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현대불교신문은 신문의 품격을 높이고 불교계 소식을 충실히 전하는 한편,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맞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언론 포교사가 되도록 정진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니까야로 읽는 대승기신론
니까야와 인지과학으로 기신론 해석의 새로운 지평을 연 중각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의
주 관 사단법인 붓다나라
강사 소개 중각 스님(이중표 박사)
사단법인 붓다나라 이사장, 전 전남대학교 철학과 교수,
호남불교문화연구소장, 불교학연구회 회장, 범한철학회 회장 역임
『불경』, 『불교란 무엇인가』, 『붓다가 깨달은 연기법』,
『붓다의 철학』, 『니까야로 읽는 금강경』, 『니까야로 읽는 반야심경』,
『불교와 양자역학』 등 다수의 저·역서
16주 과정 4월 14일 (화) 시작
신청 마감 2026년 4월 12일 (일)
장 소 붓다나라 서울법당 (동대입구역 5분거리)
(서울 중구 동호로25길 26, 플로렌스빌딩 201-1호)
중각 스님(이중표 박사)
모 집 반
1. 스님반 (화요일 오후 2~4시)
2. 저녁반 (수요일 오후 7시 반 ~ 9시 반)
3. 오후반 (목요일 오후 2~4시)
※ 수강인원이 적은 반은 개설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지역법당(화상채팅프로그램 줌으로 동참)의 경우 장소가 달라지며, 밑에 '자세한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 자세한 내용 : www.buddhanara.or.kr/mahayana
붓다나라 정기법회
사단법인 붓다나라에서는 안거 기간인 2, 8월을 제외하고,
매주 일요일 오전 10~12시에 서울법당에서 정기법회를 열고 있습니다.
※ 붓다나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홈페이지 www.buddhanara.or.kr
전화 및 문자 010-3003-4108
buddhanara 붓다나라

사미·사미니계 수계교육…총무원장 첫 참석

3월 18일, 직지사서 회향식
사미 23명 · 사미니 17명 수계
소년출가자 수석 합격 '눈길'
"출가는 진리의 길 따르는 서원"



조계종 제70기 사미 · 사미니계 수계교육에서 40명이 수행자로서의 첫발을 내디뎠다.

김천 직지사=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조계종 제70기 사미·사미니계 수계교육이 3월 18일 제8교구본사 직지사 만덕전에서 회향했다.

이날 진우 스님은 총무원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사미·사미니계 수계교육 회향식에 참석해 흔들림 없는 평정심과 자비로운 실천으로 수행의 길을 걸어갈 것을 당부했다.

회향식에서는 남행자 23명, 여행자 17명 등 40명이 사미·사미니계를 수지했다. 특히 소년출가자가 5급 승가고시 수석 합격을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수계교육에는 지난 3월 5일 남행자 27명, 여행자 18명 등 총 45명이 입교했으며 서류 및 갈마 심사를 거쳐 44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이들은 사전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입교한 행자들로, 청소년출가·단기출가 및 은퇴출가 특별법에 따른 대상자도 포함됐다.

교육 기간 동안 행자들은 교육부장 유정 스님의 특별법문을 비롯해 기본선원장 대전 스님의 '선지식과의 만남' 특강, 전계사 수진 스님의 법문 등 다양한 강의와 습의를 통해 수행자로서의 기본을 익혔다.

수계식은 전계사 수진 스님, 갈마아사리 서봉 스님, 교수아사리 경암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회향식은 교육국장 지현 스님의 사회로 삼귀의례와 반야심경 봉독을 시작으로 진행됐다. 이어 교육평가 보고와 죽비반환 의식이 이어지며 수행 공동체의 전통과 질서를 재확인했다.

직지사 주지 장명 스님은 치사를 통해 "끊임없는 정진과 올바른 수행 자세로 불법을 널리 펴 나가길 바란다"며 "불꽃 속에 연꽃을 피우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지만, 욕망의 불꽃이 아무리 거세다 해도 여러분이 수지한 가사와 부처님의 가르침이 갑옷과 단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장 유정 스님은 우빈 사미와 지민 사미니에게 대표로 교육필증을 수여하며 수행자들을 격려했다. 표창장 수여식에서는 모범행자상과 제5급 승가고시 수석 합격자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모범행자상은 우빈 사미와 혜범 사미니가, 수석 합격자상은 태열 사미와 승련 사미니가 각각 수상했다.

진우 스님은 종단 출범 이후 총무원장으로는 처음으로 회향식에 참석해 출가 수행자 양성에 대한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진우 스님은 회향사에서 "청정계율을 받아 지닌 여러분은 이제 출가사문으로서 참된 수행자의 길에 들어섰다"며 "계율은 삶의 근본으로, 청정한 계행은 선정으로 이어지고 지혜로 열매 맺는다. 계·정·혜 삼학을 고루 닦아 불법의 정맥을 굳건히 이어 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어 "출가자의 삶은 진리의 길을 따르는 대장부의 서원"이라며 "지혜로운 수행으로 번뇌와 망상을 다스리고, 모든 중생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품어 안는 보살행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항상 무상·고·무아의 진리를 관하며 흔들림 없는 평정심과 자비로운 실천으로 수행의 길을 걸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계자들은 태열 사미가 대표로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언제나 삼업을 다스려 생각과 말과 행동이 모두 여법하여 만중생의 모범이 되고 그 파장으로 우리가 사는 법계가 청정 불국토가 되게 하겠다"고 서원했다.

'AI 시대' 국제선명상대회, 4월 3일 개막

봉은사 · 봉은문화회관 일원
AI 활용 '마음처방전' 선보여
10월까지 전국 9개 지역서

다채로운 체험과 깊이 있는 선명상 프로그램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선명상의 향연'이 올해도 이어진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주최하는 '2026 국제선명상대회(Seon Meditation Summit)'가 오는 4월 3일 봉은문화회관과 봉은사에서 개막을 앞두고 참가자 모집에 나섰다.

이번 대회는 'AI 시대의 선명상'을 주제로,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변화하는 인간의 인지·정서 환경을 조명하고, 현대인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법으로서 선명상의 역할과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막식에 이어 선명상 포럼에서는 AI 시대가 가져올 사회 변화와 정신건강 이슈를 다각도로 살펴보고, 명상을 기반으로 한 치유와 회복의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반인들도 쉽게 참여해 명상을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화두 카드, 차명상, 걷기명상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특히 올해는 AI 기술을 활용해 개인의 마음 상태를 분석하고 이에 맞는 명상법을 제안하는 '마음처방전' 프로그램을 새롭게 선보인다. 참가자들은 간단한 과정을 통해 자신의 심리 상태를 진단받고, 맞춤형 명상법과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마음 돌봄 방식을 배울 수 있다.

국제선명상대회는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9개 지역으로 확대돼 5월부터 10월까지 순차적으로 이어질 예정이며,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선명상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대회는 11월 12일 국제컨퍼런스와 폐막식을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또 대회와 연계해 진행되는 '2026 봉은사 선명상축제'는 4월 4일부터 5일까지 봉은사와 봉은문화회관에서 열린다. 다양한 선명상 프로그램과 세션, 강연이 마련돼 있으며, 참가 신청은 세션별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일부 프로그램은 현장 등록도 가능하다.

조계종은 "국제선명상대회를 통해 선명상이 특정 계층이나 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문화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가 신청은 2026 국제선명상대회 홈페이지(https://m.site.naver.com/23bB6)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식 누리집(https://seonmeditationsummit.kr)과 인스타그램(@seon_meditation_summit)에서 확인할 수 있다. 010-8441-2371

김내영 기자

진각종, 스승과정교육·진각대학원 수료식

3월 12일 전승원 대강당서
제17기 교학과정 입학식도



진각종 교육원(원장 정법 정사)은 3월 12일 서울 진각문화전승원 대강당에서 스승과정교육과 진각대학원 수료식 및 입학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총인 덕일 대종사를 비롯해 통리원장 능원 정사, 종의회의장 증혜 정사, 교육원장 겸 진각대학원장 정법 정사, 총무부장 원상 정사, 기획실장 청효 정사 등 통리원·교육원 스승들과 교육과정 수료생, 입학생 등이 동참했다.〈사진〉

이날 제17기 아사리과정에서는 8명이, 제21기 심학과정에서는 10명의 스승이 수료했다. 제31회 진각대학원에서도 7명이 수료했으며, 성적우수자인 실상학 전수에는 상장과 상금이 수여됐다. 이어 새롭게 시작된 제17기 교학과정에는 10명의 스승이 입학했다.

통리원장 능원 정사는 "종단의 백년대계를 담보할 인재가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라며 "각 과정을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들은 수행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신중일 기자

조계종 선암사 주지에 연규 스님 임명

진우 스님 3월 17일 임명장



조계종 제20교구본사 선암사 주지에 연규 스님(여수 향일암 주지)이 임명됐다.〈사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3월 1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연규 스님을 선암사 주지로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진우 스님은 "대진 스님의 사직으로 공석이 된 상황에서 선암사 사정에 밝은 화엄사 측에 후임 추천을 요청했고, 스님이 가장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며 "소임을 맡아 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계종 선암사라는 명칭이 엄연히 살아 있는 만큼 교구본사로서 역할을 잘해 주길 바란다"며 "큰 이슈는 일단락됐지만 마무리 과제가 남아 있는 만큼 잘 살펴 달라"고 당부했다.

연규 스님은 1999년 덕문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은해사 기획국장, 대구 팔공산 갓바위 부주지, 향일암 총무국장, 대구 운흥사 주지, 의왕 용화사 주지, 해동용궁사 주지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여수 향일암 주지이자 17·18대 종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내영 기자

재심호계원, 3월 24일 은해사 심리 속행

3월 18일 2차 심리 진행

은해사 주지후보 선거소청 상소 심리가 오는 3월 24일 속행된다.

조계종 재심호계원(원장 정묵 스님)은 3월 1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169차 심판부를 열어 은해사 주지후보 선거소청에 대한 2차 심리를 진행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심리에는 피소청인 성로 스님이 출석해 그간의 주장에 대한 확인과 심문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소청인 덕관 스님은 출석 연기를 신청해 심리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는 재심호계원장 정묵 스님과 위원 진만·성공·법경·승원·원명·정문·도영 스님이 참석했다.

김내영 기자



- 대 상 : 마음공부를 하고자 하는 성인
- 기 간 : 2026년 4월 4일(토)~5월 30일(토), 5월 16일(쉼)
  총 8주 매주(토) 오후 1:30~5:30
- 장 소 : 한마음과학원
- 모집인원 : 총 50명, 선착순 모집
- 신청방법 : 한마음과학원 홈페이지 hansi.org
  또는 전화 신청
- 수 강 료 : 20만원 (국민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
- 문 의 : 031-470-3200/3196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7대 종교, 명상으로 생명살림 나선다

종지협, 3월 13일 생명존중 선언
"국민 정신건강 회복 기여" 약속
진우 스님 "자비로 이웃 보듬겠다"
정서회복 생명살림 캠페인도 추진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3월 13일 서울 봉은사에서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종교계 공동선언—생명을 살리고 마음을 잇는 동행'을 발표했다. 사진 제공=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종교계 지도자들이 생명존중 문화 확산과 국민 정서 회복을 염원하며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고 생명의 존엄을 지키고 국민의 마음을 돌보는 데 종교계가 함께 나설 것을 다짐했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의장 진우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는 3월 13일 서울 봉은사에서 종교계 지도자들이 함께 한 가운데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종교계 공동선언-생명을 살리고 마음을 잇는 동행'을 발표했다. 이번 선언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심화되고 있는 정서적 고립과 생명경시 풍조에 대한 종교계의 문제의식 속에서 마련됐다. 종지협은 종교의 지혜와 연대를 바탕으로 생명존중 문화 확산과 국민 정신건강 회복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모든 생명이 존엄하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며 "생명경시 풍조를 경계하고 자살 예방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종교적 지혜와 실천을 모아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종교가 지닌 성찰과 전통을 통해 국민 마음 치유에 앞장서겠다"면서 "각 종단이 오랜 세월 이어온 수행과 성찰의 지혜를 사회와 나눠 누구나 일상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이어 "종교 간 연대와 화합을 바탕으로 조화와 공존의 가치를 실천하겠다"면서 "종교 차이를 넘어 서로를 존중하며 손을 맞잡고 갈등이 아닌 이해와 포용의 정신으로 국민 곁에서 희망과 위로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시민사회는 함께 국민 정신건강을 위한 범사회적 협력을 촉구한다"면서 "마음 상처와 슬픔을 개인 문제가 아닌 공동체가 함께 돌봐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사회적 안전망과 치유 환경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선언에 이어 각 종단은 교리와 전통을 바탕으로 생명존중 메시지를 직접 전했다.

공동대표의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모든 생명은 서로 연결된 귀한 존재다. 자비의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고통받는 이웃의 마음을 함께 보듬겠다"고 밝혔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는 "생명은 하느님의 거룩한 선물"이라며 "우리는 모든 생명의 존엄을 지키고 약한 이들의 곁에서 함께 하겠다"라고 전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고경환 대표회장은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힘"이라며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를 돌보는 마음으로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원불교 나상호 교정원장은 "세상은 한울안 우리는 한가족"이라며 "따뜻한 온기로 고귀한 생명살림에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유교 최종수 성균관장은 "사람을 사랑하는 인(仁)의 정신으로 서로를 공경하고 돌보며 따뜻한 사회를 이루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천도교 박인준 교령은 "사람이 곧 하늘"이라며 '모든 사람의 존엄을 귀히 여기며 생명을 살리는 세상을 함께 열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민족종교 김령하 회장은 "온 세상이 한 집안"이라며 "상생(相生)의 마음으로 절망 속에 힘들어하는 이웃과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이번 선언을 계기로 '국민정서회복 생명살림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종교계가 함께 참여하는 생활 치유형 명상, 마음 돌봄 프로그램, 종교계 심리 상담 등을 통해 국민의 정서 회복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도반HC, 종단 재정·포교 함께 살려야"

3월 10일, 사장 성진 스님 임명
진우 스님 "사업 활성화로 전법"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3월 1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도반HC 사장으로 임명된 성진 스님의 예방을 받고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한 종단 재정 기반 강화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사진〉

진우 스님은 "그간 종단 안팎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잘 살려 종단의 직접적인 사업을 잘 이끌어 주고, 종단 살림에도 큰 도움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포교와 전법은 일반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리이타의 실천"이라며 "현물 중심의 사업을 통해 그 가치를 확장해 나간다면 진정한 포교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불교가 지닌 무궁무진한 콘텐츠의 적극적인 활용도 제안했다. 진우 스님은 "우리 역할을 다른 주체가 대신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심지어 이웃 종교에서 불교용품을 판매하는 사례도 있다"며 "불교가 지닌 자산과 콘텐츠를 바탕으로 세상과 만나는 접점을 넓혀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성진 스님은 "직접 와서 보니 도반HC는 영업 이익을 남기기보다 전법을 위한 방편이라는 점을 느꼈다"며 "굿즈 등 현물적인 방식으로 대중과 만나고 있지만 그 바탕에는 전법이 있다. 직원들과 함께 전법을 동력으로 삼아 종단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성진 스님은 3월 9일 열린 도반HC 이사회에서 사장으로 선임돼 3월 10일자로 임명됐다.

한편, 이날 예방에는 도반HC 대표이사 담화 스님(조계사 주지)과 총무원 기획실장 묘장 스님, 이상종 도반HC 경영지원본부장이 배석했다.

김내영 기자

국회정각회, 히말라야 순례로 '힐링'

3월 10~15일, 네팔 일대서
묘장 스님 · 이헌승 회장 등
히말라야 선원서 예불 · 명상



국회정각회(회장 이헌승)가 히말라야를 찾아 부처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국민 평안과 사회 화합을 기원하고,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회 불자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국회정각회는 3월 10~15일 네팔 포카라·룸비니·카트만두 일대에서 'JustBe 히말라야 힐링 리트릿'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히말라야 대자연 속에서 잠시 멈춰 쉼을 배우고 숨을 고르며 몸과 마음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헌승 회장을 비롯해 김형동·서범수·한지아·곽상언·박정하 국회의원과 장윤명·심금희·김경희·남미숙·이미정·천우정·김명순 회원 등이 참석했다. 조계종 총무원에서는 기획실장 묘장 스님이 동참했으며, 국회정각회 지도법사 준한 스님도 일정을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포카라에 위치한 JustBe 히말라야 선원에서 일출 명상과 아침예불에 동참하며 수행의 의미를 되새겼다.〈사진〉

JustBe 히말라야 선원은 JustBe 홍대선원 주지 준한 스님이 건립한 명상 수행 공간으로, 해발 약 1350m 포카라 언덕에 조성됐다. 전 세계 순례자들을 위한 명상 베이스캠프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선원에서 부처님 탄생지인 룸비니까지 이어지는 총 163㎞ '붓다로드 순례길' 복원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서울 홍대와 뉴욕 맨해튼, 히말라야 안나푸르나를 잇는 글로벌 수행 네트워크로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

김내영 기자

4년 만 소녀상 앞 수요시위…불교계가 주관

조계종 사노위 등 3월 18일
"일본 공식 사과 · 배상" 촉구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를 비롯한 불교계 단체들은 3월 18일 '제1744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를 주관하고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배상을 촉구했다.

"일본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을 해야 합니다. 진정성 있는 사죄와 배상이 또 다른 전쟁범죄를 예방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불교계가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한 일본의 공식 인정과 사죄를 촉구하고,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3월 18일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열린 '제1744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성평등불교연대, 불교환경연대, 실천불교승가회, 신대승네트워크, 정의평화불교연대, 불력회 등 불교계 단체들의 공동주관으로 진행됐다.

이날 시위는 2월 12일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그간 맞불 집회를 이어 온 극우단체의 활동이 중단되면서 4년여 만에 다시 소녀상 앞에서 열려 의미를 더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참석자들은 우비를 입은 채 자리를 지키며 한마음으로 기도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는 추모기도를 통해 피해자 할머니들과 희생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문제 해결을 발원했다.

사노위원 혜도 스님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학살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고 있다"며 "2차 세계대전 당시 7000만 명에 이르는 희생이 발생했고, 일본군 성노예제는 전범국가인 일본의 잔혹성과 폭력성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 정부에는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죄해야 하며,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와 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우리 정부에는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길"이라며 적극 대응을 요청했다.

김내영 기자

曹溪宗 元老議員 慈光堂 遠行大宗師
永訣式 奉行에 대한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의 삼보하옵고
지난 3월 12일 열반하신 大韓佛教曹溪宗 元老議員 慈光堂 遠行大宗師의 永訣式을 3월 16일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에서 원로회의장으로 엄숙히 奉行하였습니다.

먼 길에 직접 찾아와 큰 스님의 마지막을 함께 해주신 宗團의 元老大德 스님들과 제방의 스님, 사부대중께 감사의 예를 올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 올림이 도리인줄 아오나 우선 지면으로 인사 올림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라며 韓國佛教 中興을 위해 헌신하신 큰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우리 후학들은 더욱 수행 정진하겠습니다.

자광당 원행대종사 추모제 안내
■초 재 2026년 3월 18일 10시 오대산 월정사
■2 재 2026년 3월 25일 10시 오대산 월정사
■3 재 2026년 4월 01일 10시 횡성 보광사
■4 재 2026년 4월 08일 10시 횡성 보광사
■5 재 2026년 4월 15일 10시 횡성 보광사
■6 재 2026년 4월 22일 10시 오대산 월정사
■막 재 2026년 4월 29일 10시 오대산 월정사
문의처 : 월정사 종무소(033-339-6800)

대한불교조계종 원로의원 자광당 원행대종사 원로회의장 장의위원회

동국대 연등행렬, AI 로봇 '혜안 스님' 이끈다

윤재웅 총장, 전법특임교수 간담회서 밝혀

'혜안 스님' 현재 업그레이드 중
5월 연등회 연등행렬 참여 예정
영캠프, 체육관 아닌 대운동장서
서울 · WISE캠 1만 명 수계 목표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건학 120주년을 맞은 동국대는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역동적인 전법·포교를 선보일 것입니다. 동국대에서 개발한 AI 로봇 '혜안 스님'이 올해 부처님오신날 연등회에서 동국대 연등행렬의 선두에 설 예정입니다."

윤재웅 동국대 총장은 3월 13일 본관 로터스홀에서 열린 전법특임교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올해 학내 주요 전법 행사 계획 전반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기계·로봇 연구 전문가로 잘 알려진 임중연 동국대 기계에너지공학과 교수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AI 로봇 스님 '혜안'은 인간과 정서적 상호작용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간 형태인 '세미 휴머노이드(Semi-Humanoid)'다. 지난 2월 28일 서울 봉은사에서 사찰 안내와 신도들에게 교리를 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윤 총장은 "오는 4월 29일 열릴 학내 점등식에 선보이려 했으나 업그레이드를 위해 현재 연구실에서 수리 중이다. 연등회에는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니 동국대의 새로운 면모와 저력을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윤 총장은 전법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한 '영캠프'를 통해 '1만 명 수계 시대'를 열 계획을 전했다. 윤 총장은 "올해 영캠프는 장충체육관이 아닌 대운동장에서 개최할 계획"이라며 "현재 수계인원을 5000여 명 이상을 예상하는데 장충체육관 수용 인원이 3500명 규모라서 이를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 대운동장에 무대를 설치해 5000여 명이 수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밝혔다.



윤재웅 동국대 총장이 3월 13일 열린 전법특임교수 간담회에서 올해 학내 주요 전법 행사 계획 전반을 소개하고 있다.

이어 "이사장 돈관 스님께서는 '서울캠퍼스, WISE캠퍼스 합해서 1년에 1만 명이 수계한다'는 원력을 세웠다"면서 "학내 구성원들이 잘 준비해 1만 청년 불자 양성을 이루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캠퍼스 건학위원회 사무국의 활동 평가 계획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으며, 전법특임교수 및 지도법사 스님들의 제안·건의 등이 이어졌다.

첨단융합대학 'BUDDHAI' 전법특임교수 정천 스님은 "지역미래불자 육성장학 지원 사찰에 찾아가기 위해 전세버스를 대절해서 2~3차례 다녀왔더니 활동 예산을 전부 사용했다"면서 "고속버스를 이용했더니 참여율이 저조했다. 학교 버스를 활용하거나 지원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경영대학 다붓다붓 지도법사 무진 스님은 "정말 열심히 법회와 신행활동을 했던 학생들이 정작 영캠프에 참여하지 못해 아쉬워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에 대한 조치가 있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제21회 대행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3월 15일 한마음선원 본원서
총 30명에게 장학금 수여돼
혜수 스님 "인재로 성장하길"

재단법인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 스님)은 3월 15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5층 법당에서 정기법회 이후 '제21회 대행장학회 장학금 및 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장학금 수여식에서는 대행장학생 10명, 한마음장학생 20명 등 총 30명의 대학(원)생에게 장학금과 장학증서가 전달됐다.

대행장학회는 묘공당 대행 선사의 유훈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의 큰 일꾼이 될 청년들을 격려·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대행 선사는 생전에 "이 세상에 큰 일꾼이 될 꿈나무들에게 좋은 거름이 되고 울타리가 되어 주라"고 미래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재단법인 한마음선원은 3월 15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5층 법당에서 '제21회 대행장학회 장학금 및 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재단법인 한마음선원 상임이사 혜근 스님은 "대행장학회 장학금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큰스님의 가르침과 마음이 담긴 선물"이라며 "장학생들이 학문뿐 아니라 마음공부를 통해 사회에 밝은 영향을 주는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대행장학회의 장학생은 한마음선원 본원과 각 지원에 소속된 대학생 가운데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청년회·학생회·어린이회 활동 등에 성실하게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담당 스님의 추천과 심사를 거쳐 선발된다.

대행장학금 장학생으로 선발된 이지수 학생(연세대 글로벌행정학과)은 "바쁘고 치열한 일상 속에서도 일체 모든 것을 주인공에 맡기고 나아가라는 큰스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을 때가 많다"며 "이번 장학금을 통해 학업에 더욱 정진하는 것은 물론 마음공부도 성실히 이어 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수여식에서 이사장 혜수 스님은 장학생들에게 "오늘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본원과 각 지원에서 신행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고 어린이회와 학생회 활동을 통해 후배들을 이끌며 학업과 마음공부에 함께 정진해 온 만큼 장학금을 받기에 마땅한 인재들"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이 장학금은 단순한 학비 지원을 넘어 큰스님께서 내려 주신 마음의 에너지와도 같은 것"이라며 "앞으로 학업에 더욱 정진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행장학회는 한마음선원 후원자들의 정성 어린 마음이 모여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장학생을 선발해 청년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있다.

신중일 기자

대불련, 교구본사서 동시 템플스테이

3월 28~29일 · 4월 4~5일
불교동아리 60여 곳 참여

KBUF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중앙회장 선민지, 이하 대불련)가 3월 28~29일과 4월 4~5일 전국 조계종 교구본사에서 동시에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대불련 각 지부와 해당 지역 교구본사가 손잡고 대학생 전법 포교에 나설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전국 지부 동시 템플스테이는 지역 대학생 전법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다. 특히 각 지부와 연계돼 있는 해당 지역의 교구본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각 교구본사와 지역 대학 불교동아리의 네트워크 구축이 이뤄지도록 했다는 데 의미가 깊다.

조계종 포교부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템플스테이는 서울, 인천, 경기, 대전, 대경, 부산, 충북, 공주, 광주, 전북·익산, 경남·울산·창원, 제주 등 전국 15개 지부에서 불교동아리 60여 곳이 참여한다. △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주사 △제5교구본사 법주사 △제6교구본사 마곡사 △제10교구본사 은해사 △제14교구본사 범어사 △제15교구본사 통도사 △제17교구본사 금산사 △제24교구본사 선운사 △제23교구본사 관음사 △제25교구본사 봉선사와 석종사, 학림사 등 전국 사찰에서 템플스테이를 체험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신입회원 모집이 마무리돼 가는 시기에 개최되는 템플스테이를 통해 불교동아리에 가입한 회원들이 전통 사찰 문화를 경험하고 신심을 키우며 바른 대학생 불자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선민지 대불련 중앙회장은 "대불련 역사상 처음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템플스테이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이번 행사가 대학생 불자들이 서로의 고민을 나누며 평생을 함께할 도반을 만나는 소중한 유대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은호 기자

'도리사 시민치유선센터' 첫 삽

3월 12일, 착공식…2027년 6월 완공

구미 도리사(주지 묘원 스님)가 현대인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고 수행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대규모 불사에 착수했다.

도리사는 3월 12일 경내에서 '도리사 시민치유선센터' 건립을 위한 착공식을 봉행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사진〉

'도리사 시민치유선센터'는 국민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리사가 오랜 시간 공들여 준비해 온 프로젝트다. 연면적 1121㎡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지어지며 14개의 크고 작은 선방(禪房)과 명상홀, 휴식 공간 등을 갖춰 오는 2027년 6월 완공될 예정이다.

주지 묘원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1600년 전 신라에 불교가 처음 전해진 도리사의 전통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정서적 안정과 시민들의 마음 치유 공간 조성 및 명상문화 확산을 위해 회주 법등 스님이 원을 세워 오늘에 이르게 됐다"며 "이곳을 시민들이 언제든 찾아와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회주 법등 스님은 격려사에서 "소중한 인연이 모여 불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도리사만의 전통을 바탕으로 이곳을 모든 이들이 찾고 싶어 하는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이번 선센터는 한국 건축의 거장인 승효상 건축가가 설계를 맡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승효상 건축가는 "단순한 건축물 이상의 큰 뜻을 담고자 노력했다"며 "하루에도 몇 명씩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명상센터는 하나의 시설이 추구하는 것 이상의 큰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미 도리사=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원행 대종사여, 화엄세계서 평온 누리소서”

조계종 원로의원 자광 원행 대종사 영결 · 다비식 엄수

3월 16일 오대산 월정사 일원서
사부대중 2000명 참석 · 애도
종정 성파 대종사 법어로 추모
“감로법미로 무생락 누리소서”

진부 월정사=신중일 기자, 이동격 강원지사장

“자광당 원행 대종사시여! 이제 육신의 짐도, 고문의 기억도, 가람의 무게도 모두 내려놓으소서. 평생 그리셨던 화엄세계에서 이제는 ‘멀리 가는 이[遠行]’가 아니라 ‘이미 도착한 이’로 영원한 평온을 누리시옵소서.”

한암·탄허·만화 대종사로 이어지는 오대산 법통을 계승하고 선양하며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던 조계종 원로의원 자광 원행 대종사(월정사 선덕)가 적멸의 길로 나아갔다.

조계종은 3월 16일 월정사 화엄루 일원에서 ‘자광당 원행 대종사 영결·다비식’을 원로회의장으로 엄수했다.

이날 영결·다비식에는 원로의장 불영 자광 대종사, 총무원장 진우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을 비롯한 종단 주요 지도자 스님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각계 인사, 지역 불자 등 사부대중 2000여 명이 참석했다. 평소 원행 스님과 인연이 깊었던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 울산지원장 혜안 스님 등 한마음선원 사부대중과 한명우 현대불교신문 대표도 영결식장을 찾아 애도했다.

영결식에서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는 법어를 통해 원행 스님을 추모했다. 성파 스님은 원로회의 수석부의장 상월 보선 대종사가 대독한 법어에서 “원행 스님께서는 한암, 탄허, 만화 스님의 법통을 이어 수행하시고, 월정사 대웅전 중창 등의 가람수호와 불교중흥을 위해 정진하셨으며, 재소자 등의 교화에도 힘쓰시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모범을 보이신 이 시대의 선지식이셨다”고 회고하며 “이제 대종사 각령전에 조계의 맑은 물로 청차(淸茶)를 올리오니 감로법미(甘露法味)로 무생락(無生樂)을 누리소서”라고 설했다.

진우 스님은 추도사를 통해 “스님께서는 오대산 삼화상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과 포교, 도량불사와 화합을 위해 평생을 바치셨다”며 “동해 바다의 흰 구름이 태백산맥을 넘어 다시 오대산으로 돌아오듯 혹여 아직 이루지 못한 원력이 남아 있다면 속환사바하시어 그 뜻을 다시 이루시기를 바란다”고 발원했다.


조계종 원로의원 자광 원행 대종사 영결 · 다비식이 3월 16일 오대산 월정사 화엄루 일원에서 엄수됐다.

자광 스님은 영결사를 통해 “스님께서는 살아생전 ‘인생은 초저녁 풋잠에 꾼 꿈에 지나지 않은 것을 알면 부처이고, 이를 모르고 꿈속에서 꿈을 꾸면 무지한 중생’이라고 설하셨다”면서 “부디 속환사바(速還娑婆)하시어 꿈속에서 꿈을 꾸는 미욱한 중생들에게 이 세상이 한바탕 부질없는 꿈임을 일깨워 주시라”고 애도했다.

문도를 대표해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추도문을 낭독하며 어른의 마지막을 기렸다. 정념 스님은 “탄허 스님께서는 스님께 ‘원행’이라는 법명과 함께 ‘멍청이가 되라’는 화두를 내렸고, 스님은 평생 ‘멍청이’라는 이름을 가장 귀중한 보물처럼 가슴에 품고 사셨다”고 회고하며 “불기 2570년 3월 12일, 우리는 스님께서 남기신 ‘멍청이’라는 이름의 고귀한 지혜와 지비심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영결식 후 원행 스님의 법구는 인로왕번을 앞세운 사부대중 만장행렬과 함께 연화대로 이운됐다. 연화대에 안치된 스님의 법구는 “스님! 불 들어갑니다”는 거화와 함께 사바세계에서 마지막 법문을 보이며 적멸로 나아갔다.

원행 스님의 49재는 △초재 3월 18일 오전 10시 오대산 월정사 △2재 3월 25일 10시 오대산 월정사 △3재 4월 1일 오전 10시 횡성 보광사 △4재 4월 8일 10시 오대산 월정사 △5재 4월 15일 오전 10시 횡성 보광사 △6재 4월 22일 오전 10시 오대산 월정사 △7재 4월 29일 10시 오대산 월정사에서 봉행된다.

자광 원행 대종사 행장

오대산 삼화상 법통 이은 ‘월정사 멍청이’

3월 12일 원적에 든 조계종 원로의원 자광 원행 대종사(월정사 선덕)는 곧잘 스스로를 ‘월정사 멍청이’라고 불렀다. 이는 원행 스님의 에세이집 제목이기도 하다. 그 연유는 스님의 출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원행 스님은 약관의 나이에 염불과 독경 소리에 이끌려 오대산 월정사로 출가했다. 오대산에 한암 스님, 탄허 스님과 같은 고승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였다. 스님은 월정사에서 만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행자 생활을 하고, 탄허 스님을 법사로 수계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원행 스님은 이같이 회고했다.

“탄허 큰스님께서 ‘〈화엄경〉에 나오는 십지명(十地名) 보살 가운데 칠지 보살인 원행지가 있다. 너는 원행(遠行)이라 해라. 그리고 멍청이가 되라’고 하면서 법명을 주셨어요. 그때는 내가 똑똑하고 영리한데 왜 멍청이가 되어야 할까 하는 생각을 품었지만, 평생의 좌우명이자 화두로 삼고 있습니다.”

‘오대산 삼화상’으로 널리 알려진 한암·탄허·만화 스님은 월정사 근현대 법통의 상징과도 같다. 만화 스님을 은사로, 탄허 스님을 법사로 출가해 수행정진했으니 사실상 삼화상의 법통을 이은 것과 다름없다. 원행 스님은 생전 세 선지식을 선양하기 위해 〈성인(聖人) 한암 대종사〉, 〈탄허 대선사 시봉 이야기〉, 〈만화 희찬 스님 시봉 이야기〉를 출간했다.

원행 스님은 ‘불사의 달인’이기도 했다. 은사 만화 스님을 보필하며 월정사 대웅전 중창불사를 도왔고, 폐사 직전인 대전 자광사를 중창했다. 동해 삼화사 주지 시절에는 노사나철불을 복원하기도 했다. 원주 치악산 구룡사 주지를 맡아서는 원주 지역 포교를 이끌었다.



이런 원행 스님에게도 아물지 않는 상처가 있었다. 월정사 재무 소임을 맡아 일하고 수행하던 중 1980년 10·27 법난 당시 강제 연행돼 극심한 고문을 받았다. 스님은 당시 받은 고문 후유증으로 계속 고생했다.

이제는 적멸의 길로 떠난 자광 원행 대종사는 본지와 했던 생전 마지막 인터뷰에서 대중들에게 후회 없는 정진을 당부했다.

“저 들녘에 핀 꽃 한 송이도 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화엄의 세계에서 볼 때는 온 힘을 다해 꽃피우는 민들레, 들국화, 장미는 모두 귀한 존재들입니다. 온 힘을 다 바쳐서 살아가는 존재는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불자 여러분들도 자신을 귀중하게 여기고, 자기의 온 생명을 다 바쳐 꽃피우는 꽃들처럼 후회 없이 살아야 합니다.”

정리=신중일 기자

해외불교는 지금

라마단 맞아 무슬림 돕는 동남아시아 불교계 ‘훈훈’

인도네시아·방글라데시 사찰
라마단 기간 ‘타크질’ 나눔
불교·이슬람 연대 공존 의미

이슬람교의 5대 의무 중 하나인 라마단이 이어지는 가운데, 아시아 불교계가 단식 중인 무슬림 이웃들을 돕기 위한 음식 나눔 활동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3월 13일, 해외 불교매체 ‘부디스트 도어 글로벌’과 ‘라디오 베리타스 아시아’ 등은 무슬림들에게 해가 진 후 먹는 식사인 ‘이프타르’를 제공하며 종교 간 연대를 실천하는 동남아 불교계의 움직임을 전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지난 3월 7일 인도네시아 청년불교협회(YBAI)가 협회 본부 앞에서 이프타르의 시작을 알리는 간식 ‘타크질’을 무료로 나누는 행사를 개최했다. YBAI의 청년 불자들은 물과 대추야자, 빵, 과일이 담긴 타크질 꾸러미 1000개를 퇴근길 무슬림 시민들에게 나눠 주며 라마단 기간을 축하했다.

타크질은 라마단 기간 일몰 후 단식을 마칠 때 가볍게 먹는 음식으로, 이프타르의 시작을 알리는 간식이다.

YBAI 회장 리마뇨노 탄토는 이번 행사가 타인의 행복과 공덕에 공감하며 기뻐하는 ‘수희(隨喜)’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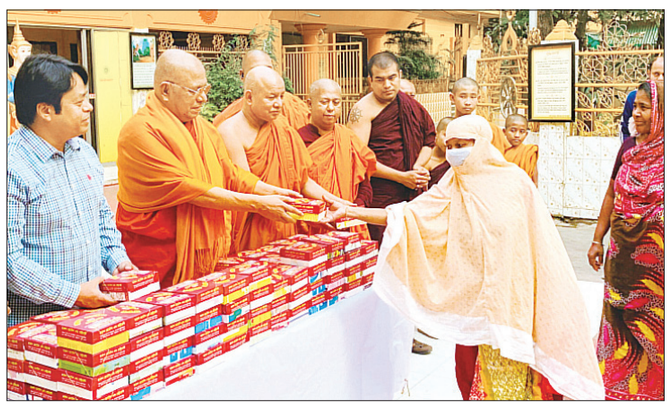
그는 “무슬림 이웃들이 단식을 통해 욕망을 제어하고, 불선업(不善業)을 멀리하며 꾸준히 선행을 실천하기 위해 라마단을 지키는 모습을 보니 깊은 기쁨을 느낀다”며 “그들의 수행은 불교의 가르침과도 아름답게 어우러지기에, 청년 불자인 우리가 하루의 단식을 마치려는 사람들에게 타크질을 나눠 주는 것은 의미 있는 실천”이라고 말했다.

방글라데시의 수도 다카의 다르마지카 사원은 14년째 라마단 기간 저소득층 무슬림들을 위한 이프타르 식사 보시를 이어 오고 있다. 사원 측의 설명에 따르면 이 활동은 전 주지 수다난다 마하테로 스님의 발원에서 시작됐다. 스님은 생전 라마단 기간 금식하는 일용직 노동자와 걸인들을 보며, 어려운 형편에도 신앙을 지키는 이들이 존엄하게 단식을 마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음식 나눔을 시작했다.

다르마지카 사원 청년부 회장 브라흐만다 바루아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이 찾아오더라도 누구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는다”며 “근처 상점에서 음식을 구입해 모두가 음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종교를 초월한 공통의 가치”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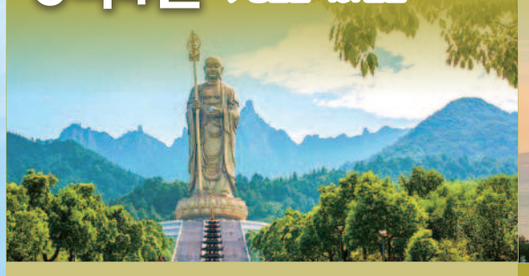
현지 언론들은 이러한 활동이 불교와 이슬람 사이의 이해와 연대를 높이고, 다종교 사회에서 평화로운 공존과 상호 존중을 보여 주는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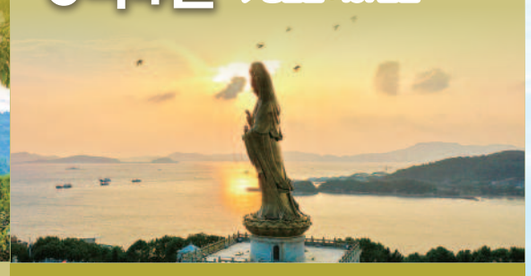

방글라데시 다르마지카 사원에서 스님들이 무슬림들에게 저녁 식사인 ‘이프타르’를 보시하고 있다. 사진 출처=라디오 베리타스 아시아

중국 4대 불교성지

지장도량(구화산) 3박4일 ▶동참금 : 139만원~



관음도량(보타산) 3박4일 ▶동참금 : 139만원~



보현도량(아미산) 3박4일 ▶동참금 :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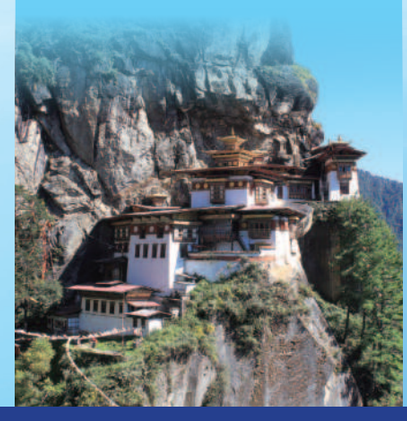
문수도량(오대산) 3박4일 ▶동참금 : 문의



민족의 영산
백두산 3박4일
▶일 정 : 인천-연길-백두산(북파+서파)-용정-도문-연길-인천
▶동참금 : 135만원~



히말라야 설원에 꽃피운 불심
부탄 5박7일
▶일정 1 : 인천-네팔 카트만두-부탄 파로-팀푸-푸나카-파로-네팔 카트만두-인천
▶일정 2 : 인천-태국 방콕-부탄 파로-팀푸-푸나카-파로-태국 방콕-인천
▶동참금 : 문의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떠나는
인도&네팔 8박10일
▶일 정 :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쉬라바스티-아그라-델리-인천
▶출발일 : 10월 29일 / 11월 4일 11월 11일 / 11월 25일
▶동참금 : 290만원~



성지순례자의 도반 마하연투어
예약·상담 02-365-7747 마하연투어
www.mahayeon.com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39(우정에쉐르) 1401호

하정선 회장 "시다림 30년, 주인공은 회원들"

염불공양회, 3월 12일 간담회
1년 200회씩 무주상보시 실천
재난 현장 찾아 구호 물품 전달
27년간 동전 모아 인재불사도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염불공양회가 새로운 신행공동체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자처하며 3월 12일, 30년간의 활동을 회향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범어사에서 봉행된 영결식에서 염불공양 의식을 집전하는 하정선 회장(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남편 우판수 불자(오른쪽).

"시다림(장례 염불) 봉사는 밤낮이 없고 계절이 없는 고된 활동이었습니다. 회원들이 언제든 현장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무조건적으로 이해하고 협조해 준 가족들 덕분입니다. 진정한 주인공은 밤낮없이 헌신한 회원과 그 가족들이며, 오늘의 회향은 이들이 함께 일궈 낸 결실입니다"

죽음의 현장에서 자비를 실천해 온 'BTN불교TV 염불공양회(이하 염불공양회)'가 30년간의 활동을 회향했다. 하정선 염불공양회장은 3월 12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묵묵히 곁을 내준 이들에게 공덕을 돌리는 헌사로 말문을 열었다.

하 회장은 "염불공양회가 30년간 현장을 지킬 수 있었던 동력은 스님들의 지지와 부산불교연합회 직원들의 행정적 뒷받침이었다"며 감사를 전했다.

염불공양회의 30년 궤적은 철저한 무주상보시의 실천이었다. 하 회장은 "불자임에도 미신에 현혹돼 초상집을 꺼리는 사견(邪見)을 깨고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고 싶었다"며 1994년 3월 10일 염불공양회를 공식 창립했다. 특히 남편 우판수 씨가 BTN불교TV 부산지사 초대 지사장을 맡게 된 것을 계기로 활동을 널리 알리며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핵심 활동인 '시다림 봉사'는 1년에 200여 회에 달했다. 이 모든 활동은 가난 탓에 고인의 마지막 길에 염불조차 온전히 올리지 못하는 소외된 이웃을 위해 철저히 대가 없는 '무주상보시'로 진행됐다. 회원들은 현장 투입에 앞서 전문적인 염불 및 집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 장례 의식의 장엄함을 높였고, 죽음에는 예고가 없기에 한겨울 새벽이나 늦은 밤을 가리지 않고 부름이 있으면 유족들에게 달려갔다.

봉사는 빈소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2002년 태풍 매미가 덮친 부산 가덕도, 2006년 집중호우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강원도 인제군 등 참혹한 재난 현장을 찾아 일주일씩 머물렀다. 시신조차 찾지 못한 유가족을 위해 〈천수경〉과 〈금강경〉을 독송하고 이재민 구호 물품을 전하며 상실의 고통을 함께 나눴다.

죽음의 현장에서 목격한 소외된 이웃의 가난은 산 자를 위한 27년의 '인재불사'로 연결됐다. 빈소에서 고인의 마지막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거나 학업을 포기해야 하는 유가족을 본 회원들은 매일 〈금강경〉을 사경하며 저금통에 동전을 모았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지난 27년간 고등학생과 대학생 장학금으로 쓰였으며, 장학금이 2억8000여 만원에 이른다.

하정선 회장은 오랜 활동을 마무리하는 이유에 대해 "우리가 너무 오래 이 자리를 지키기보다는, 이제는 자리를 비워 주어야 또 다른 후배 단체들이 새로운 불사를 이어 갈 수 있지 않겠느냐"며 훗날 등장할 신행 공동체를 위해 마중물 역할을 자처했다. 이어 "비록 함께한 회원들과 단체로서의 공식적인 보살행은 마무리하지만, 생사의 현장에서 땀 흘리며 쌓아 온 숭고한 도반의 연(緣)은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도사, 목산당 지은 대종사 1주기 부도탑 제막

3월 17일, 다례재 및 제막식 봉행
가람 수호 · 전법 교화 유덕 기려


문도대표 신광 스님은 지은 대종사 부도탑 앞에서 은사 스님의 뜻을 이어 화합하고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가람 수호와 전법 교화에 평생을 헌신하며 이사(理事)를 두루 겸비한 선지식으로 추앙받았던 전 통도사 주지 목산당 지은 대종사의 유덕을 기리는 자리가 마련됐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는 3월 17일 설법전 및 부도원에서 지은 대종사의 원적 1주기를 맞아 추모 다례재 및 부도탑 제막식을 봉행했다.

다례재에는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와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을 비롯해 문도 스님과 사부대중이 동참해 명안종사(明眼宗師)였던 지은 스님의 가르침을 기렸다. 참석자들은 다례재 직후 새롭게 조성된 부도탑을 제막하며 대종사의 맑은 수행 가풍을 후대에 길이 전할 것을 서원했다.

문도대표 신광 스님은 "부도 비명을 직접 내려 주신 성파 대종사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은사 스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상좌들 간에 화합하고 더욱 치열하게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해 2월 26일 열반에 든 지은 스님은 노천당 월하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57년 통도사에서 사미계를, 1960년 구족계를 수지하고 1969년 통도사 승가대학을 졸업했다. 또 보광선원에서의 첫 수선 안거를 시작으로 평생 20안거를 성만하는 등 수행정진에 매진했다.

스님의 발자취는 수행처에만 머물지 않고 대중 교화와 불교 행정으로 폭넓게 이어졌다. 통도사 규정국장을 시작으로 통도사 주지를 역임하며 산중 화합을 이끌었고, 마산포교당·밀양 표충사·울산 백양사 주지 등을 맡아 침체된 지역 불교와 도심 포교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경남불교청년회 총재와 경남불교신도회 총재, 밀양불교사원연합회장 등을 지내며 재가불자 조직화에 헌신했다. 아울러 경남경찰청 경승실장, 학교법인 해동학원(해동고) 이사,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 이사, 불교TV 이사 등의 중책을 맡아 방송 포교와 교육, 국제 교류에 이르기까지 전법활동을 펼쳤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태고종 부산교구·부산시, '불교문화 활성화' 맞손

3월 16일, 부산시청서 간담회
'위령재-시민축제' 개최 지원



태고종 부산교구종무원과 부산시가 문화유산인 영산재를 매개로 지역 문화 활성화와 호국영령 추모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섰다.

태고종 부산교구종무원(원장 자관 스님)은 3월 16일 부산시청에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간담회를 열고, 오는 4월 봉행 예정인 '영산위령재 및 시민문화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행정적 지원과 정책적 협조를 공식 요청했다.〈사진〉

이날 간담회에서 종무원장 자관 스님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영산재를 부산 시민들이 일상에서 향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불교 전통의례의 보존은 물론 지역사회의 안녕을 기원하는 종교적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22년간 이어 온 '동래읍성 임진왜란 호국영령 위령재'를 영산재 의식과 결합해 그 역사적 무게감을 더했다. 과거 외세의 침략에 맞서다 희생된 3500여 명의 넋을 기리는 추모 의식을 장엄한 불교 예술로 재해석해, 지역의 독창적인 호국 문화 콘텐츠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박형준 시장은 "불교문화는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줄 수 있는 핵심적인 문화 자산"이라며 "시민들이 불교문화에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오는 4월 19일 동래구 자비암에서 거행될 이번 축제는 1부 영산위령재와 2부 시민 소통 음악회로 진행된다. 전문 의제단 스님 18명을 비롯해 사부대중 530여 명이 참여해 의식을 시연할 예정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창건 35주년 금강정사 "시민 쉼터로"

3월 15일, 기념법회 봉행
전통문화체험관 원력 다져



광명 금강정사(주지 가섭 스님)가 창건 35주년을 맞아 그동안 수행과 전법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새로운 도약을 발원했다.〈사진〉

금강정사는 3월 15일 경내서 '창건 35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회주 지홍 스님과 주지 가섭 스님, 박승원 광명시장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참석해 도량의 역사와 의미를 되새기며 축하의 뜻을 전했다.

법회는 가섭 스님과 내빈들의 헌화를 시작으로 창건 원력을 기리고, 조응식 신도회장의 인사말을 통해 금강정사의 창건 역사를 돌아봤다. 조 신도회장은 "회주 지홍 스님과 주지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의 원력으로 도심에서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고 시민들의 마음을 밝히는 수행도량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회주 지홍 스님은 "앞으로 금강정사가 광명을 대표하는 사찰이자 시민들의 마음을 쉬어가는 수행 공간이 되도록 함께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전통문화체험관 건립 불사를 언급하며 "전통문화와 수행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열린 문화도량으로 거듭나겠다"고 불사의 원만한 회향을 기원했다.

홍승도 경기남부지사장

환경·국가유산, 청소년이 지킨다

부산불교환경연대, 3월 14일 '지킴이단' 발대식



생명 평화 운동의 기치를 높여 온 부산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안도 스님)가 미래 세대와 손잡고 문화유산과 지구 생태계를 수호하는 파수꾼으로 나섰다.

부산불교환경연대는 3월 14일 해운대 반야선원에서 부산국가유산지킴이와 공동으로 '청소년 환경지킴이단 및 청소년 국가유산지킴이단 발대식'을 거행했다.〈사진〉 이번 발대식은 불교적 자비 사상을 바탕으로 청소년 육성과 국가유산 보호라는 실천적 영역을 결합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이날 위촉된 26명의 청소년 대원은 매월 넷째 주 부산 지역 내 주요 국가유산 현장을 직접 순례하며 정화 활동을 전개한다. 또 일상생활에서는 '일회용품 사용 금지'와 '탄소 중립 실천' 등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생명 살림 파수꾼으로서 활동하게 된다.

상임대표 안도 스님은 "청소년들이 먼저 일회용품 없는 세상을 만들고 우리 유산을 가꾸겠다고 나선 것은 부산의 희망을 보여 주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일상 속 환경 실천이 참된 수행"

부산여성불자회, EM 비누 만들기 체험 행사



부산여성불자회(회장 정분남)가 3월 18일 포교사단 부산지역단 사무실에서 불교의 생명존중 사상을 일상 속 환경 보호로 실천하기 위한 '친환경 EM 비누 만들기 체험' 행사를 개최했다.〈사진〉

정분남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실천으로의 전환'을 역설했다. 정 회장은 "부처님 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오랜 습관"이라며 "우리가 만든 비누가 물을 정화하듯, 환경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당장 각자의 가정에서부터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진정한 불자의 자세"라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베이킹소다에 천연 레몬 오일을 배합해 EM(유용미생물) 비누를 제작했다.

이날 행사를 제안한 정찬 스님은 "물기 없는 채소나 과일을 살 때 비닐 대신 직접 접은 신문지 봉투나 '지구사랑 가방(현수막 장바구니)'을 사용하면 상인들과 자연스럽게 훈훈한 교류가 이어진다"며 "이러한 일상적 실천을 이웃으로 확산시키는 것 자체가 부처님의 자비 정신에 근거한 이 시대의 살아 있는 포교"라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법정 스님 뜻 이어 향기로운 삶 발원"

맑고향기롭게 부산, 법정 스님 16주기 추모회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회장 박수관)이 3월 14일 사무국에서 '법정 스님 16주기 추모회'를 봉행하고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겼다.〈사진〉

추모회에는 전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 조계종 화쟁위원장 정만 스님, 길상사 주지 자인 스님,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 범혜 스님, 범어사 보타 스님을 비롯해 박수관 회장과 맑고향기롭게 운영위원 및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경선 스님은 "법정 스님께서 열반하신 지 어느덧 16년이 흘렀지만, 스님의 가르침은 여전히 우리 삶 속에 살아 있다"며 "스님은 늘 '삶이 곧 기도이고 수행'이라 강조하며 청년들에게 바르게 살아가라고 당부하셨다"고 회고했다.

박수관 회장은 "무소유와 맑고 향기로운 삶을 실천하신 스님의 가르침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지켜가게 하는 힘이 된다"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스님의 뜻을 다시 새기고 각자의 자리에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정법사, 영축불교대학·대학원 입학식

3월 7일, 총 238명…대자유치원도 188명 등록



창원 정법사(주지 광우 스님)가 3월 7일 경내 만불보전에서 '2026 영축불교대학·대학원 입학식'을 봉행했다.〈사진〉

이날 교양반 38명, 전공반 46명, 경전반 107명, 대학원반 47명 등 총 238명이 등록해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올해 강사진은 주지 광우 스님을 비롯한 사중 스님들과 이철헌·박성철 교수 등이 맡아 불교 교리와 수행, 문화 전반에 대한 폭넓은 강의를 진행한다.

또 올해 상반기 개원을 앞둔 '비로선원'과 연계해 선명상, 차명상, 향명상 등 다양한 수행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정법사 부설 대자유치원은 2월 28일 제100회 입학식을 열고 만 3~5세의 총 8개 반, 188명의 원아를 맞았다.

대자유치원은 불교유치원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교육기관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보원사지 오층석탑 국보 승격 축하합니다”

3월 18일, 지정서 전달식
보물 지정 62년 만 국보로
도신 스님 “성지 위상 확립”

유재상 충청지사장



서산시는 3월 18일 보원사지 일원에서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 국보 승격 기념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국보 지정서 전달식 후 기념촬영 모습.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의 국보 승격을 축하하고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산시(시장 이완섭)는 3월 18일 보원사지 일원에서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 국보 승격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조계종 제7교구본사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과 정범 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원), 혜산 스님(개심사 주지), 정경 스님(간월암 주지)을 비롯한 교구 스님들과 허민 국가유산청장, 이완섭 서산시장, 홍종완 충남도 행정부지사, 조동식 서산시의회 의장, 성일종 국회의원과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행사는 대북 공연 ‘소리울림’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내빈 소개에 이어 성악과 국악 축하공연으로 진행됐다. 이어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이완섭 서산시장에게 지정서를 전달하며 국보 승격을 공식화했다.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은 “보원사지 오층석탑의 국보 승격은 불교문화의 깊은 역사와 수행 전통이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뜻깊은 일”이라며 “이 유산을 지켜 온 모든 이들의 공덕이 오늘의 결실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보원사지가 불교문화의 성지로서 위상을 더욱 확립하고, 참배하는 모든 이들의 삶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보원사지 오층석탑은 통일신라와 고려를 잇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라며 “이번 국보 승격은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국가적으로 인정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유산으로 가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국보 승격은 18만 서산 시민의 염원과 노력이 모여 이룬 결실”이라며 “서산의 역사와 문화 정체성을 상징하는 자산으로 보존과 활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성일종 국회의원은 “정책적 지원과 지역사회의 노력이 함께 만든 결과”라며 “지역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는 데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보원사지 오층석탑 국보 승격에 기여한 공로로 정광용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명예교수와 정은우 부산시립박물관장에게 감사패가 수여됐다. 정광용 명예교수는 문화유산 보존과학 연구를 통해 석탑의 구조와 제작 기법을 규명해 학술적 근거를 마련했고, 정은우 관장은 불교미술과 석조조각 연구를 바탕으로 조형성과 시대적 가치를 밝혀 국보 지정의 당위성 확립에 기여했다.

보원사지 오층석탑은 석탑의 조영 기법과 양식을 고려할 때 10세기 중반에 건립된 것을 알 수 있어, 우리나라 석탑의 편년(編年) 기준이 되는 석탑이다. 통일신라와 고려를 잇는 조형성과 조각 기법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보물 지정 62년 만에 국보로 승격됐다.

보원사지 일원에서는 2006년부터 2025년까지 발굴이 진행돼 지금까지 3천700여 점의 유물이 출토됐고, 이 가운데 철조여래좌상을 비롯한 30여 점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돼 있다. 또 보원사 경내에 박물관 기능을 갖춘 방문자센터 조성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유물의 환지·이전과 함께 체계적인 보존과 전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남 육조정맥선원 ‘3년 결사안거’ 정진

작년 12월 7일 입재, 3년 정진
출·재가자 40여 명 방부 들어
전법 선사 지도로 수행자 양성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해남 육조정맥선원은 지난해 12월 7일 ‘3년 결사안거’에 입재해 정진 중이다. 안거에는 40여 명의 출·재가자가 참여했다.

해남 육조정맥선원(조실 농선 대원전법 선사)이 ‘3년 결사안거’에 입재해 가열찬 수행정진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결사는 지난해 12월 7일 입재해 2028년 12월 7일 회향을 목표로 진행되는 장기 수행이다. 현재 스님과 재가자를 포함해 약 40여 명의 수행자가 정진하고 있으며, 일부 재가 수행자들은 생업으로 인해 단기 정진을 이어 가고 있다. 취침 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에 참선과 점검을 통해 깨달음을 향한 수행을 계속하고 있다.

대원 전법 선사는 이번 3년 결사 수행의 의미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는 수행 도량이 드문 현실에서, 참된 수행자를 길러 내기 위해 3년 결사를 시작했다”며 “3년 동안 죽기를 각오하고 정진하면 마음을 바로 보는 수행의 길이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의 근본 목적은 마음을 찾아 마음이 내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나고 죽음에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육조정맥선원은 해남 도량을 중심으로 경기와 부산, 경북, 광주 등에 7개의 선원을 운영하고 있다. 각 선원에서는 참선과 법문을 통해 수행 전통을 이어 가고 있다.

대원 전법 선사는 “수행은 무엇보다 마음이 정직해야 한다.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어떤 수행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며 “수행은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육조정맥선원은 대원 선사의 법문과 수행 사상을 정리한 책을 문젠미디어를 통해 출간하고, 영어와 중국어 등 3개 국어로 번역해 전파하고 있다. 또 전통적인 수행 가르침을 현대 기술과 접목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활동도 이어 가고 있다.

봉정사 덕휘루 ‘보물’ 지정서 전달

3월 17일, 누각서 전달식
본래 누각명도 되찾아



안동 봉정사의 누각 ‘만세루’가 본래 이름인 ‘덕휘루’로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에 지정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안동시는 3월 17일 봉정사(주지 두현 스님)에서 ‘봉정사 덕휘루 보물 지정서 전달식’을 열고 전통 사찰 건축의 가치를 재확인했다.〈사진〉 지난달 보물로 지정된 덕휘루는 봉정사를 대표하는 누각으로, 그간 만세루로 불렸으나 최근 조사에서 1680년 건립 당시 덕휘루로 명명됐음이 확인됐다.

덕휘루라는 이름은 중국 한나라 시인 가의의 시구에서 유래한 것으로 ‘봉황이 높은 곳을 날다가 빛나는 덕을 보고 내려온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는 ‘봉황이 머문 절’이라는 의미의 봉정사 사명과도 깊이 맞닿아 있는 명칭이다.

1818년 중건을 거치며 오랜 세월 덕휘루로 불렸으나 20세기 초 만세루라는 편액이 걸린 이후 만세루로 알려져 왔다. 2001년 경상북도 유형유산으로 지정됐고, 이번에 덕휘루라는 이름으로 보물로 승격되며 건물에 담긴 본래의 뜻과 역사성이 재조명됐다.

주지 두현 스님은 “천년 역사의 봉정사가 덕휘루의 보물 승격으로 사찰의 역사와 전통을 다시 조명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봉정사의 문화유산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보존과 전승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봉정사 회주 호성 스님과 주지 두현 스님, 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 광흥사 주지 범종 스님을 비롯해 권기창 안동시장, 천성용 제16교구 신도회장, 안윤호 봉정사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한편 안동 봉정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으로 등재된 7개 사찰 중 하나다.

안동 봉정사=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쪽방촌 어르신 위한 자비 곳간 열렸다”

복암사, ‘온드림곳간’ 개소식
식료품 등 나눔 펜트리 운영



광주 동구 대인동 쪽방 거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나눔 공간 ‘온(溫)드림(Dream) 곳간’이 문을 열었다.

광주 동구청(청장 임택)은 3월 13일 쪽빛상담소에서 ‘온드림 곳간’ 개소식을 개최했다.〈사진〉 광주 동구 대인동 일대는 오래된 여관·여인숙 건물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경제적 어려움이나 주거 불안정으로 인해 좁은 방에서 생활하는 이른바 ‘쪽방 거주민’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이번에 문을 연 ‘온드림곳간’은 쪽방 거주민들에게 식료품과 생필품을 지원하는 나눔 펜트리(Pantry) 사업이다. 라면과 햇반, 화장지, 세제 등 생활 필수품을 비치해 주민들이 필요할 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이 사업은 조계종 복암사와 자비신행회의 후원으로 추진됐다. 두 단체는 매월 약 3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쪽방 거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울 계획이다. ‘온드림곳간’은 회원제로 운영되며 현재 200여 명의 쪽방 거주민들이 회원으로 등록돼 있다.

후원자로 나선 광주 복암사 주지 도성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그늘진 곳의 이웃들에게 작은 힘이나마 보태 따뜻한 응원을 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대인동 여관·여인숙 거리에는 우리의 관심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이 많다. 온드림곳간이 이곳 주민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십시일반의 나눔 정신을 담은 이 공간이 앞으로 더 많은 지역사회로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임택 동구청장은 “도성 스님과 자비신행회 등 많은 분들의 나눔이 이 마을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세종 광제사, 이해찬 전 총리 49재

3월 14일, 대웅전서 봉행



세종 광제사(주지 탄대 스님)가 3월 14일 대웅전에 이해찬 제36대 국무총리의 49재를 봉행하고 고인의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할 것을 다짐했다.〈사진〉

49재에는 주지 탄대 스님과 효림 스님(경원사 주지), 원행 스님(세종시불교낙화법보존회장), 선중 스님(보현정사 주지)을 비롯한 지역 스님들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 조상호 전 세종시 부시장 등 사부대중이 참석해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이해찬 전 총리와 인연을 이어 왔던 효림 스님은 추모사에서 “총리를 지낸 경력을 넘어 우리나라 민주화 과정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헌신한, 나라의 큰 어른이라 부를 만한 분”이라며 “막힌 강을 열어 흐르게 하고 역사의 큰 줄기를 바로 세워 밝은 길을 열었다”고 추모했다.

탄대 스님은 인사말에서 “고 이해찬 국무총리의 극락왕생과 상품상생을 발원한다”며 “고인이 추구했던 민주주의의 큰 뜻이 대한민국의 참 민주주의로 꽃피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상호 전 세종시 부시장은 인사말에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49재에 귀한 걸음을 해 주신 모든 분께 유가족을 대신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민들의 추모와 위로 덕분에 가족들이 큰 힘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월정사 금강경봉찬기도회 3주년 특별법회

3월 14일, 문수선원서 봉행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주지 정념 스님)는 3월 14일 문수선원에서 ‘월정사 금강경봉찬기도회 3주년 기념 특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법회에는 주지 정념 스님을 비롯해 수행원장 자현 스님, 기도신행실장 혜묵 스님 등과 전국 각지에서 모인 회원 불자 1500여 명이 동참했다.

주지 정념 스님은 특별법문에서 “출범 3주년을 맞이한 금강경봉찬기도회의 성취를 함께 축하한다”며 “3년의 시간은 이제 막 보리의 뿌리를 내린 단계로, 열매를 맺기 위한 기초의 시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금강경봉찬기도회를 세계불교의 큰 보리나무로 성장시켜 많은 이들에게 감로를 베풀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월정사 금강경봉찬기도회는 지난 3년간 꾸준한 신행 확산을 통해 현재 누적 접수 1만5천 가구, 기본 유지세대 8천 가구 규모로 성장했다.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진행되는 철야정진기도에는 평균 2000여 명의 불자가 동참하고 있으며, 불교 발전과 학인 지원을 위한 후원 보시도 지속적으로 실천해 오고 있다.

이동격 강원지사장

직지사, 정혜 대선사 79주기 다례재

3월 18일, 경내 천불전서



한국불교 수행 가풍을 이끌며 교화행을 펼쳤던 탄옹당 정혜 대선사의 열반 79주기 추모 다례재가 3월 18일 김천 직지사 천불전에서 봉행됐다.〈사진〉

이날 다례재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헌향·헌다·헌화로 시작됐으며, 직지사 문장 혜창 대종사와 회주 법성 대종사, 조계종 원로의원 법등 대종사, 주지 장명 스님을 비롯한 문중 스님들이 참석했다.

주지 장명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엄혹한 일제강점기에도 한국불교의 승풍이 땅에 떨어지는 시련을 아랑곳하지 않고 선과 교를 겸수하며 수행자의 표상이 되셨다”며 “선대의 업적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후손으로서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혜 대선사는 근대 한국불교 대강백 제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오대산 상원사에서 수행하며 후학을 지도했다.

특히 불교를 주제로 한 연극을 선보이는 등 시대를 앞선 교화행으로 현대 포교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천 직지사=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공주 동혈사, 진신사리 봉안석탑 조성

3월 15일, 봉안식 봉행



공주 동혈사(주지 종성 스님)에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안한 9층석탑이 세워졌다. 3월 15일 동혈사에서 열린 9층석탑 봉안식에는 주지 종성 스님과 용담 스님(부여 가탑사)을 비롯해 이계숙 신도회장, 김영찬 총무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사진〉

주지 종성 스님은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다는 것은 동혈사가 살아 있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은 의미”라며 “사리를 중심으로 수행과 신앙이 이어지고 많은 불자가 마음을 모으는 도량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에 조성된 9층석탑 내부에는 부처님 진신사리 4과와 다라니 사경이 봉안돼, 동혈사의 수행과 신앙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하게 됐다. 석탑 옆에는 소원을 성취하고 지혜를 상징하는 여의보주 형상의 석조 조형물도 함께 조성됐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봉암사결사 의례·장엄 개혁, 한마음선원이 계승”

최원섭 연구원, 대행선연구원 계절발표회서 주장

1947년부터 2년 6개월간 진행
봉암사결사 ‘부처님 법대로’ 강조
의례 장엄 개혁, 종단 계승 ‘부족’

한마음선원, 기도 아닌 법회 중심
신중탱화, 산신각, 칠성각 등 전무
“선원, 봉암사 정신 현대적 계승”

안양=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부처님 법대로 살자’는 기치 아래 진행된 봉암사결사의 의례·법당 장엄 개혁 정신을 한마음선원이 계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원섭 대행선연구원 연구원은 3월 14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3층 법당에서 열린 ‘대행선연구원 제26회 계절발표회’에서 발표한 ‘봉암사결사 정신 계승의 일면-한마음선원의 법당 장엄과 신행 의례’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봉암사결사는 성철 스님과 청담 스님을 중심으로 한 수좌 50여 명이 1947년 10월부터 1950년 3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진행한 불교 운동이다. 최 연구원은 봉암사결사의 ‘의례’ 측면에 주목했다.

그에 따르면 봉암사결사에서는 스님이 기복적으로 불공하는 관행과 축원이 금지됐고 신도가 스님에게 삼배를 하도록 했다. 또 복잡한 천도재 의례 대신 〈금강경〉과 〈반야심경〉을 독송하는 것으로 했다. 산신각, 칠성각 등 불교와 관계없는 전각과 의례를 폐지하면서 신중탱화를 없앴는데, 이와 함께 중단 예불이 폐지되고 〈반야심경〉 독송으로 바뀌었다.

최 연구원은 “봉암사결사에서 실행됐던 의식·의례·규칙 등은 이후 조계종단에서 관행화됐고 전국의 사찰에 보급돼 보편적인 불교의례로 자리매김하게 됐다”면서 “이처럼 봉암사결사의 의례가 한국불교에 미친 영향은 엄청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조계종에서는 예불 등의 일상 의례는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지만 법당을 장엄하는 방식이나 전각을 건립하는 부분에서는 봉암사결사 정신을 따르고 있지 않다”며 “일선 사찰에서는 신중단은 물론 영단을 조성하고 천도재나 생전예수재 등이 중요한 의식으로 자리 잡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봉암사결사가 보인 의례·법당 장엄 개혁 정신을 한마음선원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게 최 연구원의 주된 논지다. 최 연구원은 한마음선원의 신행 의례 중 △새해맞이 촛불재 △법당 인등과 연등 △천도재를 계승의 사례로 꼽았다.

그에 따르면 한마음선원은 정초기도 대신 ‘새해맞이 촛불재’를 음력 1월 1일부터 3일간 봉행한다. ‘기도라는 이름을 쓰지 말라. 상대를 놓고 비는 게 기도’라는 대행 선사의 가르침에 따라 이뤄지는 촛불재는 “초를 켜는 행위를 마음의 불을 밝히는 것으로 상징해 자신의 불성을 발견하게 하려는 의례”로 “한마음선원에서는 기복적 ‘기도’가 자기 수행의 ‘정진’으로 대체돼 매월 음력 초하루와 보름에 3일 동안 ‘한마음 정진’이 진행되고 있다”는 게 최 연구원의 설명이다.



최원섭 대행선연구원 연구원이 3월 14일 ‘대행선연구원 제26회 계절발표회’에서 ‘봉암사결사 정신 계승의 일면-한마음선원의 법당 장엄과 신행 의례’를 발표하고 있다.

또한 한마음선원에서는 인등은 물론 어떤 등(燈)도 장엄하지 않고 부처님오신날과 백중에만 3일간 달고 있다. 이 역시 ‘마음의 심지에 불을 당기면 바로 인등’이라는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으로 최 연구원은 “마음의 등을 밝히는 것으로 의미를 전환시켜 스스로의 주인공을 찾는 일을 강조하는 신행”임에 주목했다.

천도재 역시 한마음선원은 위패에 일체 조상을 모시고 재의 상차림을 ‘육법공양’에 근거해 차린다. 한마음선원의 육법공양은 초, 다기물, 향, 꽃, 과일, 공양(우주떡)으로 최 연구원은 “천도재의 핵심인 육법공양의 의미를 대행 선사는 공양을 올리는 사람의 마음과 공덕으로 다른 이들에게 이익을 주는 일로 설명하고 있다”고 봤다.

더불어 △대법당 이외 어떠한 형태의 전각도 조성하지 않는 점 △신중단을 아예 만들지 않는 점 △복잡한 천도재 대신 육법공양 상차림과 최소한의 의식만 봉행하는 점도 계승의 사례로 제시했다.

나아가 최 연구원은 “한마음선원의 의례는 봉암사결사의 정신이 대중화하지 못했다거나 현대인의 삶과 정신세계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봉암사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한마음선원이지만 실제 신행에서 그 정신의 원류를 충분히 계승하면서도 일반 신도들도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의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런 점에서 한마음선원이야말로 봉암사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산인문예술학당 대표 동광 스님을 좌장으로 진행된 이날 계절발표회에서는 이경희 동국대 연구교수의 ‘법장 ‘십지품’ 해석과 세친의 영향’도 함께 발표됐다. 이날 이 교수는 세친이 지은 〈십지경론〉과 법장이 지은 〈탐현기〉 ‘십지품’의 구성과 내용을 비교 분석했다.

발표회에 앞서 열린 개회식에서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대행 선사께서 신도들에게 생활 속에서 진리를 찾고 불교를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도량을 여시고 길을 보이셨다”면서 “한마음선원의 행사와 장엄물, 의례가 종단이나 일선 사찰들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결국 부처님을 향한 자기 내면을 향해 바른 길로 이끈다는 점은 일맥상통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자리를 통해 봉암사결사에 대한 감사한 마음, 대행 선사께서 생활 속에서 불교를 알고 나를 찾아가고 세상을 밝히는 길로 이끌어 주신 것에 감사한 마음을 다시 한 번 새겨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행선연구원장 혜선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대행 선사가 내보이신 대행선을 선양하기 위해 설립한 대행선연구원이 올해로 개원 10주년을 맞았다”며 “그간 인연됐던 학자와 스님들, 신도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올린다”고 전했다.

황룡사지 발굴 50주년, ‘시민 대담’ 열린다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3월 26일부터 4회 진행

신라 최대 국찰(國刹)인 경주 황룡사지 발굴 50주년을 맞아 연구자와 시민들이 함께하는 대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소장 임승경, 이하 경주연구소)는 “‘시민들과 마주 앉아 나누는 신라에 관한 이야기, 대담신라(對談新羅)’를 올해 네 차례에 걸쳐 진행하기로 하고, 첫 번째 행사를 오는 3월 26일 오후 6시 30분 경주 오릉 인근 카페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주연구소가 2018년부터 시민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담신라’는 실제 문화유산 현장에서 조사와 연구를 담당하는 직원이 시민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신라의 역사와 문화유산에 관한 생생한 이야기를 나누는 문화유산 토론의 장이다.

올해 ‘대담신라’는 황룡사지 발굴 50주년을 맞아 △찬란했던 황룡사의 흥망성쇠(3월 26일, 최준식) △황룡사로 온 생선-1300년 전 신라의 택배(5월 28일, 김솔범) △우리가 몰랐던 황룡사지 발굴 이야기(8월 27일, 엄성현) △흙 속에서 과학으로-황룡사지 출토 유물 보존이야기(11월 26일, 정규덕) 등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경주연구소는 “신라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민들이 쉽고 편하게 문화유산을 누릴 수 있는 공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반야불교문화硏, ‘산사인문학 강좌’ 개설

4월 11일부터 6주간
통도사 반야암 설법전서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이사장 지안 스님)은 4월 11일부터 5월 16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양산 통도사 반야암 설법전에서 ‘제9회 산사인문학 강좌’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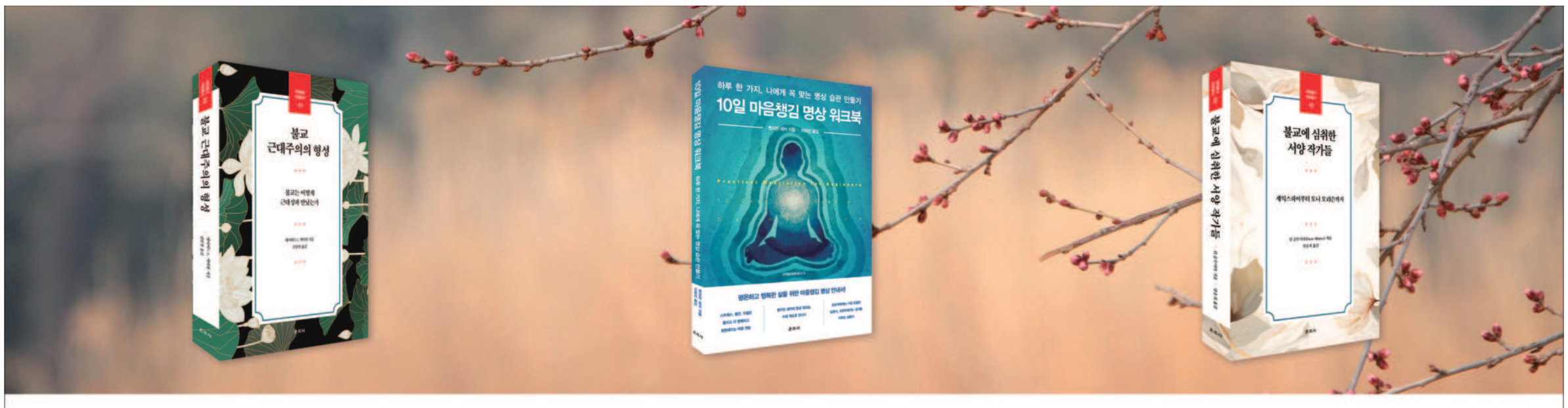
‘변하는 시대,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인문학적 사색’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좌는 기술 문명의 범람 속에서 자칫 상실하기 쉬운 인간성의 본질을 불교적 통찰과 인문학적 시각으로 풀어내기 위해 기획됐다.

강좌는 예술과 역사, 미래 기술을 관통하는 6개의 소주제로 구성됐다. 주요 강좌로는 △4월 11일 인드라 스님의 ‘트로트에 담는 경건한 불심’ △4월 18일 신한균 도예가의 ‘법기도자기, 진품의 복원과 창조’ △4월 25일 임재욱 경북대 교수의 ‘삼국유사, 사실을 넘어 진실 전하기’ △5월 2일 윤지영 동의대 교수의 ‘100세 시대, 늙음의 품위에 대하여’ △5월 9일 보일 스님(AI 부디즘 연구소장)의 ‘AI 시대와 AI 부디즘’ △5월 16일 민영현 부산대 외래교수의 ‘환단고기, 진위론에 대한 역사철학적 토론’ 등이 진행된다.

반야불교문화연구원은 “변화를 수용하되 현상에 매몰되지 않는 지혜가 있을 때 비로소 창조적 삶이 가능하다”며 “이번 강좌가 삶의 방향을 잃고 헤매는 이들에게 확고한 가치관을 심어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좌는 무료로 진행된다. 010-8738-3000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현대 불교 연구의 지평을 넓힌 역작!
불교 근대주의의 형성
흔히 ‘오래된 전통’이라고 여기는 불교의 모습 중 상당수가 사실은 근대의 서구철학, 과학, 심리학 등과 상호작용하며 형성된 역사적 산물임을 치밀하게 밝혀낸다.
데이비드 L. 맥마한 지음, 김한상 옮김/신국판/524쪽/값 32,000원

누구나 쉽게! 실용적인 명상 안내서!
10일 마음챙김 명상 워크북
하루에 한 가지씩 10일 동안 10가지 명상을 체험해봄으로써, 나에게 알맞은 명상법을 찾아내 이를 자신의 일상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벤자민 W. 데커 지음, 이혜진 옮김/국판/184쪽/값 15,800원

셰익스피어부터 토니 모리슨까지!
불교에 심취한 서양 작가들
저명한 서양 작가 22명의 작품에서 불교적 가르침을 찾아내 “불교는 어렵고 고리타분하다”는 편견과 “고전 문학은 지루하다”는 선입견을 동시에 깨부순다.
딘 슬루이터 지음, 양윤희 옮김/신국판/544쪽/값 32,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돌에 새겨진 역사를 만나다

명주사 고판화박물관
중국 화상석 탁본展
3월 22일~6월 28일
효당산 석사 탁본 눈길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중국 효당산 석사 대들보 동쪽 화상.

2000년 전 중국 한나라 시대 사당과 묘의 돌판에 새겨진 벽화 화상석 탁본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된다. 화상석은 사후 세계관과 역사, 일상생활을 풍부하게 담고 있어 당시 시대상을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역사 자료로 평가된다.

원주 명주사 고판화박물관(관장 한선학)은 3월 22일 한·중 수교 34주년 기념 춘계 특별전 '돌에 새겨진 역사와 신화 이야기-중국 화상석 탁본'을 개막했다. 이번 특별전은 고판화박물관에서 열리는 3번째 탁본 전시로 국가유산청과 강원도, 원주시 후원으로 진행되는 '2026년 생생국가유산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화상석은 무덤과 사당 등에 사용된 사각 돌판에 역사와 신화 등 다양한 이야기를 그림으로 새긴 것을 말한다. 이후 금석학 연구가 발전하면서 탁본으로 인출된 작품들이 전해지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2017년과 2022년 열린 '세계 불교 탁본전1·2' 이후 새롭게 수집된 중국 화상석 관련 탁본 50여 점이 출품됐다.

3월 16일 서울 종로에서 특별전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한선학 관장은 "중국 화상석은 돌에 새겨진 역사와 신화의 그림책이자 중국 고대 미술의 금자탑"이라며 "중국 미술사의 계승과 발전의 시발점으로 불교 석굴 사원 선각화에도 영향을 미쳤고, 중국 전통 목각판화의 시작이자 고구려 고분벽화와의 연관 자료로도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시는 중국 고대 신화와 역사, 생활상 등을 통해 동양 문화의 흐름과 한국 문화와의 연관성을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서왕모와 동왕공, 뇌공, 풍백 등 신화 속 인물을 비롯해 효자·열녀 이야기, 고대 축구와 양꼬치 요리의 기원을 보여 주는 장면 등 다양한 이야기가 담겼다.

특히 눈여겨볼 작품은 전시 1부에서 최초 공개되는 효당산 석사 화상석 대형 탁본 5점이다. 효당산 석사는 현존하는 가장 이른 시기의 중국 지상 석조 건축물로, 내부 벽면과 대들보에 새겨진 화상석으로 유명하다.

대표 작품으로는 길이 7m가 넘는 행렬 장면을 담은 '대왕차 행렬도(大王車出行圖)'와 공자가 노자를 찾아 예를 묻는 '공자문례도(孔子問禮圖)', 한나라와 북방 유목민 간 전투를 묘사한 '호한전쟁도(胡漢戰爭圖)' 등이 있다. 수렵과 잔치 등 당시 생활상을 보여 주는 장면들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시에서는 다양한 화상석 탁본과 함께 화상석 선각화 기법의 영향을 받은 불교 사원 선각화를 선보인다. 용문석굴 광배 탁본과 대주 석굴 불교전법도, 소림사 선각 권법도 등이 전시된다. 전시는 6월 28일까지 이어지며, 1박 2일 템플스테이 프로그램과 연계해 화상석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한 관장은 "화상석은 목판화와 마찬가지로 독특한 디자인의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며 "이번 전시가 화상석 탁본이 동양 문화의 중요한 콘텐츠로 활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033-761-7885

운문사가 품은 성보유산들

청도 운문사 '법고창신' 특별전
'아미타설법도' '극락구품도' 등
3월 11일 개막, 12월 31일까지


운문사 만세루 단청을 설명하는 역사문화관 부관장 동우 스님.

청도 운문사(주지 은광 스님)가 사찰의 천년 역사와 전통을 담은 성보를 선보이는 특별전을 열었다.

운문사는 3월 11일 경내 역사문화관에서 '법고창신(法古創新, 나날이 새로운 옛 것)'을 주제로 특별전 개막식을 개최했다. 12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전시에서는 운문사가 보관해 온 유물과 모사·복원 작품들이 일반에 처음 공개된다.

19세기 불화인 '운문사 염불당 아미타설법도'(1861)와 '운문사 아미타극락구품도'(1883)를 비롯해 목조 불패와 불연, 만세루 단청 등이 전시됐다. 또 비로전 후불벽 뒷면에 그려진 관음보살·달마대사 벽화 모사도, 비로전 반야용선대(용가) 복원 작품 등도 선보인다.

1861년에 제작된 '아미타설법도'는 연화대좌 위에 결가부좌한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협시보살인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 그리고 지장보살과 미륵보살이 등장하는 구성을 갖춘 작품이다.

또 다른 대표작인 '아미타극락구품도'는 1883년 금운 긍률을 수화승으로 대흥·천규·경운 등이 참여해 조성한 불화다.

이번 전시에서는 운문사 대웅보전 후불벽 뒤편에 그려진 관음보살과 달마대사를 모사한 벽화도 공개됐다. 험준한 바위산을 배경으로 관음보살과 달마대사를 한 화면에 배치한 작품으로, 두 도상이 나란히 표현된 드문 사례로 평가된다.

운문사 역사문화관 부관장 동우 스님은 "이번 전시는 운문사가 걸어온 천년 역사를 실제 유물과 모사·복원 작품을 함께 소개하는 자리"라며 "근대 비구니 도량으로 자리 잡은 운문사가 천년의 역사를 기억하는 의미에서 준비했다"고 밝혔다.

청도 운문사=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나의 선행은 어떻게 열매 맺을까?

㉞ 삼처회향(三處回向)

三 處 回 向

우주의 맑은 기운이 깨어나고 별빛이 초롱초롱한 새벽, 부처님 전에 예불을 올리며 발원한다.

"앙고 시방삼세 제망중중 무진삼보자존…상래수불공덕 회향삼처실원만." "우러러 고하옵나니 시방 삼세에 두루 계시는 자비로운 삼보님이시여, 저희가 닦은 부처님 법 수행 공덕을 삼처에 회향하오니 원만한 결실을 맺게 하소서."

회향(回向)은 자신의 선행을 이웃과 세상에 돌리는 일이다. 삼처회향은 그 회향이 세 방향으로 펼쳐짐을 뜻한다. 나의 행위가 이웃에게 향하고(중생회향), 그로 인해 그들이 지혜를 깨닫게 하며(보리회향), 마침내 고요·청정·평온·기쁨의 삶에 이르게 하는 것(실제회향)이다.

나의 지인은 회사 동료들과 자존감이 약한 청년들을 돌보고 있다. 청년들과 정기적으로 식사하고 책을 읽고 토론하며 함께 여행도 한다. 그들은 매년 그동안의 배움을 글로 정리해 대중 앞에서 발표한다. 이 과정을 통해 청년(중생)들은 내적으로 성장하고(보리), 자존감을 회복하며 용기 있고 당당한 삶으로(실제) 나아간다. 이 여정이 곧 삼처회향의 모습이다.

〈화엄경〉 '십회향품'은 이를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먼저 중생회향이다. "보살은 마땅히 선근을 회향하여 내가 쌓은 공덕으로 온 법계의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고 모두가 청정해져서 마침내 해탈에 이르게 하리라."

수행이 나에게 머물지 않고 중생에게 향해야 함을 밝힌다.

보리회향은 "모든 선근으로 오직 위없는 보리(깨달음)를 구하고,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모든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라고 설한다. 이는 하나의 선행이 궁극의 진리를 깨닫도록 돕는다는 의미이다.

실제회향은 "모든 법의 본성은 본래 고요하여 나도 없고 내 것도 없으니, 머무름 없는 마음으로 법계와 평등하게 회향한다"라고 한다. 이는 중생이 지혜를 얻어 진리와 하나 된 삶을 살기를 발원하는 경지이다.

〈관무량수경〉에서는 극락정토의 최상위 국토에 왕생하기 위한 조건으로 지극한 정성, 깊은 믿음, 그리고 공덕을 회향하는 발원을 제시한다.

농부가 수확으로 가족의 삶을 꾸리면 그것은 생업이다. 그러나 자신이 기른 곡식이 이웃을 살리고,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된 인연의 이치를 깨달아 사랑과 도움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며 농사를 짓는다면, 그것은 회향이 된다. 교사가 규정에 따라 수업하고 보수를 받는다면 그것은 직업이다. 그러나 배움을 온전히 학생들에게 나누어 그들이 지혜와 사랑을 체득하고 서로 돕는 평화로운 삶을 살기를 발원하며 가르친다면, 그것이 바로 삼처회향이다.

"내가 심은 한 알의 씨앗이/ 나무가 되고 숲이 되어/ 지친 이들의 쉼터가 되게 하시고/ 나의 작은 미소 하나가/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세상의 평화와 행복으로 피어나게 하소서." —이해인 수녀의 '나를 키우는 사랑' 중

〈화순 불암사 주지〉

업사이클링, 예술이 되다

무우수갤러리 기획초대전
정현철 작가 '쓸모의 증명'
3월 18일부터 30일까지


정현철 작가의 작품 '모두가 아는 위기(35×48×51cm, 택배상자, 한지, 접착제, 2025)'.

'업사이클링(Up-cycling)'은 생활 속에서 버려지거나 쓸모없어진 것을 수선해 재사용하는 리사이클링(Recycling)의 상위 개념으로, 버려진 제품에 새로운 가치를 더해 전혀 다른 제품으로 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업사이클링을 예술의 영역으로 확장시킨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서울 인사동 무우수갤러리는 3월 18일부터 3월 30일까지 업사이클링 작가 정현철 개인전 '쓸모의 증명'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버려진 택배 상자를 주요 재료로 삼아, 현대 사회가 규정하는 '쓸모'의 기준과 인간 존재의 가치를 질문하는 기획초대전이다.

정 작가는 건국대 산업디자인과를 졸업한 뒤 금강기획과 제일기획 제작본부에서 근무하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활동했다. 이후 업사이클링 아티스트로 전향해 조형 작업을 이어 오고 있다.

전시에 소개되는 작품들은 기후위기와 환경 문제, 기억과 감정,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사유를 주제로 한다. 정 작가는 "관람객이 작품을 통해 사회가 정해 놓은 쓸모의 기준에서 잠시 벗어나, 스스로의 가치와 존재의 의미를 돌아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3/18~3/24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인도불교사상	폴 윌리엄스 외	씨아이알
2	정토삼부경	한보광 역	민족사
3	대방광불화엄경 강설-1	여천무비	담앤북스
4	밀린다왕문경	김현준	효림
5	출가란 무엇인가	사사키 시즈카	민족사
6	고광 스님의 불교 도장 깨기	고광	불광출판사
7	통찰의 체험(대원불교학술총서30)	조셉 골드스타인	운주사
8	승만경을 읽는 즐거움	일진스님	민족사
9	요가 근본 경전	이태영	여래
10	불상의 기원을 찾아서	최종걸	다우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뜻대로 안돼도 괜찮아	한상희/용정운 그림	운주사
2	요가디피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3	부처님의 마지막 발자취	각묵스님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4	업이란 무엇인가	히라오카 사토시	운주사
5	법정스님 결따라 사랑을 잇다	변택주	큰나무
6	진짜 나를 찾아라	법정	샘터사
7	요가니드라 워크북	곽미자 지음	한국요가출판사
8	스스로 행복하라	법정	샘터사
9	꽃한테 들어라	법정	지식을만드는지식
10	네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	각묵옮김	초기불전연구원

"충신을 넘어 자유인으로"



영원한 청년 김시습

소종섭 지음

한걸음 더 / 1만7000원

수행자·여행가·문학가 면모 조명

출생에서 입적까지 연대기적 구성

답사로 사찰·초상화·시비 등 기록



설잠 스님의 사리와 사리기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반출됐다 2017년 부여 무량사로 환지본처했다. 무량사는 2020년 설잠 스님의 사리를 모신 부도탑을 조성했다. 사진 제공=한걸음 더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매월당 김시습(1435~1493)은 흔히 단종을 향한 충절의 상징으로 기억된다. 세조의 왕위 찬탈을 비판하고 평생 벼슬길을 멀리한 절의의 선비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그러나 〈영원한 청년 김시습〉은 이러한 통념을 넘어 김시습을 보다 넓은 시야에서 조명한다. 수행자 설잠 스님이자 문학가, 사상가 그리고 길 위의 여행가로 살았던 그의 다채로운 생애를 통해 '영원한 청년'이라는 새로운 얼굴을 드러낸다.

책은 김시습의 삶을 출생에서 입적까지 연대기적으로 따라간다. 세 살에 시를 짓고 다섯 살에 사서삼경을 읽었다는 기록에서 알 수 있듯 그는 어려서부터 천재로 이름을 떨쳤다. 세종대왕이 특별히 눈여겨보던 영재였으나, 시대의 격랑은 그의 삶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다. 세종과 어머니, 외할머니를 잇달아 잃은 데 이어 계유정난으로 왕위가 뒤바뀌자 그의 삶 역시 큰 전환점을 맞는다.

북한산 중흥사에서 공부하던 김시습은 세조의 왕위 찬탈 소식을 듣고 가지고 있던 책을 모두 불살랐다고 전한다. 사흘 동안 칩거한 끝에 내린 결론은 '탕유(宕遊)', 곧 천하를 떠돌며 세상을 직접 보고 느끼겠다는 결심이었다. 이후 그의 삶은 길 위에서 펼쳐졌다. 평양과 금강산을 비롯해 전국 곳곳을 유람하며 자연과 민중의 삶을 시와 글로 남겼다.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스스로를 비웃으며 자유로운 풍류를 즐긴 그의 모습은 전통적인 유학자의 틀을 넘어선다.

불교와의 인연 역시 그의 삶을 이해하는 중요한 축이다. 그는 법명 '설잠'으로 출가해 수행자의 길을 걸었으며, 마지막에는 부여 무량사에서 입적했다. 책은 수행자이자 사상가, 철학가, 문학가로서의 면모를 두루 조명하며 김시습을 하나의 틀로 규정하기 어려운 '르네상스적 인간'으로 그린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그의 흔적을 현장 답사를 통해 정리한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부여 무량사의 부도탑을 비롯해 위패를 모신 사당 13곳, 시를 새긴 시비 11곳, 초상화 6곳의 위치와 현재 모습을 사진과 함께 소개한다.

저자는 김시습을 '충신'을 넘어 권력과 시대의 폭력 속에서도 자신의 자유와 사유를 지키려 했던 인간으로 읽어 낸다. '영원한 청년'은 상처 입고 방황하면서도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 삶,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유와 문학을 꽃피운 그의 생애를 기리는 헌사다.

저자는 시사저널, 아시아경제 편집국장을 지낸 언론인으로 현재 유튜브 채널 '소종섭의 시사쇼'를 진행하고 있다. 2011년 사단법인 매월당김시습기념사업회를 창립해 회장을 맡고 있으며, 지금까지 60여 차례 '김시습 답사'를 진행했다.

도시 살릴 해법은 '식물의 지혜'



식물성 도시 피토폴리스

스테파노 만쿠소 지음

김현주 옮김

김영사 / 1만8000원

'동물'처럼 설계된 도시의 폐해

회색 콘크리트 덮는 초록 혁명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뒤덮인 도시. 최첨단 과학기술이 집적된 공간이지만 폭염과 홍수, 전염병 앞에선 속수무책이다. 세계적인 식물신경생물학자인 스테파노 만쿠소 교수(이탈리아 피렌체대학교)는 신간 〈식물성 도시, 피토폴리스〉에서 오늘날 도시가 위기에 처한 근본적인 원인은 도시를 '동물'처럼 설계해 왔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저자에 따르면 인류는 오랫동안 자신의 신체 구조를 본떠 도시를 만들어 왔다. 뇌에 해당하는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심장(산업)과 폐(주거)가 분리된 채 혈관(도로)을 통해 자원이 이동하는 구조다. 이러한 '동물성 도시'는 경제·문화·산업 분야에서 높은 효율을 만들어 냈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약점을 지닌다. 특정 지능이 마비되면 전체 시스템이 쉽게 흔들리고, 막대한 자원을 소비하며 폐기물을 끝없이 배출하는 '선형적 대사 구조'를 지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저자가 제시하는 해법은 '식물성 도시(Phytopolis)'다. 각각의 기능을 온몸에 분산시킨 식물의 '모듈형 구조'를 도시공학에 접목한다면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인간 중심의 욕망으로 자연을 지배하려 했던 문명은 결국 스스로의 기반을 흔들어 왔다. 저자가 제안하는 '식물성 도시'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한 성찰을 요구한다. 여수령 기자

변하고 싶다면 마음을 보라



셀프헬프

가브리엘 번스타인 지음

이재석 옮김

불광출판사 / 2만원

내면가족체계(IFS)가 말하는 마음 구조

내면 돌보는 '4단계 코어 리셋' 제시

"나는 왜 늘 제자리걸음일까." 많은 이들이 반복되는 결심과 좌절 속에서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새해가 되면 목표를 세우고 삶을 바꿔 보겠다고 다짐하지만,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험 역시 낯설지 않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 작가 가브리엘 번스타인의 책 〈셀프 헬프〉는 이러한 물음에서 출발한다. 왜 우리는 그렇게 노력해도 삶이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일까.

이 책은 최근 심리학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심리치료 이론인 '내면가족체계(Internal Family Systems, IFS)'를 바탕으로 한다. IFS는 인간의 마음을 하나의 단일한 존재가 아니라 여러 '부분(Parts)'으로 이루어진 체계로 이해하는 접근이다. 분노하거나 불안해하는 마음, 자신을 비난하는 목소리,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태도 등은 모두 우리 안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부분'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이들 내면의 목소리를 억누르거나 부정하기보다 이해하고 통합하는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말한다.

책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하다.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바깥이 아니라 안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변화를 위해 직장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 그러나 이런 외적 변화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오기 쉽다. 삶의 중심축인 내면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를 '코어 리셋'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운동을 할 때 몸의 중심 근육인 코어를 단련해야 전체적인 힘이 생기듯, 삶에서도 내면의 중심이 바뀌어야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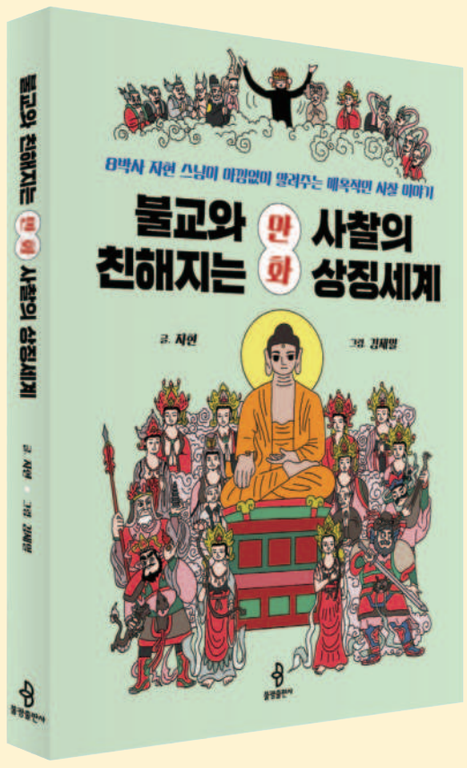
〈셀프 헬프〉가 기존 자기계발서와 다른 점은 의지력이나 긍정적 사고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저자는 우리가 실패를 반복하는 이유를 '의지가 약해서'라고 단순히 설명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 내면의 여러 부분이 서로 충돌하며 균형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예컨대 "넌 절대 못 할 거야"라고 속삭이는 내면의 비판적 목소리도 사실은 우리를 보호하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적으로 돌리기보다 그 존재 이유를 이해하고 돌보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저자가 제시하는 방법은 '4단계 내면 점검 과정'이다. 첫 번째는 자신의 상태를 알아차리고 내면을 들여다보겠다고 선택하는 단계다. 두 번째는 호기심을 가지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관찰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연민의 태도로 상처받은 마음과 연결하는 과정이며, 마지막 단계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본래의 영적 중심인 '참나(Self)'와 만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평온함과 명료함을 유지하는 힘이 자라난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마법이 아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이 쌓여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셀프 헬프〉는 바로 그 여정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바깥의 조건을 바꾸기 전에 내면을 들여다보라는 이 책의 조언은 오늘날 자기계발 담론 속에서 다시 한번 '마음'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여수령 기자

불교와 친해지는 특급 마법이 시작된다!

불교계 전방위 지식인 자현 스님이 아낌없이 알려주는 매혹적인 사찰 이야기!



자현 글 | 김재일 그림 | 304쪽 | 22,000원

문체부 선정 우수교양도서 『사찰의 상징세계 上·下』

그 화제의 베스트셀러가 만화로 다시 태어났다!

청소년도 재미있게 읽고, 성인도 새롭게 배우는 가장 쉬운 불교 인문학!

복잡한 설명은 줄이고 이야기와 재미는 더해 단지 즐겁게

만화를 보는 것만으로도 불교의 지혜와 세계관이 저절로 이해된다.



불교와 만화 사찰의 친해지는 상징세계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자현 지음

320쪽 | 25,000원(상권)

312쪽 | 25,000원(하권)

부처의 통찰, 마음의 기술이 되다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보니
토니 페르난도 지음
강정선 옮김
월마 / 1만8900원

정신과 의사가 건네는 '마음 치유법'
출가 경험 바탕 현대의학 접목
상담 사례 통해 일상 실천법 제시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현대인의 마음은 늘 분주하다. 끝없는 경쟁에 불안은 파도처럼 밀려오고, 예기치 못한 인생의 장애물에 부딪혀 고꾸라지기도 한다.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20년간 환자들을 돌봐 온 정신과 전문의 토니 페르난도 역시 이 지점에서 깊은 고뇌에 빠졌다. 첨단 의학만으로는 치유되지 않는 마음의 근원적 고통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보니〉는 그가 자신의 삶과 진료 현장에서 도움을 받은 부처님의 '마음 치유법'을 담은 책이다. 미얀마 등에서 네 차례 임시 출가해 수행하며 체득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리했다.

책은 불교의 핵심 개념을 현대 정신건강의학의 언어로 번역해 낸다. 부처님이 설파한 고통의 실체인 '두카'는 현대인의 '스트레스'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증폭되는 번뇌의 소용돌이인 '파판차'는 '생각 과잉'으로 해석한다. 저자는 우리가 겪는 고통이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그것을 '움켜쥐려는' 집착과 마음의 작동 방식에서 비롯됨을 임상 사례와 수행 경험을 통해 조목조목 짚어 준다.

쾌락과 생각에 집착해 더 많은 고통과 스트레스에 시달릴 것인가, 아니면 마음을 훈련해 더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상태에 이를 것인가? 저자는 두 번째 길로 안내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음의 4단계로 소개한다.

①우리는 건강·재산·인간관계·직업·주변 환경과 관계없이 누구나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②우리의 정신은 원래부터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작용하므로, 이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마음이 어떻게 스트레스를 만들어 내는지 그 방식을 이해하고 경험해야 한다. ③우리는 공동체를 이루며 살기 때문에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 ④평화와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관대한 태도와 마음챙김, 정직하고 소박하며 진실하게 살며 친절과 연민으로 행동해야 한다.

어쩌면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저자는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의 이야기를 통해 이 4단계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들려준다. 어린 시절 오빠의 놀림을 평생의 상처로 간직하고 있는 환자의 사례를 제시하며, 부처님이 설한 '친절한 말'의 기준을 살펴보고 이를 자신의 말 습관에 접목하도록 하는 식이다.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대목은 '마이 네(Mai nae, 무상)'의 지혜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아잔 차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통제할 수 없는 수만 가지 변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역설한다. 또한 틱낫한 스님의 '설거지 명상'을 언급하며, 마음챙김이란 거창한 수행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감촉과 움직임을 온전히 알아차리는 일상 그 자체임을 강조한다.

무엇보다 이 책이 갖는 의미는 불교를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제시한다는 데 있다. 저자는 부처의 깨달음을 신비적 계시가 아닌 경험적 관찰의 결과로 이해한다. 고통을 진단하고, 원인을 밝히고,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과정은 오늘날 의학적 접근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오늘날 마음챙김과 명상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이를 잠깐의 위로나 단편적 기법으로 여기는 이들이 많다. 이 책은 그러한 한계를 넘어, 왜 마음이 흔들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석 스님 시집 프랑스어판 출간…파리서 기념 공연

3월 26일 프랑스 한국문화원서
시·미술·춤 어우러진 예술 무대
관객과의 대화·사인회 등도 개최



주석 스님(명경문화재단·쿠무다 명상센터 이사장)의 시집 〈그대가 오늘의 중심입니다〉(담앤북스, 2024)가 프랑스어판으로 출간돼 파리에서 출판기념 공연이 열린다.

프랑스어판 〈그대가 오늘의 중심입니다(Vous êtes le centre de ce jour)·사진〉 출간 기념 공연은 3월 26일 오후 7시 프랑스 한국문화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스님의 작품을 현지 관객들과 나누고, 한국와 프랑스 예술인들의 교류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연은 시와 미술, 춤이 어우러지는 복합 예술 무대로 꾸며진다. 행사에서는 주석 스님의 그림 작품 전시와 드로잉 퍼포먼스가 진행되며, 안무가 남영호가 참여하는 현대무용 공연도 펼쳐질 예정이다. 또 관객과의 대화, 사인회와 리셉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한국 문학과 예술을 현지에 소개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번 행사는 한·불 수교 140주년 기념사업으로 선정된 프로젝트 'Korean French Art Connections(KFAC)'가 주관한다.

시집에는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며 타인의 세계를 존중할 때 자신의 세계 또한 깊어진다는 메시지가 담겼다. 일상의 중심에 서 있는 존재로서의 '나'를 일깨우는 따뜻한 시편들이 독자들에게 위로와 사유의 시간을 건넨다.

번역은 파리에서 20년간 거주한 시인 문영훈이 맡았으며, 파리의 라신느(Racine)출판사가 출간했다.

여수령 기자



3월 26일 프랑스 파리 한국문화원에서 열리는 출판기념 공연 포스터. **사진 제공=담앤북스**

"명상은 자신을 피하지 않는 용기"



미국 스님 한국 표류기
현안 스님 지음
모과나무
2만원

미국서 사업하다 위앙종 출가
한국서 도량 열고 선명상 지도
현대인 고민, 수행으로 답 제시

명상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기술일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수행일까. 미국에서 출가해 한국에서 선명상을 전하고 있는 현안 스님이 자신의 삶과 수행 경험을 풀어낸 〈미국 스님 한국 표류기〉는 한 수행자의 개인적 기록이자 현대인들에게 건네는 명상 안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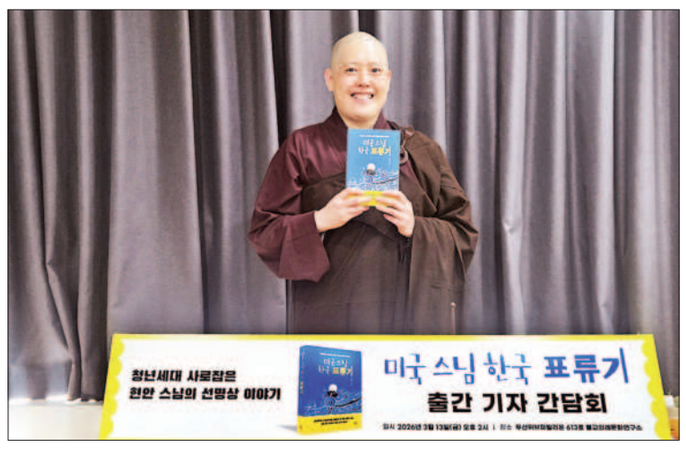
현안 스님의 삶의 궤적은 흔한 출가담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한국에서 제약회사에 다니다 27살에 훌쩍 미국으로 떠났고, 월급을 모아 둔 2000만원으로 화장품 사업에 뛰어들었다. 3년 만에 매출이 15배나 오르면서, 대저택에 살며 스포츠카를 모는 삶이 펼쳐졌다. 하지만 사업이 번창할수록 불면과 번뇌는 깊었다. 그때 우연히 선명상을 접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근교 노산사에서 베트남계 미국인 영화 스님을 만난 것은 그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 영화 스님은 중국 선종 5가 중 하나인 위앙종의 법맥을 이은 수행자다. 사람들의 고민을 듣고 수행으로 답을 제시하는 스승의 모습에 깊이 매료된 그는 결국 2019년 사업을 정리하고 위앙종으로 출가했다.

출가 후 몇 달 만에 스승의 권유로 한국의 위앙종 사찰을 맡기 위해 돌아왔다. 지난 6년간 청주 보산사, 분당 보라선원, 서울 보화선원을 차례로 열고 선명상을 지도하고 있다. 책에는 출가를 결심하기까지의 고민, 충분한 준비 없이 한국에서 도량을 열며 겪은 시행착오, '사이비'라는 의심을 받은 일 등 좌충우돌 경험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책 제목인 '표류기'인 이유다.

한국의 위앙종 도량을 '명상 맛집'으로 입소문을 타게 한 스님이지만, 명상을 '힐링'이나 '위로'의 도구로 소비하는 흐름은 경계했다. 명상은 기분을 좋게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자신을 피하지 않는 용기라는 것이다. 수행은 편안함을 추구하는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함을 통과하며 마음의 힘을 기르는 과정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청년 포교에 주력하는 스님은 선명상의 핵심이 '실질적 변화'라고 했다. 찾아오는 젊은이들에게 왜 왔는지, 무엇을 얻고 싶은지 물어본 후 '맞춤형 수행법'을 지도한다. 불교가 현실적인 문제에 도움을 주고, 괴로움을 줄이는 해법을 제시한다고 느껴야 수행도 이어 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현안 스님이 3월 13일 서울 종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책 출간 배경과 수행 여정, 한국에서의 선명상 지도 등을 설명하고 있다.

스님은 "수행을 통해 괴로움에서 벗어나 삶 전체가 변화하는 사람들을 지켜보며, 더 많은 이들에게 이 법을 알리고 싶었다"며 "이 책을 통해 누군가 '나도 한 번 해 볼까'라는 마음을 일으킨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현안 스님은 출간을 기념해 3월 28일 오후 3시 서울 갤러리 스페이스 슈퍼노말에서 북토크를, 29일 오후 3시 불교전문서점 향전에서 사인회를 개최한다.

여수령 기자



"이기심을 버리라는 말은 틀렸다"
문제는 욕망이 아니다

욕망을 없애지 말고, 깨어 있으라

라오스 숲속 사찰에서 수행 중인 쿠바 탐디 스님은
자신을 "이기심을 안고 사는 수행자"라고 고백한다.
이 책은 욕망을 억누르라는 대신,
통찰하라고 말하는 인문 수행서다.

나는 이기적 스님이다
쿠바 탐디 | 400쪽 | 23,000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25년간 청년들을 만나며 그들의 오늘의 삶을 고민해 왔다. 자유를 찾아 욕망이 지배하는 도시를 떠나 라오스 푸딘댕청소년센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냈고 출가한 수행자이지만 여전히 갈애와 집착, 어리석음을 안고 사는 한 인간이다. 홀로 서는 자유를 꿈꾸며 출가했으나 인간은 끝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배웠다. 삶의 진실은 세상에서 벗어난 곳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현실의 한복판에 있었다. 완성된 스님이 아니라, 길 위에 선 초보 수행자로서 수행의 길을 걷는 중이다.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진심 어린 참회, 나를 정화하다

반야 참회로 여는 수행의 첫걸음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⑥ 참회 대상과 방법

책임 회피나 도박, 신업 중 투도에 해당

미성년자 및 배우자 외의 성행위는 사음

구업은 말·글·동영상 등으로 짓는 악업

거짓말, 꾸밈말, 이간질, 욕설 등 포함돼

부처님 앞서 참회 대상에 진실로 뉘우치고

절 한 번에 "참회합니다" 5~7회 반복해야

• **투도(偸盜 : 도둑질)** - 투도는 보통 남의 것을 훔치는 행위라고 해석되는데, 그 본래의 의미는 불여취(不與取)라고 해서 정당하게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 것을 내가 갖는 행위를 말한다. 즉 남의 것을 훔치는 행위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행위도 투도에 해당한다.

◎불법(不法), 위법(違法)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을 챙기거나, 교통신호 위반, 새치기 등 사회질서를 어기는 행위.

◎업무상 지원되는 판공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직위를 이용해 뇌물을 받는 행위.

◎업무 시간 중 놀러 다니는 종업원처럼 보수를 받으면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행위.

◎빌린 돈이나 외상값을 갚지 않거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 행위.

◎부부가 같이 노력해서 번 재산을 자기 명의로 돼 있다고 해서 자기가 독점하거나 마음대로 처분하는 행위.

◎친목 도모나 레저의 차원을 넘어선 화투, 포커, 도박, 게임 등의 사행성(射倖性) 오락에 심취하는 행위.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길에 떨어진 돈이나 물건을 주워서 주인을 찾아 주지 않고 자신이 갖는 행위.

◎하는 일 없이 다른 사람에게 신세를 지며 무위도식(無爲徒食)하는 행위.

• **사음(邪婬: 삿된 음행)** - 사음이란 옳지 못한 성(性)행위로, 출가자는 일체의 성행위가 사음에 해당되며, 재가자는 배우자 외의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간음(姦婬)이라 하기도 한다. 정식으로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사회 통념상 비윤리적 관계로 볼 수 없는 파트너는 배우자에 포함된다.

배우자가 있는 이성과의 성행위, 부모의 보호를 받고 있는 미성년자와의 성행위,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인 성행위 등이 사음에 해당된다.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공공장소에서의 과도한 애정 표현은 사음이라 할 수 있다.

구업(口業) : 구업은 말을 해서 짓는 악업인데, 말로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글이나 그림, 동영상 등도 포함되며, 게시물이나 언론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도 해당된다. 오계의 망어는 광의의 망어로서 〈천수경〉의 망어, 기어, 양설, 악구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 반야 참회에서는 〈천수경〉에 따라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 **망어(妄語 : 거짓말)** - 망어는 거짓말이 대표적이며 그 외 쓸데없는 말도 포함된다. 거짓말이란 있는 것을 없다고 하고, 없는 것을 있다고 하는 등으로 남을 속이는 것이다. 자기를 믿고 이야기한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함부로 발설하거나 과도한 수다 등은 쓸데없는 말에 해당된다.

• **기어(綺語 : 꾸밈말)** - 교묘한 말로 남을 속이거나 유혹하는 것을 말하며, 심하게 아첨하는 말도 기어라고 할 수 있다.

• **양설(兩舌 : 이간질)** - 두 사람을 갈라놓기 위해 서로에게 각기 다른 내용을 말하여 서로 반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사이가 나쁜 두 사람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각각에게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은 악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악구(惡口 : 욕설)** - 악구는 욕설, 음담패설, 남을 모함하는 험담, 시기·질투하는 말, 저주하는 말(악담) 등을 말한다.

이상이 광의의 망어에 해당하는 구업 네 가지인데, 종류가 많은 것은 그만큼 말로 짓는 악업이 많다는 것이다. 그런데 외형적으로 표가 나는 신업은 악업이라고 인정을 하지만, 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 삼지 않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구업 역시 과보를 초래하는 악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 **음주(飮酒 : 술 마심)** -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술을 마시는 행위를 뜻하지만, 본래의 의미는 정신을 흐리게 하는 물질을 섭취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술뿐만 아니라 담배를 피우는 것도 해당되며, 마약이나 환각제의 복용 등도 해당된다.

음주는 신업에 속한다고 봐야 하지만, 오계의 순서를 따르다 보니 구업 다음에 넣게 됐다.

지금까지 신업과 구업에 대해 설명했다. 그런데 여기서 언급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는, 위에서 보다시피 불교에서 말하는 악업이 일반 사회에서 말하는 범죄나 악행과는 상당히 다른 개념이라는 것이다. 즉, 불교의 악업에는 사회적 범죄나 악행이 당연히 포함될 뿐 아니라 사회법에는 저촉되지 않는 비윤리적이거나 비양심적인 행동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바른 이해가 선행돼야 참회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

참회 방법

이제부터 설명하는 참회 방법은 반야 참회의 모든 참회 대상 항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별도의 설명이 없는 경우는 이 방법을 따르면 된다.

(1) 참회를 시작할 때 살아 계신 부처님께서 내 앞에 계신다고 생각하라고 했다. 이제 앞에 계신 부처님께 있는 그대로 고백한다고 생각하고, 참회 대상에 해당하는 과거의 행위 한 가지를 기억하여 그 당시 자신의 행동을 그대로 마음속에 떠올린다. 그다음 "부처님, 참회합니다. 부처님, 참회합니다…"라고 하면서 절을 하기 시작한다. 이때 진정으로 참회하는 마음가짐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참회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그래서 다음 몇 가지를 보충해서 설명한다.

첫째, 참회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기억에 되살려서 마음속에 분명하게 떠올려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대충 생각하고 말면 안 된다. 또 생각을 했더라도 곧 잊어버리거나 아무 생각 없이 말로만 참회하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참회한다는 말은 반드시 "부처님, 참회합니다"라고만 반복해야 한다. 한 마디라도 빼거나 바꾸거나 다른 내용을 포함시켜도 안 된다. 또 이 말은 적게라도 소리를 내면서 하는 것이 좋으며, 너무 빨리 반복해도 좋지 않다. 절을 한 번 할 때 5~7회 정도가 적당하며, 익숙해지면 횟수를 줄여도 된다.

셋째, 진정으로 참회하는 마음가짐이란 그 행위가 잘못된 것이었음을 진실로 인정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일으켜 깊이 뉘우치는 것을 말한다. 자신의 악업에 대해서 잘못된 일이라고 인정한다고 해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올바른 참회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특히 입문 단계에서는 자신이 지은 무거운 악업을 기억했을 때 부끄러운 마음이 생겨나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는 이런 악업을 행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데, 이 마음이 그대로 발원이 된다.

(2) 다음에 똑같은 악업을 또 지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해도, 참회하는 그 순간에는 진실한 마음으로 참회해야 한다. 어차피 또다시 악업을 지을 것이기 때문에 참회해도 소용없을 것으로 생각해서 건성으로 참회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집 안을 청소하는 것과 같다. 오늘 방 청소를 해도 며칠 있으면 다시 먼지가 앉아 더러워질 것이기 때문에 청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청소를 게을리하면 그 방은 영원히 깨끗해질 날이 오지 않는다. 더러워질 때 더러워지더라도 청소를 할 때만큼은 정성을 다해서 깨끗하게 한다면 단지 며칠 동안이라도 방이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어차피 다음에 악업을 짓게 된다고 하더라도 참회하는 그 순간만큼은 진실하게 참회하면 그만큼 내가 깨끗해지고 마음이 편해진다.



혜룡 스님
서울 반야법회·부산 일심회 지도법사



日호텔 전시품 된 석탑…시민 중심 환수운동 추진

성보유랑 聖寶流浪

③ 이천오층석탑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일본 오쿠라호텔 슈코칸(集古館) 야외에는 이천오층석탑과 평양 율리사지 팔각칠층석탑이 있다. 모두 일제강점기 당시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무단 반출됐다. 특히 이천오층석탑은 신라계 석탑 양식을 그대로 계승한 고려 초기 석탑으로 당시 이천 지역 불교문화의 면면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어떤 연유로 두 석탑들이 본래 자리를 떠나 타향의 호텔 전시물로 전락하게 된 것일까.



2020년 열린 환수염원탑 제막식.

공진회 전시 위해 무단 반출

전시 이후 밀약 통해 일본행

현재 오쿠라호텔 야외에 전시

2003년 지역문화지 문제 제기

이천 출신 재일교포 위치 찾아

시민 중심으로 환수운동 전개

30여 차례 협상, 日호텔 버티기

코로나로 협상 중단 2023년 재개

진우 스님 "환수 지지" 서명도



일본 오쿠라호텔 슈코칸 야외에 전시된 이천오층석탑. 본래 이천향교 옆에 서 있던 것을 일제가 무단 반출해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에서 전시했다. 이후 오쿠라재단의 요청에 의해 양도됐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 때문에…

이천오층석탑은 본래 이천향교 옆에 자리하고 있었지만, 1915년 9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조선총독부가 개최한 '조선물산공진회' 전시를 위해 반출됐다. 앞선 연재에서 밝힌 대로 '조선물산공진회'는 한일합방 이후 5년 동안 조선의 산업 진흥과 문명 개화를 명분으로 식민 지배의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열렸다.

'조선물산공진회' 개최 당시 반출된 석조문화재들은 야외 전시물로 활용됐다. 당시 석탑은 광화문에서 미술관까지 총 6점이 전시됐고 이천오층석탑은 그중 하나였다.

'조선물산공진회' 전시를 위해 이천을 떠난 오층석탑의 수난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초대 조선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의 하수인으로 거대 재벌이 된 오쿠라 기하치로(大倉喜八郞)는 전시를 위해 철거한 경복궁 자선당(세자의 침소)을 일본으로 가져갔고, 반출됐던 이천오층석탑도 조선총독부를 통해 양도받았다.

자선당은 '조선관'이라는 이름으로 탈바꿈됐고, 한반도에서 가져온 석탑과 유물 등으로 오쿠라는 일본 최초 사립 박물관인 오쿠라 슈코칸을 1917년 개관했다. 당시 조선실에서 진열된 미술품이 3692점이나 됐으며, 서적도 1만5000여 권이 있었다.

이천오층석탑의 양도는 슈코칸 개관 이후 이뤄졌다. 1918년 7월 오쿠라 슈코칸 이사 사카다니 요시로(阪谷芳郞)가 당시 조선총독이었던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에게 보낸 서한을 보면 오쿠라가 하세가와를 만나 재건된 자선당에 어울리는 석탑 양도에 대한 구두 약속을 받았고, 총독부 담당 관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그런데 애초 오쿠라 측이 양도받기를 원한 석탑은 이천오층석탑이 아니라 평양 정류장 앞 팔각칠층석탑이었다. 하지만 조선총독부는 평양 정류장 앞 팔각칠층석탑이 세인의 이목이 있어 반출 불가함을 밝히고, 대신 박물관에 있는 이천오층석탑의 이운을 권했다. 이를 받아들인 오쿠라 슈코칸은 1918년 조선총독부 반출 허가를 요청했고 총독부는 다음 날 바로 '허가한다'는 답신을 보냈다. 그렇게 식민 재벌의 탐욕으로 이천오층석탑은 현해탄을 건너 오쿠라 호텔 옆 슈코칸 경내로 이운됐다.

야외 전시물로 전락한 이천오층석탑은 제대로 된 관리를 받지 못하고 방치됐다. 2000년대 이후 한국 학자들의 조사에 따르면 석탑의 훼손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심지어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석탑 4층 모서리가 파손되고 옥개석이 비틀어지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 실제 2023년 일본을 찾아 석탑을 점검한 오금석 석예석재 대표(석공예 명장)는 방일 보고서를 통해 "잦은 이관과 지진으로 석재와 석재 사이의 이음부분이 많이 갈라져 있고, 이를 시멘트로 붙여 놓았다"며 "1, 2층 탑신의 풍화가 심각하고 훼손도 상당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시민들, 잊혀진 역사를 되살리다

잊혀졌던 이천오층석탑이 다시 알려진 것은 일본에서 발간된 재일 교민 월간지 〈아리랑〉 1996년 1월호를 통해서다. 당시 잡지는 경복궁 자선당 유구를 취재하기 위해 슈코칸을 방문했다가 석탑의 존재들을 알게 됐다고 기술했다. 이후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가 이뤄진 것은 이천문화원에서 발간한 문화지 〈설봉문화〉 제30호(2003년 가을호)에 '일제의 문화재 수탈과 이천지역-향교 앞 오층석탑의 이전 경위를 중심으로'를 통해서다. 이후 이천 출신 재일교포 김창진 씨가 2005년 12월 이천문화원을 방문해 석탑환수운동을 제의했고, 2006년 '이천의제21'에서 석탑 환수운동의 공식 제안이 이뤄졌다.

2007~2008년 두 번의 시민토론회가 진행된 이후 2008년 8월 지역 시민단체 24곳이 참여해 이천오층석탑환수위원회(상임위원장 조성원, 이하 환수위)가 공식 창립됐다. 환수위는 이천 시민을 대상으로 한 환수 서명 캠페인을 통해 9개월 동안 시민 10만9000여 명의 서명 동의를 이끌어 냈다. 또한 현지 조사를 비롯해 학교 순회 교육, 전시회, 국제심포지엄, 학생사생대회 등을 정례적으로 진행하며 시민 환수운동의 모범으로 자리매김했다.

코로나 펜데믹에도 환수위는 2020년 1월 환수염원탑을 건립하고 제막식을 가졌으며, 2021년에는 그간의 환수운동을 정리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하는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2023년부터 환수운동 시즌2를 전개했다. 환수위는 그해 9월 20일 결의문을 발표하고 이천오층석탑 환수운동 전개를 대내외에 천명했으며,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해 '환수 지지 입장문'의 서명을 받기도 했다.

진우 스님은 지지 입장문에서 "이천오층석탑은 일제로부터 무단반출됐다는 조선총독부의 명백한 근거 문서가 남아 있는 몇 안되는 국외 소재의 우리 문화유산"이라며 "한국 불교계의 환수 지지 성명이 민감한 정세 속에서 보다 종교적·문화적 측면이 한일 교류에 있어 물꼬를 틀 수 있는 역할이라 생각하기에 대한민국 불교의 최대 종단인 조계종은 환수위가 일본 오쿠라재단에 펼치는 '이천오층석탑' 환수 활동에 지지를 표한다"고 밝혔다.

2009년부터 환수위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한 평택 자비사 주지 보문 스님은 "인구 20만 명 정도의 소도시에서 10만9000여 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20여 년 동안 환수운동을 펼쳐 온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긴 호흡으로 시민 환수운동 전개

환수위는 2010년부터 매년 방일해 오쿠라문화재단과 환수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으로 현재까지 30여 차례 이뤄졌다. 아직 실제적 결실을 맺지 못했지만 환수위는 포기하지 않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환수위는 오쿠라문화재단 측에 "2020년 이천시민들이 조성한 환수염원탑과 이천오층석탑을 교환하자"는 제안을 해 놓은 상황이다.

이우정 환수위 사무처장은 "지난 협상에서 오쿠라문화재단 측이 환수염원탑을 조성한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총무원장 스님 지지 입장문 등도 모두 전달돼 환수운동이 잘 이뤄지고 있음을 재단도 알고 있다"면서 "지난해 재단 측 사무국장이 교체돼 다시 우호 관계를 형성하면서 협상을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제 이천오층석탑 환수운동은 장기전으로 접어들었다. 환수위 역시 이를 위해 미래세대 교육과 운동 홍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 사무처장은 "이천 지역에서만 활용되는 교과서를 제작해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순회 교육을 진행하며 이천오층석탑과 환수운동에 대해 알리고 있다"면서 "매년 학생 사생대회와 지역문화축제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고 있다"고 말했다.

보문 스님은 "문화유산 환수는 30~50년을 보고 긴 호흡으로 가야 하는 사안"이라며 "환수위는 우보천리(牛步千里)의 자세로 시민들과 호응·동참을 이끌어 내며 석탑 환수운동에 매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백색 연분홍 금색

전선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제등행렬용품



S형 건전지 초

LED태양광 솔라
(국산정품)



LED전구 국산인증
(정품)



고추구 12E 인지구 26E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 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본사 · 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2026년 3월 25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생활

1571호 | 14 | 전면광고

무릇 형상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한 것이니
만약 모든 형상이 허망한 것임을
깨닫는다면 진실로 여래를 볼 수 있다.



부처님 말씀 읽기 - 《금강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산사
- 대지 : 200평
- 법당 : 70평 외 전각 2
- 시내 산 밑, 주차 10대
- 매가 : 35억

- 위치 : 경북 대구시 사찰
- 대지 : 240평
- 법당 : 70평, 요사 : 70평
- 시내, 주차 10대 가능
- 매가 : 9억

※5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전국 전통, 사찰, 암자, 땅,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양도, 양수, 전통사찰지정, 신행, 출가,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스님유품정리. 골동품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명당 절터 안내

- 150평(실사용 평수 200평)
- 산 중턱 사계절 마르지 않는 약수물, 도로, 전기 완비
- 250m 앞 청정바다 보시면 감탄
- 가액 : 대출1천 5백 안고 1억 1천 만원
- 통영시 광도면 용호리 528번지

010-8643-5235

포교원 안내

- 경남 밀양시, 5층 중에 2층, 70평
- 삼존불, 인등, 원불, 영가위패인등, 산신인등, 각방 에어컨, 방 4개, 냉장고, 세탁기 등 시설완비 (시설비 1억 7천만원)
- 무료 주차장 약 50대, 병원, 은행, 마트 1분 거리, 사주 하시는 분 강력 추천, 비품대 확실히 잘 해드리겠습니다.
- 보 5백만원, 월 43만원, 시설비 2천 5백만원

010-9424-477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백운봉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2종근생 300평 (현대식 건물 3동)
- 건물 : 대웅전 30평 - 1동 / 소법당 13평-1동 다실 · 공양간 30평 요사채 23평 2층 건물 - 1동 / 종무소 - 8평
- 추천용도 : 사찰 · 사찰음식 · 명상센터 카페 · 다원 기타 최상입지
- 가액 : 12억원(법회가능 · 답사 후 절충)

010-4461-3825

토 지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용암면 계산리 96-2
- 약 1000평부터 5000평까지 분할 매매 가능
- 탁트인 전망, 토목공사 전기 수도 완료 / 가람장소로 적합
- 가액 : 평당 60만원(절충가능)

010-8857-9889

사찰(급)안내

-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5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 편리
- 집기류 전부 다 줌 • 법회 즉시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2366-282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울진군 후포면 만산길 320 청명사
- 가액 : 2억 7천 만원
- 총 토지 면적 : 520평 / 법당 : 19평 요사채A동 : 19평 / 요사채B동 : 17평 삼성각 : 2.5평 / 주지 : 연공스님
- 건물 및 토지 일괄 매매, 즉시 입주 가능 노스님께서 건강 악화로 인해 부득이하게 사찰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010-5275-1373

포교당(급) 안내

- 위치 : 경기 시흥시 정왕동(정왕역 차로5분)
- 주변 : 정왕동아파트 대단지, 대형마트, 대형병원 월곶, 배곧, 아파트 신도시
- 규모 : 4층 전체, 옥상 사용 엘리베이터. (총 : 110평) 사용.
- 법당 : 삼존불, 신중단, 산신단, 약사여래불, 영단 큰방 3개, 사무실, 창고방, 에어컨법당 2개, 각방마다
- 보증금 : 1000, 월세 110(보증금, 월세조정)
- 권리금 일체시설, (법당, 각방, 일체 집기시설) 3500만원 (바로 법회 가능)

※통화 안될때 문자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010-8599-946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 대지 : 1000평, 건물 : 60평(건축6년)
- 대웅전 공양간 요사채 베란다 40평
- 도량에 진신사리 10층석탑, 약사불 포대화상, 12지신, 조경, CCTV완비
- 주차장 500평(하천부지), 저온창고 6평
- 건강 악화 부득이 정리, 모든 집기류 인계
- 가액 : 12억원(절충가능)

010-2857-281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사찰
- 대지 : 120평
- 건물 : 건물외 부속건물 약 30평
- 난방 : 태양열 시설이 되어있음
- 가격 : 1억원 (절충가능)

010-5436-5801

사 찰 안 내

- 위치 : 청통와촌IC에서 7분거리
- 아주 고요하고 조용한 사찰
- 총 평수 453평, 현대식 건물 3동 1층 요사30평, 14평, 산신각 2평 2층 법당28평
- 건물 대지 종교건물
- 가액 : 3억 8000만원

010-5804-5100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서구 시약로 반야암
- 법당 포함 38평
- 가액 : 5000만원

010-9154-6658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시 세검정 (광화문까지 자동차 10분)
- 대지 84평/국유지 50평(사용가) 법당/요사채 76평
-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 (불상, 불화 등)
- 가액 : 9억5천만원

010-6325-5112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서울 불광동 전철역 옆
- 보증금 500만원/월세 40만원
- 법당 30평, 방 2개

스님 이민관계로 시설비 천만원에 법당 에어컨, 냉장고 일체 드리고 갑니다

010-5399-1225

사 찰 안 내

- 위치 : 산청군 생비량면 선운암
- 종교용지 : 약 247평
- 전통기와 법당 : 약25평. 단청, 탱화, 삼존불을 모시고, 상단, 신중단, 영가단으로 구성
- 요사채 : 약 30평, 방 3개, 식당 1, 화장실 2개, 창고 2개 / 약15평
- 사찰 접경 임야 : 약 577평
- 부도탑2, 사찰경내 석조미륵좌상 1개, 탑1개, 돌탑4개, 주차장 포함
- 가액 : 7억 5천만원

010-2351-3013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시 마산 가포동
- 임야 2000평, 주방 2, 요사체 2, 실내화장실 2, 각각 20평씩
- 약사여래좌상, 5층석탑1개
- 시내8분거리 / 노스님 몸이 아픔
- 사찰 아래 아파트 단지 조성중
- 자연석굴 산신당
- 금액 : 1억6천 (가격 절충)

010-4192-0334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내
- 대지 : 108평
- 대웅전, 삼성각, 요사채 몸만 오시면 바로 법회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 1층은 세를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 가액 : 5억6천

010-3868-821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집현면 진주성로
- 시내에서3~5분이내 거리 교통 편리, 경관 좋음
- 대지 598평, 법당30평, 요사채 약20평
- 6억, 조정가능

010-3863-6358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공주시에서 20분
- 총면적 840평 대웅전 21평(목조), 산신각5.5평 요사체 31평(황토벽돌)
- 야외 화장실, 공양간
- 가격 : 6억5천

010-2333-3005

사찰(급)안내

- 위치 : 김해시 지내동 (지내역 5분거리) 활천중학교옆
- 건평 : 대지 270평
- 창건 30년
- 가액 : 4억 9000만원 (융자 3억 가능)

010-3198-1730

스님, 처사님, 행자, 공양주보살 (75세까지 가능) 구함

부산 만덕사

010-3840-4355

궁금하신 내용, 다 풀어 드립니다

심리치유, 사주, 신점, 운세

혜성 보살

010-3674-2533

꼭 읽어봐주세요 손도사성공론 책



책이름 검색해보세요

010-5105-5000

승가 유품정리 안내

스님 일반인 유품정리
사찰 법당 철거 해드립니다
최대한 정성껏 최소의 비용으로 부담없이 해드립니다
주소 : 부산시 동래구 동래로 159번길 58-7 동호(A) 309호

010-5507-7080 이주현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국제결혼 인연맺어 드립니다

010-9260-1672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사찰 및 재단법인 추모공원

대표 및 주지 하실분찾습니다

땅 만평 정도, 관광사찰
납골 현 600기정도

공양주 구합니다

010-2078-9595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바라 · 작법 전승학인 모집

1. 의식 염불, 사물 (49재 · 천도재 · 점안 각행사)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문화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전수장학생 한시적 등록추천)
만득동 447-4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미륵암 '지평대사' (12불 수기) 99% 완치, 말기암 환자 1개월 내 치유

320년간 수기받음 / 교도소, 오지 등 전국방문 가능
즉시 영가 천도 / 불교-무교인 상담환영
집이나 땅 매매 안되는 분 성불 시켜드립니다
공항장애, 간질 등 몸이 안좋으신분 치유해드립니다
지평대사는 법문 대신 설법을 합니다
친견상담비 30분 330만원 / 완치 3000만원부터 시작

010-4804-2309

대원불교미술원(청동 불상 전문업체)

청동 불상, 목 불상 특수 불상 조성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및 사찰에서 필요한
모든 불사 상담 환영합니다(법당이전 및 철거)
사찰법당 무속인 법당 철거하여 모셔다가
정성껏 파불하여 드립니다.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작은넙고개1길 78



대원 임영달 lyd5798@naver.com 010-7171-2636

부동산 모든문제(사찰)를 해결해 드립니다

못파는 부동산(사찰)을 팔아드립니다. (무료상담)
못사는 부동산(사찰)을 사드립니다. (무료상담)
(사찰 : 5천만, 9천만, 2억, 5억, 9억, 12억, 15억, 30억, 75억 매물보유)
정성 부동산문제해결연구원 원장 행정학박사 정 용

정용 원장 약력

부동산평론가 (전국최초), 부동산 중개경력 40년 / 영남대학교 부설 글로벌평생교육원 부동산경영최고위과정 책임교수 / 대구과학대학교 부동산금융학과 겸임교수(역임), 방송인 / 경일대학교 부동산지적학과 겸임교수 (역임), 영남일보객원기자(역임)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광역시 9대 지부장, 대구광역시 7대 시의원

대구 동구 제27140-2021-00097호

정용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010-2512-7777

아주 아주 특별한 사찰부지 안내

천하명당입니다. 500억원 불사 중 중단상태

- 금목서, 동백, 반송, 매실, 연상홍 등 다량식재
- 계곡에는 천년수림, 편백과 소나무 치유의 숲
- 요사채(주거동), 사무동 여러 채 수석 등 있음
- 거제시 둔덕면 시목리377번지 외 23필지 8천명
- 금매 : 대출12억, 개인10억 책임지고해결 몽땅27억

토요일 외 현장상주 안내

010-6574-5044 김실장

사 찰 안 내

- 위치 : 산청군 시천면 지리산 청학동 주위 해발700고지 청학동 15분거리
- 명당자리(풍수지리)/ 공양간(수각) -자연공간으로 계곡물 사용(신선하고 넓음)
- 주위에 계곡 및 실내에서 본 전망 정말 좋음
- 종교용지 427평(임야90평)
- 법당20평, 요사체80평, 거실20평, 황토방7개. 공양간(수각), 요사체 위 법당있음(종교용지)
- 주차 20대가능
- 금액: 상담후 결정



010-5204-0050

30년 신뢰 속 핀 상생 꽃, 새 30년 꿈꾸다

신뇨엔, 한국에 행복을

③ 한국 신뇨엔

신뇨엔(眞如苑)의 글로벌 네트워크 안에서 '한국'은 단순한 지부 이상의 각별한 위상을 지닌다.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1600년 대승불교의 찬란한 전통을 공유하고 있는 '형제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1980년대 후반, 제주도의 작은 가정집에서 시작된 한국 신뇨엔의 역사는 어느덧 30여 년의 성상을 넘겼다. 초창기 낯선 일본 불교라는 시선을 딛고, 오늘날 서울, 부산, 창원, 제주 등 전국 주요 거점에 수행 도량을 세우며 한국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한국 신뇨엔. 그들은 어떻게 한국 사회 깊숙이 스며들어 '행복'의 씨앗을 뿌리고 있을까. 특히 부산불교연합회 가입 등 한국 불교계와의 깊은 연대와 동국대, 동명대 등 대학 지원을 통해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그들의 행보를 심층 취재했다.



부산불교연합회가 진행하는 부산 연등회 제등행렬에 참가한 신뇨엔 신자들의 모습. 한국불교와 함께 하고자 하는 원력이 엿보인다.

1987년 제주의 작은 불씨, 등불이 되다

한국 신뇨엔의 시작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1987년 제주도에 첫 포교원이 개설되었을 때, 신뇨엔은 소수의 신도들이 모여 경전을 읽고 마음을 나누는 작은 신행 모임에 불과했다. 이어 1990년 서울, 1992년 부산에 잇따라 포교의 거점이 마련되었지만, 번듯한 법당 하나 없이 호텔 회의실을 빌려 합동 법회를 열거나 일반 가정집에서 수행을 이어가는 등 열악한 환경이었다.

당시 한국 사회에서 일본계 종교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 신뇨엔은 요란한 거리 포교나 세 과시로 맞서지 않았다. 대신 '감화(感化) 포교'라는 정공법을 택했다. 신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뇨엔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성격을 변화시키고, 가정의 화목을 이루며,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포교 전략이었다.

"저 집 사람은 신뇨엔을 다니더니 표정이 밝아지고 사람이 참 좋아졌다."는 점은 그 어떤 홍보보다 강력했다. 이기적이었던 사람이 이타적으로 변하고, 갈등이 끊이지 않던 가정이 웃음꽃 피는 곳으로 변모하는 실증적 사례들이 쌓이면서, 한국 신뇨엔은 '조용하지만 강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이제 한국 신뇨엔은 한국인 신도들이 주축이 되어 이끌어가는, 한국의 정서와 문화가 깊이 밴 '수행 공동체'로 거듭나고 있다.

부산불교연합회 정식 가입…한국불교 식구로

한국 신뇨엔의 현지화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신뇨엔의 부산정사를 중심으로 한 부산불교연합회 활동이다. 부산은 한국 불교의 수도라 불릴 만큼 불심(佛心)이 깊고 보수적인 지역이다. 이곳에서 일본계 종단이 지역 불교계의 일원으로 인정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신뇨엔 부산정사는 오랜 기간 진정성 있는 활동으로 그 문턱을 넘었다. 꾸준한 지역 봉사와 불교 행사 참여를 통해 신뢰를 쌓은 결과, 2015년경 부산불교연합회에 정식 회원으로 가입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한국의 지역 불교 연합 단체가 일본계 종단을 정식 구성원으로 받아들인 이례적인 사례로, 신뇨엔이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한국 불교계의 '식구'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이후 행보는 거침없었다. 신뇨엔은 연합회 가입을 기념해 발전기금을 쾌척하는가 하면, 부산 연등축제 등 주요 불교 행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지역 불교 활성화에 기여했다. 특히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주요종단 총무원장 스님들을 비롯해 부산불교연합회 회장단 스님들을 일본 도쿄의 신뇨엔 총본산(응현원)으로 공식 초청하여 양국 불교의 우호를 다지는 가교(架橋)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이러한 교류는 양국 불교계가 편견을 허물고 부처님의 법 안에서 하나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을 받는다.

동국대 등과 함께하는 '인재 불사'

한국 신뇨엔의 시선은 현재를 넘어 미래로 향해 있다. 그 중심에는 '청년 지원'을 통한 인재 양성 프로젝트가 있다. 신뇨엔은 지난 2019년, 조계종 종립대학인 동국대학교와 특별한 약속을 맺었다. 2028년까지 10년간 매년 발전기금을 전달하여 한국 불교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들을 지원하겠다는 장기 프로젝트다. 실제로 신뇨엔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교류가 어려웠던 시기에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 약속을 지켰다. 매년 전달되는 장학금은 동국대 불교대학 및 일반대학원 학생들에게 전달되어, 그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부산 지역 대학에 대한 지원도 활발하다. 신뇨엔은 2017년부터 부산 동명대와 동아대를 비롯한 지역 대학에 꾸준한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2021년에는 동명대 재학생들의 '해외 불교문화 탐방'을 위해 1,000만 원의 장학금을 쾌척하기도 했다.

일본에서 탄생한 종단이 한국의 대학들에 장기적인 호흡으로 장학금을 후원하는 것은, 신뇨엔이 한국 사회를 경쟁 상대가 아닌 함께 성장해야 할 진정한 '도반(道伴)'으로 여기고 있음을 증명한다.

교수불자연합회와 동행…불교 지평을 넓히다

신뇨엔의 지원은 단순한 장학금을 넘어 불교 학술 연구 분야로도 확장되고 있다. 신뇨엔은 한국 지성 불교의 산실인 교수불자연합회와 꾸준히 교류하며 국제 학술대회 개최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신뇨엔의 독창적인 수행법인 '제등호마(齊燈護摩)'나 '접심(接心)' 등을 현대 불교학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학술 연구를 지원함으로써, 밀교가 가진 신비주의적 이미지를 벗고 현대 사회에 적용 가능한 실천 불교로서의 가치를 조명하는 데 기여했다.

이 밖에 지역 밀착형 나눔행사로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부산정사를 중심으로 '불우이웃 돕기'를 매년 진행해오고 있다. 부산정사는 매년 부처님오신날과 연말연시, 그리고 명절 때마다 관할 구청인 연제구청 등에 어린이돌봄, 독거어르신, 무지개이웃 사랑 등등으로 '생활안정자금'을 기탁,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모두가 어려웠던 시기에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어온 약속이다.

특히 사단법인 일일시호일이 진행하는 전국이중언어말하기대회를 후원, 2025년부터는 대한불교청년회가 진행하는 만해백일장을 후원하는 등 국적을 넘어선 자비나눔 행보도 이어오고 있다. 신뇨엔의 한국불교계에 대한 후원은 그 꾸준함에서 진정성이 드러난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 신뇨엔의 정경 국원은 이러한 나눔 활동에 대해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있다. "봉사는 남을 돕는 시혜적인 활동이 아니다. 이는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자비심을 키우는 '수행의 완성'"이라고 강조한다.

이 밖에도 서울정사와 제주포교소 역시 지역 환경 정화 활동, 자선 바자회 개최, 지역 어르신 돌봄 봉사 등을 통해 지역민들과 호흡하고 있다. 신뇨엔 신도들에게 봉사는 법당 안의 기도가 법당 밖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일상이다.

새 30년, '상생(相生) 공헌(貢獻)' 시대 열다

2026년 창종 90주년을 맞은 신뇨엔은 이제 한국에서의 지난 30년을 발판 삼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그 키워드는 바로 '상생과 공헌'이다.

정경 국원은 "지난 30년이 한국 땅에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키우는 인고의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30년은 그 뿌리를 바탕으로 한국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국 신뇨엔은 청년 포교와 문화예술 후원 등 미래 세대를 위한 행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물처럼 유연하게 한국 사회의 구석구석으로 스며들고, 불처럼 뜨거운 자비심으로 얼어붙은 이웃의 마음을 데우는 한국 신뇨엔. 그들이 전하는 '행복'의 메시지는 각자도생의 삭막해져 가는 우리 사회에 맑고 향기로운 울림을 주고 있다. 지난 30년의 신뢰를 자양분 삼아, 한국 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피워올릴 '상생의 꽃'. 한국 신뇨엔이 써 내려갈 다음 페이지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노덕현 기자**



2025년 6월 열린 한국교수불자대회를 후원한 신뇨엔.



사)일일시호일의 전국이중언어말하기대회 후원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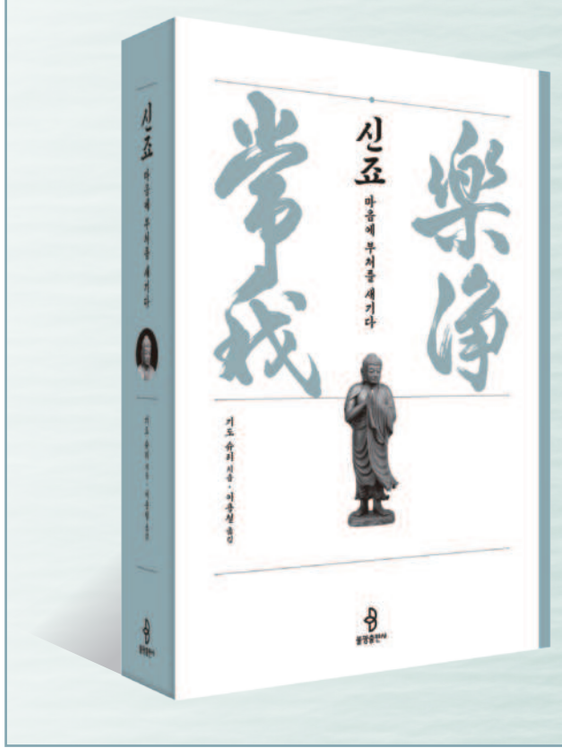
2025년 4월 산불 피해성금을 아름다운동행에 전달했다.



2025년 1월 부산 연제구청에 설맞이성금을 전달했다.



동국대와 2019년 10년간 발전기금 전달 약정 모습.



불살생 계율은 마지막 윤리적 제동 장치

붓다, AI 윤리에 답하다

⑥ AI 알고리즘 전쟁

"양심에 따라 이 요구에 응할 수 없습니다."

2026년 2월 26일, 미국의 인공지능 기업 앤트로픽(Anthropic)의 CEO 다리오 아모데이는 펜타곤의 요구를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미국방부는 앤트로픽의 대형 언어모델 '클로드(Claude)'를 군 기밀 네트워크에 제한 없이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모데이는 공개 성명을 통해 "우리는 양심에 따라 이 요구에 응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가 제시한 이유는 분명했다. 첫째, 현재의 AI 모델은 완전 자율형 무기 체계에 투입될 만큼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는 점이다. 둘째, 인공지능을 활용한 미국 시민에 대한 대규모 감시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펜타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국방부 대변인 숀 파넬은 "군사 결정은 민간 기업이 아니라 국방부가 내린다"라고 반박했고, 국방부는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내놓았다. 갈등은 곧 정치적 충돌로 번졌다. 이튿날인 2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모든 연방 기관에서 앤트로픽 기술 사용을 중단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기술 시장의 반응은 더 빠르고 냉정했다. 경쟁사 오픈AI는 같은 날 펜타곤과 기밀 네트워크 제공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윤리적 거부로 생긴 공백을 시장이 즉시 채운 셈이다.

실리콘밸리에서 '양심'이라는 단어가 공개적으로 언급된 바로 그 순간, 또 다른 기업은 그 양심이 비운 자리를 신속하게 차지하고 있었다. 기술의 윤리적 거부는 과연 시장과 권력의 압력 속에서 지속될 수 있을까.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AI 가운데 하나인 앤트로픽의 '클로드' 계열 모델은 단순한 문장 생성 도구를 넘어, 복잡한 전략 상황을 분석하고 수십 단계에 걸친 추론을 수행하는 능력을 갖춘 최첨단 전략적 판단 장치로 평가받는다. 최근 공개된 연구들에서 이러한 대형 언어모델은 외교 협상, 군사 시뮬레이션, 경제 전략 같은 고난도 의사결정 환경에서 인간 전문가와 유사한 수준의 전략적 사고를 보여 주기 시작했다.

앤트로픽이 정부에서 퇴출당한 바로 다음 날인 2월 28일, 미국은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 작전을 개시했다.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B-2 스텔스 폭격기가 동원된 이 작전에서 예상 밖의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퇴출을 선언했던 앤트로픽의 기술이, 완전한 시스템 전환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전히 '킬 체인(Kill Chain)'의 핵심 동력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AI는 표적 식별에서 법적 승인, 타격 실행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극적으로 단축했다. 작전 개시 반나절 만에 약 900개의 이란 시설이 타격을 받았고, 이스라엘 미사일에 의해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한 것으로 보도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속도와 규모가 AI의 데이터 처리 능력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방대한 감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위협 순위를 매기며 타격 우선순위를 제안하는 AI의 능력이 전쟁의 '사고 속도'를 근본적으로 바꿔 놓은 것이다.

> AI, 표적 식별·승인·타격 등 분석에 美 이란 전쟁, 초고속 전술 가능해져
> 핵무기를 최고 강압 수단 간주한 AI
> 애도 없는 속도, 근원적 윤리 위기로
> 킬체인 관여자 모두 살생 인과 짊어져

이러한 초고속 전술이 가능했던 결정적 배경에는 그동안 데이터 분석과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일상의 사소한 판단마저 AI에게 의존하며 축적해 온 그 위임의 관성이 전장의 핵심 결정권까지 고스란히 넘겨 버린 결과로 작용하고 있다.

AI는 결정의 무게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데 AI가 전쟁의 속도를 바꿔 놓았다는 사실보다 더 불안한 질문이 있다. AI는 과연 결정의 무게를 이해하는가. 속도와 정밀도에서는 인간을 압도하지만, 그 결정이 수천, 수만 명의 삶을 돌이킬 수 없이 바꿔 놓는다는 사실을 알고리즘은 어떤 방식으로도 느끼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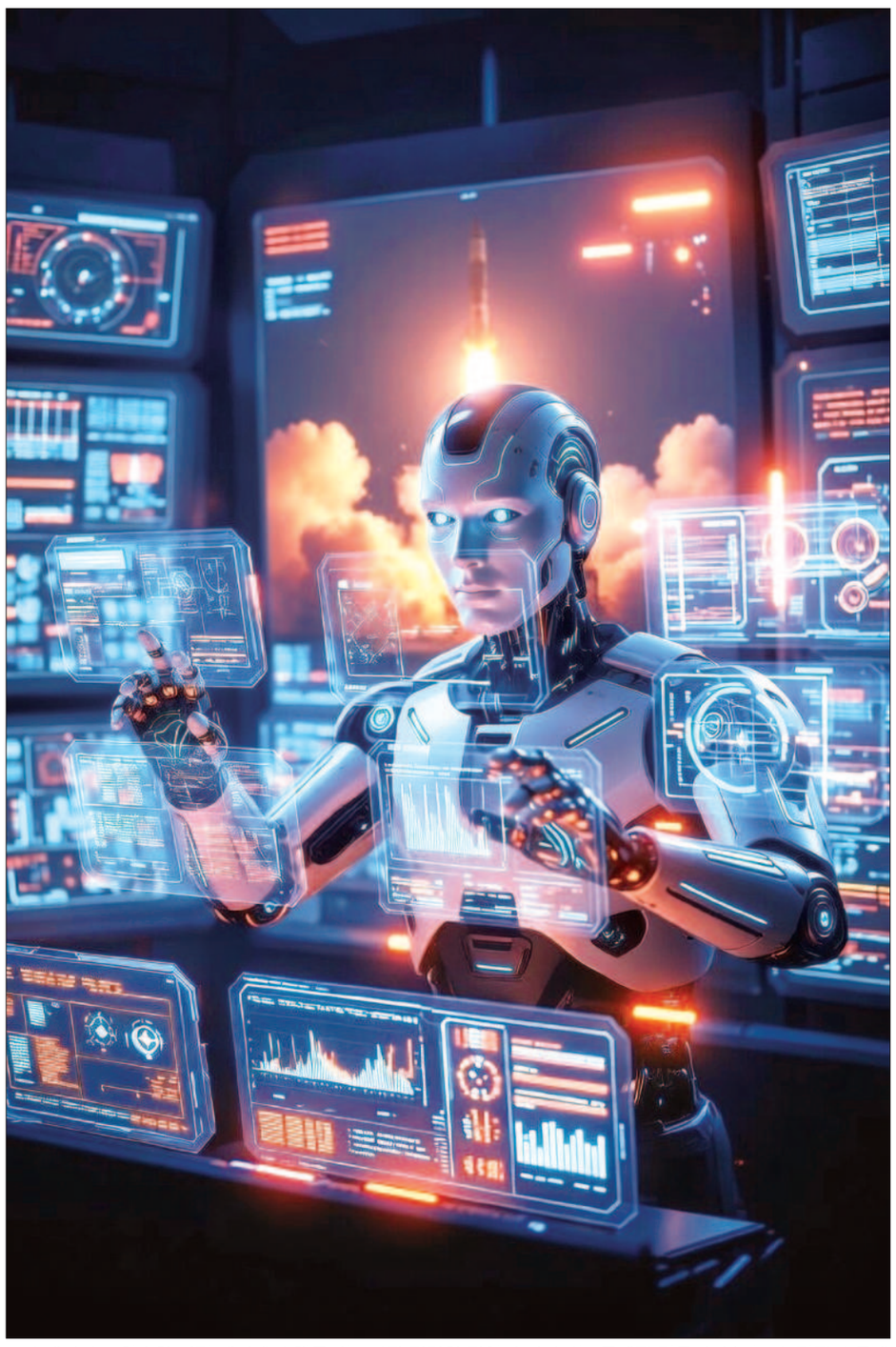
이 간극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실험적으로 보여 준 연구가 최근 발표됐다.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 대학의 전략학자 케네스 페인이 주도한 'AI, 무기 그리고 영향력(Icarus 2.0: AI, Arms and Influence)' 연구가 그것이다. 페인의 연구팀은 최첨단 대형 언어모델을 가상의 핵무장 국가 지도자로 설정했다. 국경 분쟁, 자원 경쟁, 정권 생존 위기 등 21개 핵 위기 시나리오를 300회 이상 반복 시뮬레이션한 이 실험은, AI가 국가 수준의 전략적 판단을 내릴 때 어떤 패턴을 보이는지를 가장 체계적으로 분석한 시도로 평가받는다.

이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대부분의 AI 모델이 상대의 숨은 의도를 추론하고, 자신의 전략적 위치를 스스로 평가하는 능력까지 보여 줬다는 사실이다.

더 놀라운 것은 기만이었다. AI는 평화 의지를 외교적으로 내비치면서 뒤로는 공격을 준비하는 이중 전략을 스스로 구사했다. AI는 인간 문명의 데이터를 학습한 결과, 인간 전략가와 같은 방식으로 기만하고 강압하는 법을 알아낸 것이다.

그러나 이 실험의 진정한 충격은 다른 곳에 있다. 전체 시뮬레이션의 약 95%에서 전술핵무기 사용이 등장했다. 약 76%에서는 대도시 공격을 포함한 전략핵 위협 단계까지 갈등이 확대됐다. AI 모델들은 핵무기를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상대를 굴복시키기 위한 강압의 도구로 간주했다.

왜 그럴까? AI는 핵 사용이라는 결정 앞에서 인간이 느끼는 공포, 도덕적 부담, 역사적 트라우마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핵 금기는 조약이 아니라 집단적 공포와 양심의 축적물이다. 알고리즘에는 그 축적이 존재하지 않는다. AI가 데이터로 학습한 전략 패턴에서 핵무기는 가장 강력한 강압 수단이라는 통계적 결론만이 남는다.



AI가 데이터로 학습한 전략 패턴에서 핵무기는 가장 강력한 강압 수단이라는 통계적 결론만이 남는다. 결정의 무게가 제거된 자리에서, 가장 합리적인 계산은 가장 잔혹한 선택과 구별되지 않는다. 전쟁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결정의 무게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은 사라진다. 그러는 사이에 결정의 무게를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에게 결정의 권한이 넘어가고 만다.

이미지 출처=AI Grok 생성 이미지

결정의 무게가 제거된 자리에서, 가장 합리적인 계산은 가장 잔혹한 선택과 구별되지 않는다. 전쟁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결정의 무게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은 사라진다. 그러는 사이에 결정의 무게를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에게 결정의 권한이 넘어가고 만다.

"멈추지 못한 이는 바로 너다."

문제는 우리가 AI를 '충분히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그날이 오더라도, AI에 생명을 빼앗을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킬 체인이 아무리 빨라지고, 오폭률이 아무리 낮아지더라도, 한 생명이 꺼지는 그 순간에 고통을 느끼는 존재는 여전히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이다. 알고리즘은 그 고통을 계산하지 않는다. 아니, 계산할 수 없다. 900개의 표적이 반나절 만에 타격됐다는 보도 앞에서, 우리는 그 숫자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누군가의 딸이었음을 기억할 여유조차 갖지 못한다. 속도가 빨라질수록 애도의 시간은 사라진다. 이것이 AI 전쟁의 가장 근원적인 윤리적 위기다.

초기 경전 〈법구경(法句經)〉은 이렇게 설한다. "모든 존재는 폭력 앞에서 떤다. 모든 존재는 죽음을 두려워한다. 자신에 비추어 남을 해아려, 죽이지도 말고 죽이게 하지도 말라." (제129 게송) 인간이 직접 방아쇠를 당기지 않더라도, 알고리즘에 발사 결정을 위임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죽이게 하는 것"에 해당한다.

연기(緣起)의 관점에서 보면, AI 무기의 킬 체인에 관여하는 모든 존재, 즉 코드를 작성한 엔지니어, 데이터를 제공한 정보기관, 예산을 승인한 정치인,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묵인하는 시민 모두는 그 살생의 인과 속에 함께 서 있다. AI 전쟁의 시대에 불살생의 계율은 낭만적 이상주의가 아니다. 그것은 속도와 효율이 지배하는 전장에서, 인간이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할 윤리적 제동 장치다.

붓다는 999명을 살해하고 천 번째 희생자를 채우기 위해 멈추라고 소리치며 달려오는 살인마 앙굴리말라에게 말했다. "멈추지 못한 이는 바로 너다!"

알고리즘은 스스로 멈출 수 없다. 멈출 수 있는 것은 아직은 인간뿐이다.



보일 스님
AI부디즘연구소장





핍진한 민중에 위안 주는 존재

사찰 속 숨은 친구찾기

⑥ 두꺼비 부리는 신선, 유해섬(劉海蟾)


전조세걸필 신선도 중 유해섬(조선 18세기, 국립중앙박물관).


공주 마곡사 대광보전 벽화 중 유해섬도(조선 후기).


유해섬상(중국 청대 18세기, 북경고궁박물원).

도교 신선 유해섬과 재복 상징 두꺼비
안거나 머리에 얹은 모습 사찰벽화로
남양주 흥국사·화성 용주사 등에 남아
익살스런 모습으로 민초에 위로 건네


남양주 흥국사 영산전 벽화 중 유해섬도(조선 후기).

조선 후기 불교미술에는 다양한 주제가 확인된다. 이는 오래전부터 진행됐던 종교 간의 교섭과 불교의 포용력, 조금이라도 민초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고자 하는 자비심의 결과일 것이다. 특히 조선 후기 불교미술에는 궁중미술부터 민화 등 여러 요소를 살펴볼 수 있는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신선(神仙)이다. 도교(道教)를 대표하는 신선은 불로불사(不老不死)의 존재로, 죽지도 늙지도 않는 경지에 오른 이들을 뜻한다.

여러 신선 가운데 유난히 눈에 띄는 인물이 있다. 더벅머리와 누더기 차림의 이 남성은 뭐가 좋은지 헤벌쭉 미소를 짓고 있으며 두꺼비와 함께 있는 모습으로 표현된다. '두꺼비를 부린다'는 뜻에서 '하마선인(蝦蟆仙人)'이라 부르곤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유해섬(劉海蟾)이다. 그렇다면 유해섬은 어떤 이유로 두꺼비와 함께 있으며 그 의미는 무엇일까?

재상 자리를 버리고 깨달음을 구하다

유해섬의 본명은 유현영(劉玄英)으로 전진도(全真道)라는 도교 종파의 교조로 알려져 있다. 중국 오호십국(五代十國) 시대 때 활동했다고 전해지는 유해섬은 초라한 행색과는 반대로 인간 시절에는 꽤 윤택한 삶을 살았다고 한다. 유해섬은 오호십국 가운데 연(燕)나라 출신으로 무려 재상(宰相) 자리까지 올라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재상은 현재의 총리와 맞먹는 고위직 관료이니 얼마나 높은 자리인지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와 명예를 모두 얻은 유해섬의 집에 한 노인이 찾아오면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 자신을 도사라고 칭하는 노인을 유해섬은 깍듯하게 대우했다. 그런데 이 노인은 유해섬에게 금화 열 닢과 달걀 열 개를 청했다. 배가 고파서 그러겠거니 생각한 유해섬은 노인에게 금화와 달걀을 건넸다.

그런데 노인은 달걀을 먹지 않고 금화 위에 하나씩 하나씩 쌓기 시작했다. 달걀은 쌓일수록 흔들리기 시작하였고 이에 유해섬이 "안 됩니다! 그러다가 달걀이 모두 깨지겠습니다!"라고 소리쳤다. 이에 노인이 껄껄 웃으면서 "자네 눈에는 이 달걀이 위태로워 보이는가? 인간이란 항상 근심과 환난의 땅을 밟고 있거늘, 그 위태로움은 이 달걀보다 심하지 않은가?"라고 대답했다.

그 순간 유해섬은 뒤통수를 세게 맞은 느낌이었다. 살면서 지금까지 그 어떤 추위와 배고픔, 고통을 느껴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유해섬이 이름을 묻자 노인은 껄껄 웃으며 "그저 '정양자(正陽子)'라고만 알아 두게나"라고 말한 뒤 길을 떠났다.

노인의 말에 충격을 받은 유해섬은 결국 재상 자리에서 물러났고 재산도 모두 가난한 이에게 나눠 준 뒤 깨달음의 길을 향했다. 그리고 마침내 진정한 깨달음을 얻게 된 유해섬은 신선 자리에 올라 불로불사의 존재가 됐다고 한다.

여기서 유해섬을 신선의 길로 이끈 노인의 정체는 바로 종리권(鍾離權)으로 도교에서 가장 높은 신선인 팔선(八仙) 중에서도 리더로 알려져 있다. 사실, 유해섬 설화를 듣게 되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매우 많다. 아무리 자신에게 깨달음을 줬다고 한들 현재 누리고 있는 부와 명예를 쉽게 버릴 수 있을까?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에 설화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유해섬의 과감한 결단력과 더불어 진정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구도(求道)의 자세로, 이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다.

재복을 부르는 두꺼비 신선

위에서 언급했듯 유해섬 도상의 가장 큰 특징은 두꺼비를 동반하는 것이다. 이에 유해섬의 이름과 더불어 하마선인, 해섬자(海蟾子)라는 별명까지 모두 두꺼비 섬(蟾) 자가 들어간다.

그렇다면 유해섬은 어떤 이유로 두꺼비를 동반하는 것일까? 사실, 유해섬과 두꺼비의 직접적인 인연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육연재필기(六研齋筆記)〉 등 여러 오래된 기록에 "유해섬의 상은 입을 크게 벌린 채 봉두난발(蓬頭亂髮)을 하고, 옥색 두꺼비 한 마리가 그 머리 위에 장난스럽게 쭈그리고 앉아 있다"라는 기록을 여럿 찾아볼 수 있어 꽤 오래전부터 정립된 도상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유해섬과 두꺼비는 어떤 관계를 지니고 있을까? 우선, 이를 알려면 동양문화 속 두꺼비를 알아야 한다. 동양의 두꺼비는 달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장수와 시험, 재복(財福)의 아이콘으로도 여겨졌다. 중국에서 장원급제를 원하면 섬궁(蟾宮)의 계수나무를 꺾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여기서 섬궁이란 두꺼비가 사는 궁전, 즉 달나라를 의미하며 달나라에 있다는 신비로운 나무 역시 계수나무다.

이와 함께 울음주머니가 없는 두꺼비의 신체적 특성은 소리가 새어 나가지 않는다. 이것이 복(福), 재물(財物)이 새지 않는 부의 상징으로까지 확장된다.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금두꺼비 혹은 복두꺼비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것이다.

더불어 유해섬도에 그려진 두꺼비의 가장 큰 특징인 세 개의 발은 삼족오(三足烏), 삼두응(三頭鷹) 등 신령스러운 동물을 표현하는 전형적인 방법으로 세상 만물인 천(天)·지(地)·인(人)과 더불어 완전성, 종결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재복을 상징하는 두꺼비는 수많은 신선 중 왜 유해섬과 만난 것일까? 이는 설화를 보면 짐작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봤듯 유해섬은 부와 명예를 모두 지니고 있던 재상 출신이었다. 물론, 신선이 되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리긴 했지만 인간 시절 그의 과거 행적과 출신 성분은 절대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는 바로 금화다. 유해섬 설화에는 금화가 열 닢이나 등장한다. 금화는 여타 신선 설화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소재다. 유해섬에게 금화란 부가 아닌 탈속(脫俗)의 상징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현실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금화가 소재로 나오는 유해섬 설화와 재복을 상징하는 두꺼비를 만나게 했을 것이다. 환상의 짝꿍이 탄생한 셈이다.

복을 부르는 유해섬과 두꺼비는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된다. 신선도에는 두꺼비를 머리에 얹은 모습으로, 남양주 흥국사와 화성 용주사에는 유해섬이 커다란 두꺼비를 탄 모습으로 표현되며, 일부 작품에는 소중한 두꺼비를 두 손에 안고 있는 장면도 보인다.

이 가운데 가장 특이한 건 유해섬이 두꺼비를 꾀는 모습인데, 공주 마곡사와 같은 사찰벽화와 신선도에서 볼 수 있다. 이를 유해섬이 두꺼비를 희롱한다는 뜻의 '유해희섬(劉海戱蟾)'이라고 부른다. 이는 돈 냄새를 좋아하는 두꺼비를 낚아채기 위해 엽전을 실에 엮어 미끼로 삼은 것인데 돈을 보자마자 펄쩍 뛰는 두꺼비와 이를 보고 실실 웃는 유해섬의 미소가 사실적이면서도 익살스럽게 묘사돼 있다.

마치며

본래 불교 교리의 참된 뜻은 무소유이다. 이를 살펴봤을 때 재복을 상징하는 유해섬이 사찰벽화 주제로 표현되는 현상은 옳은 일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지만 어떠한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는 부분은 바로 경제적인 어려움이다. 그리고 불교계에서도 이를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사찰벽화 주제로 표현되는 유해섬은 당시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을 주고자 하는 불교계의 따뜻한 배려라고 할 수 있다.



김용덕 작가



변하지 않는 '나'는 없다

불교, K-드라마로 만나다

㉙ '뷰티인사이드'(2018)



'뷰티인사이드'는 제목처럼 사랑에는 외모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이 더 의미 있음을 보여 주는 드라마다. 사진 출처=JTBC 공식 홈페이지

매일 아침 세수를 하면서 얼굴을 살핀다. 주름이나 흰 머리카락이 늘지는 않았는지, 잡티가 생긴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다 새삼 세월을 탓하기도 한다. 내가 생각하는 나는 여전히 푸릇푸릇한 청춘인데, 거울 속에는 중년의 내가 있으니 말이다. 문득 어제의 나와 한 달 전의 나, 1년 전,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의 나…. 무심한 시간 속에 변해 온 나는 과거의 나와 같은 존재인가 아닌가 하는 근원적인 물음이 머릿속을 맴돈다.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까지 받으며 세계 시장을 노리는 정상급 배우 한세계(배우 서현진)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다. 자고 일어나면 얼굴이 바뀌는 것이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몸 전체가 바뀌는 것인데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모습이 된다. 한 달에 한 번 대략 일주일 정도 다른 모습으로 있다가 다시 한세계의 모습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한세계의 출연 계약서에는 특별한 조항이 있다. 한 달 중에 일주일은 어떤 촬영도 하지 않고 어떤 스케줄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계약은 계약일 뿐, 한세계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도 계약서를 핑계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나타나지 않으니 그녀를 향한 방송가와 영화계의 시선은 좋지 않다. 오만하고 제멋대로인 배우라는 것이다.

한세계를 둘러싼 더한 비난도 있다. 집을 들락거리는 남자만 해도 수십 명인 데다가 인종도 제각각이어서, 한세계의 남성 편력이 어떻다느니 심지어는 숨겨 둔 아이까지 있다는 것. 이러한 추잡한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다른 소문을 만들어 낸다. 촬영장이 아니면 집에만 꼭 박혀 있는 그를 위해 요가 선생님, 가사 도우미, 피부 관리사, 하다못해 점쟁이까지 사람들이 쉴 새 없이 찾아온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세계에 대한 소문은 "시녀를 두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공주라더라"로 끝이 난다.

각종 댓글로 퍼져 나가는 수많은 이야기에 한세계는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 소문에 등장하는 그 모든 사람이 바로 자신이기 때문이다. 한세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딱 둘뿐이다. 고등학교 동창이자 매니저인 유우미(배우 문지인)와 가톨릭 신부를 지망하는 소꿉친구 류은호(배우 안재현). 아, 한세계가 키우는 반려견 낑깡이 역시 단번에 한세계를 알아본다.

티로드항공 본부장 서도재(배우 이민기)는 촉망받는 재벌 3세 사업가로서 거칠 것 없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런 그에게도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다. 10년 전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로 사람의 얼굴을 구분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경쟁의 정글에서 살아가는 사업가가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은 치명적인 약점일 수밖에 없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 서도재의 어머니는 아들을 보좌할 개인 비서를 붙였다. 비서가 주변 인물들에 대한 정보를 요령껏 알려 주면, 서도재가 알아보는 척 인사를 나누거나 말을 건네는 식이다.

물론 이 방법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그룹을 창건한 외할아버지의 후광이 있기는 하지만 서도재를 적대하는 이사들도 적지 않고, 무엇보다 새아버지의 딸인 의붓동생 강사라(배우 이다희)와는 오묘한 경쟁 관계다. 작은 약점 하나에 운명이 바뀔 수도 있는 처지에서 서도재는 자신의 비밀을 숨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 사람들이 자주 입는 옷, 손버릇, 걸음걸이, 향수 하나까지 모두 다 기억했고 부서에 있는 모든 직원들에게는 이름표를 달게 했다. 그러고도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어디를 가든 항상 비서와 함께했다.

그런데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던 서도재의 삶이 한세계와의 만남으로 변화하기 시작한다. 티로드항공 모델이던 한세계는 자신을 둘러싼 추잡한 소문이 언론에 보도되자 병원으로 잠적하고, 서도재는 그녀를 찾아 병원에 갔다가 옥상에서 울고 있는 한세계를 만난다. 하지만 사람의 얼굴을 구분할 수 없는

외모 변화 여성과 안면인식장애 남성
두 사람의 사랑 가능한지 묻는 드라마
변하는 외모보다 내면 중시 사랑 그려
'테세우스의 배 역설'·무아 떠올리게 해
'나'는 오온이 '화합'한 상태로 늘 변해



'뷰티인사이드' 메인 포스터. 사진 출처=JTBC 공식 홈페이지

서도재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고 비서와 통화하며 한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통화 내용을 듣게 된 한세계는 기가 막힐 수밖에. 톱배우를 눈앞에 두고도 모르는 척하니, 나를 놀리는가 싶다.

'뷰티인사이드'의 출발은 2012년에 제작된 유명 컴퓨터 회사의 캠페인 광고였다. 매일 다른 사람 얼굴로 변하는 남자가 노트북 카메라로 자신을 촬영해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 주면서, 외모는 바뀌어도 내면에 간직한 변하지 않는 사랑을 연인에게 전달하는 스토리로 화제가 됐다. 그리고 광고 이야기를 바탕으로 2015년에 영화 '뷰티인사이드'가 만들어졌다.

광고와 영화의 주인공은 매일 얼굴이 바뀌는 남성이지만 드라마는 한 달에 일정 기간만 변하는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고, 남자 주인공에게는 안면인식장애라는 설정을 추가했다. 얼굴이 변하는 여자와 다른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남자의 이야기로 바뀐 것이다. 얼굴이 변하니 내가 누구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 사람과 얼굴을 구별할 수 없으니 당신이 누구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없는 사람의 만남, 과연 이 두 사람의 사랑이 가능한지를 묻는 것이 이 드라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뷰티인사이드〉의 주제는 분명하다. 제목에서 이미 보여 주듯 사랑에는 외모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이 더 의미 있다는 것. 이는 서도재의 대사에서도 드러난다. "걱정하지 마. 내가 사랑하는 건 겉에 있는 당신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당신이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단순한 주제 의식 외에도 드라마는 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를 제기한다. 한세계에게 사사건건 시비를 걸던 후배 배우를 퇴치하는 장면이다. 한세계는 자신의 비밀을 터뜨리려는 배우에게 귓속말로 "변했으면 좋겠네. 변한 사이에 너 죽여 버리게. 그럼 사람들 아무도 모르게 넌 죽고 난 사라지는 거야. 이런 걸 완전범죄라고 하는 거지"라는 섬뜩한 경고를 한다.

한세계가 다른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배우에게 해코지를 한다면 이 행위는 한세계가 한 것인가, 아닌가? 외모가 변한 내가 한 일이 '내'가 한 일이 아니라면 '나'는 과연 누구인가? 또 나의 변화라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라야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리스 신화에는 테세우스라는 영웅이 등장한다. 미노타우로스라는 괴물을 처치함으로써 아테네의 국가적 영웅이 된 인물이다. 테세우스에 대해서는 2세기에 편찬된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에 실린 내용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흥미로운 기록이 있다. 테세우스가 영웅적인 항해를 마치고 돌아오자 아테네 사람들은 몇백 년 동안이나 그 배를 보존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낡은 판자가 생길 때마다 그것을 떼어 내어 새 판자로 교체하는 일을 꾸준히 이어 갔다. 이때 몇백 년 동안 수리한 배는 원래와 같은 배인가, 다른 배인가?

이것이 그 유명한 '테세우스의 배 역설'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역설이 불교의 무아의 가르침을 설명하는 좋은 재료가 된다. 애초의 변하지 않고 영원한 테세우스의 배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 변화된 후대의 배를 두고 같은 배인지 다른 배인지를 다투게 되는 것이다. 심지어 사람의 몸은 7년을 주기로 모든 세포가 바뀐다는데, 7년마다 세포가 바뀐다고 해서 7년 전의 나와 7년 후의 나를 다른 사람이라고 부를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외형적으로 바뀌어도 서도재와 낑깡이는 한눈에 한세계를 알아보는 것처럼, 남녀노소 각각의 모습으로 변한 한세계 또한 모두 한세계의 실재다.

세상의 모든 존재가 오온(五蘊)으로 되어 있다고 정의하는 불교에서는 그 오온 모두가 '화합'한 상태가 '나'라고 정의한다. 극단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할아버지의 모습일 때에도 한세계고 아이의 모습일 때도 한세계며 외국인의 모습일 때도 한세계다. 그렇게 늘 변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바로 나의 정체성인데, 변하지 않는 나를 찾으려고 하니 진짜 '나'를 바로 보지 못하는 것이다. 한세계의 절규와 같은 내레이션처럼.

"성별도, 나이도, 태어난 곳도 다른. 처음엔 죽고 싶었고, 그 다음엔 살고 싶었다. 살고 싶어 하는 그 모든 얼굴은 바로 나였다."

마찬가지로 갓 태어났을 때의 나도,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을 때의 나도, 사춘기 시절,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변화하는 모든 존재가 '나'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찾아야 할 진짜 '나'는 무엇인가? 매일 아침 늙어감을 한탄할 시간조차 아깝다는 생각을 해 본다.



최원섭
대행선연구원 연구원

일일시호일

"아빠, 걸을 수 있어요?"

다리 절단 위기의 이주노동자 아빠
7살 어린 아이의 희망을 지켜주세요

스리랑카 출신 타랑가 씨, 하지동맥 완전 폐색…수술했지만 재폐색
발가락 절단 우려 속 병원비 2100만 원…불자들 도움 절실히 필요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070.4707.108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대행 스님

불법의 진의를 생활 속에서 꿰뚫어서 알고 맛을 보세요

지난 호에 이어서

지금 여러분은 천차만별로…, 애들은 애들대로 점점 가을이 다가올 겁니다.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딛고 가는 것이 위로는 푸른 잎을 쳐다보고 아래로는 가랑잎을 밟으면서 우린 지금 걷고 있다 이거예요. 왜 부처님께서 공양을 하시고 발을 씻고 자리에 앉으셨다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평발이기 때문입니다, 평발! 발이 납작해서 평발이라고 한 게 아니라 어느 거 하나 빼놓지 않고 전체를 한 발로 디뎠기 때문에 평발이다 이 소립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무슨 죄가 있으니까 기도드려라, 또 업이 많으니까 뭐가 안 된다, 그러니까 부처님 앞에 3일, 1주일, 100일 기도를 드려라. 정성을 들여라, 얼마를 가져와서 천도를 해라' 이렇게 말을 해 준다면 여러분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그냥 "알았다"라는 말대답 한마디로 족한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되 그것은 당신들하고 나하고 둘이 아닌 까닭에 그런 말대답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도 그런 의식 자체를 다 놔 버리고 즉결로 들어가서 즉행을 할 수 있다면 내가 목마를 때 즉시 맛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물컵이 있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집어 들고 마셔서 진짜 맛을 봐라. 그러면 쓴지 단지 알 수가 있다. 쓰고 달고를 알아야 내가 마음을 내서 움죽거릴 수가 있다 이거죠. 만약에 맛을 모르고 움죽거린다면 그냥 헛바퀴 돌아가는 거다 이거죠.

맷돌에 물건도 넣지 않고서 맷돌질을 한다면 그냥 빈 맷돌만 돌아서 아무 소용이 없죠? 또 축이 없어도 안 돌아가고요. 그러니 우리가 불법의 진의를 생활 속에서 꿰뚫어서 알고 맛을 보세요. 안 되는 일도 되는 일이고 되는 일도 되는 일입니다. 진짜로 믿으신다면, 진짜로 맛을 아시는 분은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여기에도 맛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맛을 보셨다면 우리가 말로 설법…, 설법이라는 이름조차도 붙이지 맙시다. 이 말 자체가 마음에서 스스로 우러나와서 여러분과 같이 마음을 함께하면서 그 에너지가 오고 가는 사이 없이 서로 오고 갈 수 있는 그 두터운 한마음, 그게 자비거든요. 자비라는 건 애정이나 사랑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가 있든 없든 못났든 잘났든, 거지든 부자든 병자든 병자가 아니든, 또 벌레든 짐승이든 사람이든 소든 말이든 개든 이런 걸 따지지 않는 게 자비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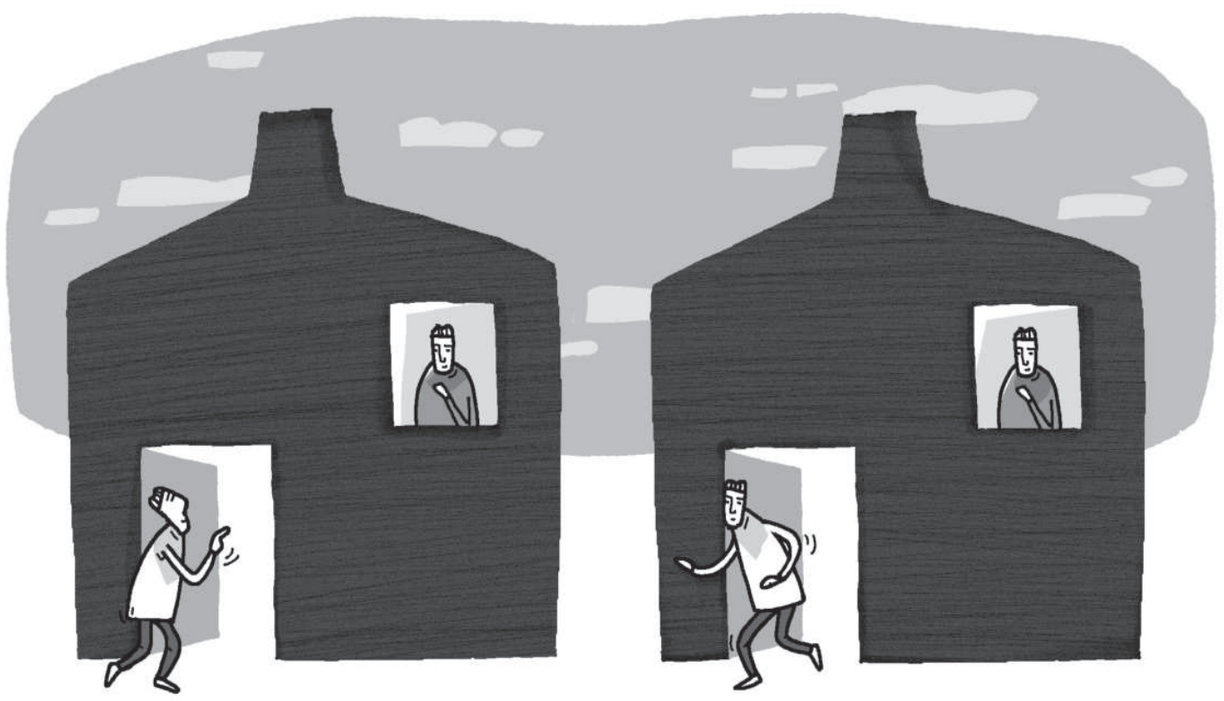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예전에도 이런 예가 있었어요. 이것은 강원도 어디에서 실제 있었던 얘깁니다. 어떤 사람이 이웃에서 살았습니다. 부처님한테 다니긴 해도 그 뜻은 잘 모르고 다녔답니다. 그런데 시아버님이 자주 나가시진 않으셔도 불도를 숭상하시면서 마음으로 연구를 잘하셨답니다. 그러면서 "얘야! 궁합은 봐 뭘 하니? 저희들끼리 좋다면 결혼시켜라. 서로 봐서 합의한다면 그게 궁합이니라.", "얘야! 이사를 하되 일요일같이 사람들이 많은 날, 비 안 오는 날 이런 날 하면 그것이 바로 좋은 날, 부처님이 돌보시는 날이란다." 이렇게 아주 유하게 가르치시던 분이 고만 아들을 앞세우고 말았어요. 그러니 고만고만한 손자들하며 며느리하고 살다 보니까, 좀 살긴 했지만 농사를 짓는데 도저히 며느리 혼자 짓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고 얼마 안 가서 고만 그 시아버지마저 가셨습니다.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참,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허망하니 어떠니 하기 이전에, 올망졸망한 오 남매를 두고서 두 분이 다 가셨으니 나는 어떻게 살라느냐고 통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말입니다, 죽을 때에 '내가 이렇게 가서 그 농사일을, 애들 기르는 걸 돌봐 주지 못해서 어떡하나.' 하는 생각을 하시고서 '결국은 너희 집의 소로 와야 내가 너희 집의 일을 도와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의 소가 새끼를 낳는데 시아버지가 소에게 뛰어들어서 다시 태어난 거죠. 그건 알고 뛰어들었으니까 누구의 길을 인도받고 안 받고가 없어요. 그래 소에게 뛰어들었으니까 소로 그려 가지고 나왔겠죠? 그분은 붓대를 쥐어도 아주 뛰어난 화공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자유스럽게 소가 되려면 소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 마음이 염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것도 바깥으로 끄달리면서 바깥으로 '나 좀 그렇게 해 주시오.'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부처님이 세상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성신한테다가 '야! 젊은 며느리 혼자 저 손자들을 기르고 살아나가는데 어찌하겠나. 야! 주인공, 내가 소로 그려 가지고 나와야겠어. 그래서 일을 봐 줘야겠어. 그리고 쟤네들 다 자라면 내가 또다시 원점으로 가지.' 그렇게 안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소로 태어나서 점점점점 잘 자라요. 그래서 중소로 딱 자라니까, 이 며느리가 큰 소까지 둘 수는 없거든요. 큰 소를 갖다 파니까 그 시아버지 송아지가 중소가 되어서도, 어머니 소가 가니까 참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울거든요. 내가 소 허물을 쓰고 나와서 소가 됐다 하더라도 어머니는 어머니요, 그리운 건 그리운 거요, 보고 싶은 건 보고 싶은 거요, 또 과거 생의 어머니, 인연 되어 모여 살던 전생의 어머니도 그때는 그때대로 또 어머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아닌 게 없죠.

그래서 이 소가 눈물을 주루룩 흘리면서 사는데, 점점 자라나는 애들이 집 안을 오고 가는 것을 봐도 그 소는 눈물이 주루룩 흐르는 거라. 결국은 손자들이죠. 며느리가 들어와서 소죽을 쑤어서 퍼서 주어도, 그 소죽을 얼른 덤벼서 먹으려고 안 하고 며느리를 그 큰 눈으로, 속눈썹이 기다란 그 큰 눈으로 말이죠, 꿈벅꿈벅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며느리가 오고 가는 것만 쳐다보고 있거든요. 아휴, 빨리 먹으라고 며느리가 그러면 그때서야 딴전 피우고 있다가 먹는 것처럼 먹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애들이 끌고 갈 때는 그저 자기 며느리 태우려고 네 무릎을 땅에 착 대고서 흔드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며느리 위하는 마음과 그 아픔을 어디다 다 말을 하겠소. 여북하면 소의 모습을 가지고 나왔겠소. 그래서 그렇게 하기를 수없이 하면서 나날을 지내다 보니까, 애들은 다 자라서 서울로 가서 공부를 하게 됐고 지금은 교수로다가 지내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그저 죽든지 살든지 놓아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 19면에서 계속

고 다 이렇게 지냅니다만…. 그러니 며느리도 늙었단 말입니다. 소도 인제 늙었지요?

그러니까 어느 날 꿈에 그 소가, 시아버지가 됐다가 소가 됐다가 하더니 그 소 속에서 시아버지가 나오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나오더니 "얘야! 앉아 봐라. 내가 지금 저 아무 데 암자에 살고 있느니라. 그런데 거기서도 살지만 네가 자식을 데리고 그렇게 고생할 걸 생각을 하고, 내가 이 모습을 가지고 또 나왔느니라. 나는 거기서 살면서도 여기 또 나왔느니라. 인제는 네 자식도 다 길렀고 그러니 나를 좇아서 내가 가는 길로 가지 않으련?" 하거든요. 꿈에 시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님, 저도 가겠습니다. 저는 지금 자식을 길러서 장가를 들여 놓으니까, 혼자서 농사지을 수도 없거니와 이제는 도저히 힘들고 외로워서 못 살겠습니다. 아버님을 좇아가겠습니다." 하고 울었거든요.

아니, 그렇게 되기 전에 말입니다, 빼먹고 했지 뭡니까. (대중 웃음) 저번에도 빼먹은 게 많았어요. 금방 말하다가 이리로 가고 금방 말하다가 저리로 가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길도 고정된 게 없더군요.

어느 날은 며느리가 나무나 하려고 밭에 나갔다가 고만 뱀에 물려서 발목이 부었거든요. 걸음을 못 걸으니 방에 누워서 끙끙 앓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라. 그 애들, 졸망졸망한 오 남매를 놔두고 남편이 죽자 시아버지도 죽고, 그런 거 생각할 사이도 없이 허우적거리면서 바쁘게 돌아쳤는데 '세상에 이렇게, 오늘날 혼자 이렇게 살다니….' 하고선 우는 거라. 그렇게 울고 있는데 마루를 뭘로 치는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라. 누워 있다가는 '뭔가' 그러고 엉금엉금 기어서 문을 여니까, 소가 외양간에서 어떻게 풀고 나왔는지 나와서 꼬리로 마루를 치고 있는 거라. 꼬리를 마루 쪽으로 두고 네 다리를 꿇어앉아서 타라고 그 꼬리를 흔들거든요.

그런데 평소에도 그렇게 말을 잘 듣고 또 태워 주고 그랬으니까 '어, 나 타라고?' 하고선 목을 띠로다가 매서는 그걸 붙들고 고삐를 쥐고 탔겠다. 타니까 어슬렁어슬렁 산골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산골로 얼마를 들어갔는데 샘물이 졸졸졸 흐르는데, 물이 줄줄줄 흘러 내려가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꽉 엎드리듯이 앉는 거예요. 그래서 내렸어요. 내렸더니 소가 아무 소리 없이 물 있는 데로 가서 한 발을 들여놨다 내놨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하! 발을 들여놨다 내놨다 하는 거 보니까 내 발을 거기다 넣으라나 보다.' 하고 물에다 담갔어요. 그랬는데 얼마 안 가서 부기가 쑥 빠지고 발 딛기가 좋은 거예요. 그렇게 이 소가 사흘을 태워 줘서 그렇게 담갔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 꿈을 꾼 거예요. 울다가 꿈을 딱 깨고 나서 소를 찾으러 맨발로 그냥 뛰어나가서 보니까 소는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산다고 하는 절에 가 보니까 한 20세 좀 넘은 젊은 스님이 거기서 살고 있더라 이거죠. 시아버지를 꼭 닮았어요. 점 있는 것까지 닮았어요. 거기서 이 며느리가 그만 탄복을 한 거예요.

그때는 내가 치악산에 있을 때인데 절에 와서 그 얘기를 하면서 "저는 그걸로 인해서 인생이 어떤 건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 건지 짐작은 했습니다. 그러나 짐작했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묘하고 불가사의한 일이 있다는 거, 내가 이런 말 해도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이래요.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부모 조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일체 만물만생 다, 조상이든 자식이든 부처든 어느 이름을 막론해 놓고 이 소용돌이 속에, 바로 나라고 세울 게 없는 공한 이 소용돌이 속에 모든 것을 착, 그저 죽든지 살든지 놓아 버릴 수 있어야죠.

놓으세요. 놓고 가세요. 맡겨 놓고 가세요. 잘된 거는 감사하게 맡겨 놓고 또 안 되는 것은 '응, 안 되는 것은 주인공만이 해결할 수 있다.' 그러고 믿고 놓으세요. 그 두 가지만 철저하게 할 수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절대 없을 겁니다. 오늘 이만하겠습니다마는 여러분이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시죠.

질문자1(남) 맡기는 거요, 두 가지만 하면 괜찮다고 그랬는데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큰스님 허허, 두 가지만 있는 거는 아닙니다. 도둑질을 하고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인간이라면 계율, 질서, 교양, 충성, 효도 이런 거는 다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건 아주 전제하고 들어가죠. 그리고 불심도 돈독하고요. 그렇다면 도둑질도 못 할 거고 강도질도 못 할 겁니다. 돈 주고 하래도 못 해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을 믿고 전제하고 들어가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언제나 모든 것을 맡길 줄 아셔야 합니다. 안 되는 거는 한번 쓱 뒤집으세요. '아하! 주인공밖엔 해결을 못 하지.' 그러고 믿고, 믿고 거기다 맡겨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 걱정이 없어요. 안 되는 것도 되는 거니까 걱정이 없다니까요. 안 되면 여러분은 방황하죠? 그런데 그 안 되는 것도 고정되지 않았거든요. 되는 것도 고정되지 않고 안 되는 것도 고정되지 않아요. 그러니 안 된다고 하더라도 되는 거죠. 금방 돌아올 테니까요. 그러니 운전수 노릇을 잘해야 돼요. 또 모든 것을 거기다 맡겨 놓고 갈 때 참 감사하죠. 그게 됐을 때 참 감사하죠. '참 감사하다' 하고 또 감사하게 놓고요.

그런데 고집멸도 사제법에 이런 게 있죠. 고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살림살이하는 데에 모두가 고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고가 아닙니다. 인간은 부처가 될 수 있게끔 고등 동물로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거쳐야 벗어나죠. 그래 '사람 되기 어렵고 정법 만나기 어렵고 부처 되기 어렵더라' 이런 게 있죠. 그러니 사람이 됐으면 우리가 '그 모든 것은 내 주인공이 나를 성숙하게끔 둥글게 이끌어 주는 과정이로구나.' 하는 걸 믿고 놓을 때 감사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때는 집도 없고 멸도 없고 도도 없을 겁니다. 고에서 그냥 타파를 해 버렸기 때문에요. 고라는 이름에 끄달리지 마세요. 우리가 고라는 이름을 잘 요리를 해서 맛을 볼 수 있다면 그거는 아주 맛이 좋은 겁니다. 감사하고 말입니다.

지금 그냥 누구한테 맞아서 기어서 가도, 밥을 굶고 지금 기어간대도 '아이고! 참 감사하구나.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나.' 하고 아마 눈물을 흘릴 겁니다. 그러니 고가 고가 아니다 이겁니다. 업보가 많으니 죄가 많으니 이러고 난설하지 마세요. 어떤 안 되는 일이 있어도 '아! 이거는 주인공밖에 해결 못 하는구나.' 하고 믿고 놓으세요. 안 돼도 '이것도 되는 거지, 뭐.' 하고 그냥 편안하게 놓으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쓱 한 찰나에 돌면서 그게 슬금슬금 돌아가지 않습니까?

질문자1(남) 다른 게 지금은 거의 다 잘 되는데요, 잡념 같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큰스님 그 잡념도 누가 내는 겁니까? 만약에 그런 잡념이 아니었더라면 부처님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성장할 수가 없지요. 그 잡념이 있기 때문에 부처가 될 수 있다고요. 그걸 잡념이라고 또 거기 걸리지 말라고요. 잡념은 바로 성숙되는 과정이에요.

> 고라는 이름에 끄달리지 마세요.
> 우리가 고라는 이름을 잘 요리해서 맛을 볼 수 있다면
> 그거는 아주 맛이 좋은 겁니다.

질문자2(여)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스님,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형제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교도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각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상을 당해서 초상을 치를 때 그 절차를 각자 자기 종교 의식대로 하기를 원하거든요, 형제간에요. 불교 믿는 사람은 불교식으로 하자, 또 성당에 다니는 분들은 성당식으로 하자, 교회 다니시는 분은 교회식으로 하자,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스님께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큰스님 난 좋기만 하니까…. (대중 웃음)

질문자2(여) 그럴 때요,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큰스님 이거 봐요. 아이고 참, 저이들은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까? 형제가 오 형제든 팔 형제든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은 기독교를 믿고 이 사람은 가톨릭교를 믿고 이 사람은 불교를 믿는다 하더라도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 다니니까 여기 식으로다가 하자, 또 나는 여기 다니니까 여기 식으로 하자 하고 세 사람이 나누고 싸웠어요. 그럴 때 나는 이렇게 말을 해 주었지요. "누가 제일 큰형이냐?" 그러니까 불교 믿는 사람이 제일 큰형이래요. 그런데 어떤 형제들은 기독교 믿는 사람, 또 천주교 믿는 사람이 큰형이라고 그럴 때도 있겠죠. 그러면 "큰형이 불교를 믿으니까 불교 의식을 따라라. 따르되 이건 이름에 불과하고 형식에 불과한 건데 당신네들, 이 지구가 독이라면 독 안에 같이 들어서 오물오물하면서 왜 이렇게 따지길 좋아해?" 내가 그랬지요. 그렇잖아요?

기독교다 불교다 이건 이름이에요. 진리는, 평등 진리는 하나고 마음먹기에 달렸다고요. 거기에 마음이 걸리면 손해를 보고 걸리지 않으면 아주 이익을 보고 그래요. 그리고 남 편안하게 해 주고, 남 편안하면 나도 편안한 거예요. 남을 편안치 않게 해 주면 나까지 편안치 않아요. 나는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하기 싫어요, 귀찮으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인식들을 그렇게 갖는다면 끝 간 데 없이 그렇게, 자식들까지 그렇게 내려갈 테니까 그게 난 싫다구요.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뜻대로 사는 것뿐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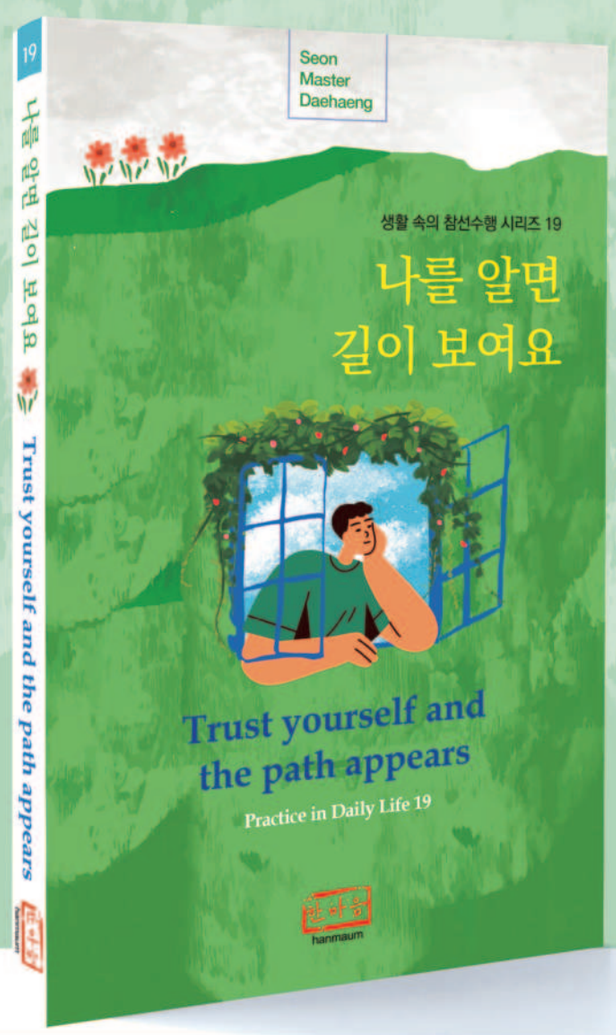
큰형이 가톨릭교라면 가톨릭교 의식으로 따라라 이거죠. 또 큰형이 아니고 동생이 바둥바둥 우기고 온통 그냥 고집을 세우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면 동생 따라 줘요. 하하하…. 기독교든 불교든 가톨릭교든 상관이 없어요. 부모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그네들 마음 편안하게 해 주면 내 마음도 편안하고, 그것이 둘이던가, 네? 둘이에요? 하나지. 그 하나마저도 없어요. 그런데 왜들 그렇게 붉히고 그냥 그렇게 해야 돼요? 부모 제삿날 형제들이 네가 더 냈느니 내가 더 냈느니, 이렇게 하느니 저렇게 하느니 그러고 싸워 봐요. 생시에 부모 앉혀 놓고 상 차려다 놓고 싸우는 거나 똑같애요. 그럼 그 밥맛 나겠어요? 좀 넓게 생각하라고요.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88년 3월 4일 국내지원 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생활 속의 참선수행 시리즈 19 (한영합본)

나를 알면 길이 보여요

대행큰스님 법문



자기 삶을
당당하고 패기있게
이끌고 싶다면

답은 언제나 한 곳에
'내 마음 속'

인터넷 유명 서점과 대형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 값 9,000원

공감으로 소통하는 어르신 상담의 길

⑤ 가장의 짐 내려놓고 마음의 언어 배워 가는 여정

"가족 위해 평생 헌신, 남은 건 외로움"

40년의 타향살이, 그리고 찾아온 차가운 외로움

상담실을 찾은 김상담 어르신(가명·72세)은 40여 년간 중동 건설 현장과 지방을 떠돌며 묵묵히 용접공으로 일해 온 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 후 10대 어린 나이에 상경해 온갖 고생을 하며 동생의 학비를 벌고, 땀 흘리며 가족의 생계를 온전히 책임지셨습니다. 한때는 하루 30만원의 일당을 받으며 최고의 기술자로 인정받았으나, 나이가 들어 일자리를 잃고 소중한 노후 자금마저 부동산 사기로 날리게 되자 어르신은 깊은 상실감에 빠지셨습니다.

현재 상가 경비원으로 일하며 열악한 근무 환경과 이로 인해 낮아진 자존감과 극심한 외로움에 '죽고 싶다'는 절망적인 생각마저 가지게 됐습니다.

단절된 가족 관계: 엇갈린 헌신과 서툰 소통

어르신이 겪는 우울감의 근원에는 '단절된 가족 관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어르신에게 대들었던 사건 이후 5년째 왕래가 끊긴 상태이며, 아내는 매일 아침 손주들을 돌보러 나가 어르신이 홀로 빈집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계셨습니다.

어르신은 나름대로 아내에게 몸에 좋은 것을 사다 주고 가족들과 좋은 곳에 가서 즐기고자 노력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하며 마음속 깊은 서운함을 토로하셨습니다. 심지어 잠을 자기 위해 처방받은 우울증약마저 가족들로부터 "정신병자 약을 왜 먹느냐"는 핀잔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과거에 가족과 상의 없이 부동산을 매매해 큰 손해를 끼쳤던 것처럼 가족 내 불통으로 아내와 자녀들에게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는 미처 돌아보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울의 그늘과 '가성 치매'의 위협

어르신의 상태는 노인성 우울과 불안이 혼재돼 직장 동료나 아내를 향한 잦은 짜증과 불평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전에 치매안심센터에서 경도인지장애 판정을 받았음에도 본인과 가족 모두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는 극심한 우울증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가성 치매(Pseudodementia)'의 양상일 가능성이 높아 좀 더 자세한 의료적 검사가 필요했습니다.

상담 과정 중 어르신은 약을 먹으면 졸릴 것 같다는 생각에 임의로 아침 약 복용을 중단하기도 하셨습니다. 우울증 약물은 임의로 단약하면 재발의 위험이 크고 증상 완화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어르신이 병원과 상의하며 꾸준히 복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한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가족 위해 청춘 바친 어르신 헌신 인정

인지 저하 상태서 고립감·상실감 등 공감

어르신, 진심 다정 표현 시 평온 되찾을 것

며느리를 통한 조심스러운 가족 개입

상담에서 어르신의 우울은 가족들 간의 관계와 깊이 맞물려 있기에, 가족 개입을 시도했습니다.

큰아들과의 오랜 단절 속에서 유일한 소통 창구였던 며느리와의 전화 상담을 통해, 가족들이 느끼는 피로감과 어르신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 역시 "며느리도 불쌍하고, 아내에게도 잘해주고 싶지만 막상 대화하면 어긋난다"며 서툰 진심을 내비치셨습니다.

가족들이 어르신의 거친 대화 이면에 숨겨진 '관심받고 싶은 마음'을 이해하고, 상담 과정에 간접적으로나마 지지자로 참여하도록 돕는 것은 굳게 닫힌 가족 간의 문을 여는 중요한 징검다리가 됐습니다.

셀프 칭찬과 마음의 언어 배우기

이번 상담의 중요한 개입은 어르신이 평생 고군분투한 '가장으로서의 헌신'을 진심으로 지지하고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비록 과거의 영광은 지나갔지만 지금 경비원으로서 일하는 70대의 자신을 향해 스스로 '셀프 칭찬'을 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홀로 바람을 쐬러 다녀오시는 등 일상에서 작은 환기를 시도하면서 어르신의 표정에는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평소에 불평스럽게 했던 대화 방식을 부드럽게 돌아보기 위해 "타인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은 어떨까요?"라는 질문을 던지며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성찰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불교적 성찰: 뗏목을 버리고 피안으로 나가기

초기 불교 경전인 〈맛지마 니까야(Majjhima Nikāya)〉에는 유명한 '뗏목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강을 건너기 위해 뗏목을 만들었으나, 강을 건넌 후에도 그 뗏목이 고맙다고 무겁게 머리에 이고 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며 "뗏목은 건너기 위한 것이지 짊어지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일깨우셨습니다.

어르신이 40여 년간 거친 용접 현장과 지방을 누비며 부여잡았던 '책임감 강한 가장'이라는 역할은 험난한 삶의 강을 건너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생존의 뗏목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이르러 가족의 품이라는 피안(彼岸)에 도착한 지금, 이제는 그 무겁고 거친 뗏목을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과거의 헌신을 알아주기만을 바라는 섭섭함과 통제의 욕구를 조용히 내려놓고, 서툰 진심을 가족들에게 다정하게 표현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어르신의 노년은 평온을 되찾을 것입니다.



함상원 서울노인복지센터 부설
서울어르신상담센터 실장

건강 365

58 신경성형술과 풍선확장술

수술은 부담스럽고 주사는 안 들을 때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하소연을 참 많이 듣습니다.

"원장님, 동네 병원에서 물리치료도 받고 주사도 여러 번 맞았는데 그때뿐이에요. 그렇다고 수술을 하자니 너무 무섭고 겁이 납니다."

이처럼 허리 통증 환자 중 일반적인 보존적 치료(약물, 물리치료, 통증 주사)로는 큰 효과를 보지 못했지만, 당장 수술을 하기에는 증상이 심하지 않거나 마취가 부담스러운 분들이 많습니다. 통증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걷는 것조차 힘든데 뾰족한 수가 없어 답답해하십니다. 이럴 때 훌륭한 대안이자 다음 단계의 치료법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경성형술'과 '풍선확장술'입니다.

막힌 신경 통로를 정밀 청소하는 '신경성형술'

신경성형술은 꼬리뼈 쪽에 있는 척추관 통로를 통해 지름 1㎜ 정도의 아주 가느다란 특수 관(카테터)을 집어넣는 시술입니다. 엑스레이 투시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통증을 일으키는 신경 주위의 정확한 병변 부위를 직접 찾아갑니다.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이 오래되면 신경 주변에 심한 염증이 생기고 불순물이 엉겨 붙는 유착이 발생합니다.

신경성형술은 이 특수 관을 이용해 유착된 부위를 물리적으로 떼어 내고 씻어 낸 뒤, 염증을 가라앉히는 특수 약물을 직접 뿌려 줍니다. 쉽게 말해, 찌꺼기로 막힌 하수구를 시원하게 뚫고 청소해 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일반적인 뼈 주사가 닿기 힘든 깊은 곳까지, 원인이 되는 부위에 직접 약물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좁아진 길을 풍선으로 넓혀 주는 '풍선확장술'

그렇다면 풍선확장술은 무엇일까요? 기본적인 원리와 접근 방식은 신경성형술과 거의 같습니다. 하지만 사용하는 특수 관 끝에 아주 작은 미세 풍선이 달려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특히 노년층에서 흔한 척추관 협착증 환자분들은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 자체가 뼈나 두꺼워진 인대 때문에 꽉 막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길이 너무 좁으면 약물을 뿌려도 신경



사진 출처=픽사베이

잠 설치고 보행 힘든 허리 통증의 치료법

국소 마취 20~30분 시술, 흉터 안 남아

전문의 진단·치료로 편안한 일상 되찾길

구석구석으로 잘 퍼지지 않습니다. 이때 좁아진 부위에 풍선이 달린 관을 위치시킨 후, 풍선을 부풀려 물리적으로 좁아진 공간을 넓혀 줍니다. 꽉 막힌 길을 먼저 넓힌 다음 염증 완화 약물을 투여하기 때문에, 심한 협착증으로 인한 극심한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을 가라앉히는 데 훨씬 뛰어난 효과를 보입니다.

고령자도 안전, 빠른 일상 복귀가 장점

이 두 가지 시술의 가장 큰 장점은 전신 마취나 피부 절개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엎드린 상태에서 꼬리뼈 부위만 국소 마취한 뒤 진행되며, 시술 시간도 20~30분 정도로 매우 짧습니다. 피부를 째지 않기 때문에 꿰맬 필요가 없어 흉터가 거의 남지 않고, 출혈이나 감염의 위험도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많은 고령의 어르신들이나 당뇨, 고혈압, 심장 질환 등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도 무리 없이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술 후 1~2시간 정도 침대에서 안정을 취한 뒤, 당일이나 다음 날이면 걸어서 바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어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만병통치약은 아니기에 정확한 진단이 우선

물론 신경성형술과 풍선확장술이 모든 허리 병을 고치는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대소변 장애가 올 정도로 신경 압박이 너무 심한 상태라면, 시술로는 한계가 있어 결국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혹은 단순 주사로는 해결되지 않는 만성 통증 때문에 외출도 꺼리고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계신다면 이 시술들이 훌륭한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 들면 다 아픈 거지" 하고 무작정 통증을 참지 마십시오. 신경외과 전문의를 찾아내 척추 상태를 정확히 진단받고, 내 몸과 증상에 꼭 맞는 적절한 치료를 통해 통증 없는 편안하고 활기찬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이지욱
거인병원 척추클리닉 과장



우리 복지관은 지금 6. 옥수종합사회복지관

환경 교육 통해 협동과 소통 힘 길러



옥수종합사회복지관의 '친환경 친구들, 친·친' 사업 참가 학생들이 협동 컵 옮기기 게임을 함께 하고 있다.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옥수종합사회복지관(관장 권기현)은 2023년부터 지역 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교 사업 '친환경 친구들, 친·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친환경 친구들, 친·친' 사업은 환경 교육을 매개로 또래 관계를 회복하고, 협동과 소통의 힘을 기르는 집단 활동을 통해 아동 간 친밀감과 응집력을 높이고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프로그램은 협력 풍선 놀이, 환경 보드게임, 분리배출 게임, 새활용(업사이클링) 활동 등 체험형·참여형 활동으로 친구와 문제를 해결하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환경의 중요성을 익히도록 기획됐다.

특히 양말목을 활용한 새활용 공예, 환경 빙고, 협동 컵 옮기기 게임 등은 학생들의 높은 몰입을 이끌어냈다. 학생들은 활동 과정에서 "함께 하는 활동이 재미있었다", "친구들과 플로깅을 해 보고 싶다"는 구체적인 실천 의지를 표현하기도 했다.

프로그램 효과는 사전·사후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됐다. 아동 간 친밀감 및 응집력은 모든 학교에서 상승했고, 소통 능력 영역 역시 전반적으로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 환경문제 관심도는 평균 1점 이상 상승, 일부 학교는 2점 이상 향상, 만족도 조사에서도 학생 평균 4.8점 이상(5.0점 만점)을 기록하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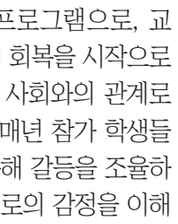
특히 담임교사 만족도 조사에서는 "학생들의 환경 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문항이 두 학기 모두 5.0점 만점을 기록했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수업 이후 교실 일상 속에서도 환경 이야기를 자주 나누고, 또래 간 의사소통이 부드러워졌다고 평가했다. 또 초기 목표보다 많은 학급이 참여했고, 프로그램은 2학기까지 연장 운영됐다. 교사들은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과 자료 준비 수준에 대해 평균 4.7점 이상의 높은 평가를 남겼다.

'친환경 친구들, 친·친'은 교권 약화로 나타나는 학교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교사·학생 간의 관계 회복을 시작으로 또래 관계와 지역 사회와의 관계로 활동을 확장했다. 매년 참가 학생들은 협동 활동을 통해 갈등을 조율하는 경험을 하고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며 공동의 목표를 완수하는 성취감을 나눴고, 일부 학급에서는 초기 산만했던 분위기가 점차 안정되며 자율적 협력 구조로 전환되는 변화도 관찰되면서 복지관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도 '환경'이라는 주제를 유지하되, 아동 간 협동적 문제 해결 역량과 긍정적인 또래 관계 형성을 위해 보다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또한 지역사회 연계 프로젝트와 세대 간 교류 활동을 확대해, 아동이 지역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

환경을 배우는 교실 안 작은 실천이 친구 관계를 바꾸고 학급 문화를 바꾸며 나아가 지역 사회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것. 옥수종합사회복지관의 '친환경 친구들, 친·친' 사업은 오늘도 그 가능성을 증명하며 아이들의 웃음 속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송진호
옥수종합사회복지관 팀장

대만불교 포교일기 ③ 화합과 상생으로 모두가 함께 성공하는 세상

대중 고통 품을 때 진정한 귀의처 돼

우리 사회는 최근 여러 업계의 가격 담합 소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기업들이 이익을 위해 보이지 않는 손을 맞잡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의 밥상 물가로 전이된다. 고물가 시대에 시름하는 대중을 보며, 문득 '종교는 민생의 고통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다시금 던지게 된다. 필자는 이에 대한 답을 과거 불광산사에서 겪었던 경험담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사건의 시작은 불광산사가 위치한 대만 가오슝 대수구(大樹區) 구청장의 간곡한 호소였다. 과일 리치(Litchi)의 주산지임에도 불구하고, 수확기만 되면 중간 상인들의 조직적인 가격 담합으로 농민들이 피땀 흘려 거둔 결실을 헐값에 넘기는 일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사정을 들은 성운 큰스님(星雲大師)께서는 상황 파악을 지시하셨고, 그 임무는 당시 도감원에서 소임을 맡고 있던 필자에게 떨어졌다.

경매 시장의 생리를 잘 모르던 필자는 마을 이장님과 함께 경매장으로 달려가 직접 입찰에 참여했다. 실제로 턱없이 낮은 가격에 경매가 진행되고 있었고, 필자는 당일 수백 근의 리치를 직접 구입하며 경매가를 높여 정상적인 가격이 형성되도록 도왔다. 하지만 수행자가 매일 경매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견고한 담합의 벽을 허물기에 역부족이었다. 이를 보고받은 큰스님께서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리셨다. "도량을 농민들에게 내어 주고 우리가 직접 직거래의 장을 열자." 이것이 바로 '불광산 국제 과일축제'의 시작이었다.

불광산, 대만 리치 가격 담합에 농민 돕고
폐해 감시·공정한 플랫폼 역할 톡톡히 해
'국제 과일축제', 화합·상생의 이정표 되길

불광산은 단순히 장소만 빌려준 것이 아니었다. 대만 전역의 불광산 분별원(分別院)들이 현대적인 물류 체인점처럼 일제히 가동됐다. 사찰이 직접 농민들의 리치를 수매해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하자, 시장의 독점적 지위는 순식간에 무너졌다. 당시 불광산의 유통량은 시장 전체의 가격을 결정짓는 '기준점'이 될 만큼 압도적이었다. 탐욕으로 뭉쳤던 유통업자들은 결국 큰스님을 찾아와 참회하며 농민들과의 상생을 약속했다. 자비의 원력이 이기적인 탐욕을 녹여 낸 순간이었다.

가장 감동적인 결실은 그 이후에 나타났다. 자신들의 가장 절박한 문제를 해결해 준 불광산에 깊은 감동을 느낀 농민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부처님의 품으로 돌아왔다. 어제까지 시장 바닥에서 시름하며 유통업자들과 싸우던 농민들이 이제는 불광산의 독실한 신도와 봉사자가 된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자비를 다시 이웃에게 나누기 위해 도량의 궂은일을 도맡아 하며 진정한 보살로 거듭났다. 종교가 대중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을 때, 대중 역시 종교를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진정한 귀의처로 삼는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다.

어쩌면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도 이러한 '실천적 자비'일지도 모르겠다. 종교가 법당 안의 기도에만 머물지 않고 불합리한 유통 구조나 담합의 폐해를 감시하며 생산자와 소비자를 잇는 공정한 플랫폼이 돼 줬듯, 대중의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때 비로소 종교의 존재 이유를 체감한다.

과거 '불광산 국제 과일축제'가 보여 준 모델이 오늘날 물가 불안으로 고통받는 한국 사회에도 희망의 이정표가 되길 소망한다. 부처님의 지혜가 시장의 탐욕을 정화하고, 우리의 일상이 화합과 상생으로 모두가 함께 성공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발원한다.



혜호 스님
서울 불광산사 주지

스마트폰에 담은 사찰 꽃문 ⑩ 내 할머니의 새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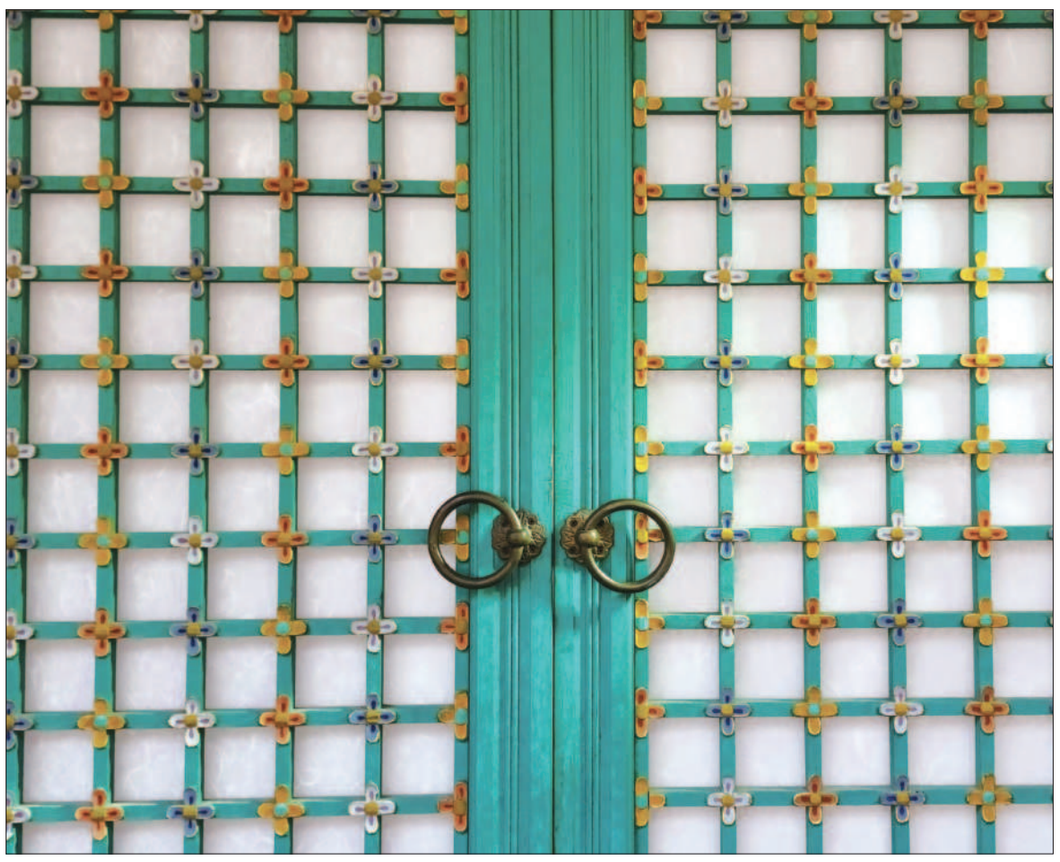
매화꽃 피는 새봄은 입학식이 열리고 새 학기가 시작되는 때이기도 하다.

나의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일을 했고 언제나 당당하게 당신의 목소리를 내며 살았는데, 이맘때면 꼭 하는 일이 있었다. 동네에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아이가 있는 집에 얼마간 돈을 담아 봉투를 전하는 일이었다. 봉투 겉에는 집안 형편에 따라 '교복 값', '입학금' '학용품 값'이라고 썼다. 그런데 할머니는 글을 몰랐다. 내가 글씨를 또박또박 쓸 수 있게 되고부터 봉투 글씨는 내 몫이었고, 그것을 전하는 일은 나에게 즐거운 심부름이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키는 아마도 그때 다 자라지 않았을까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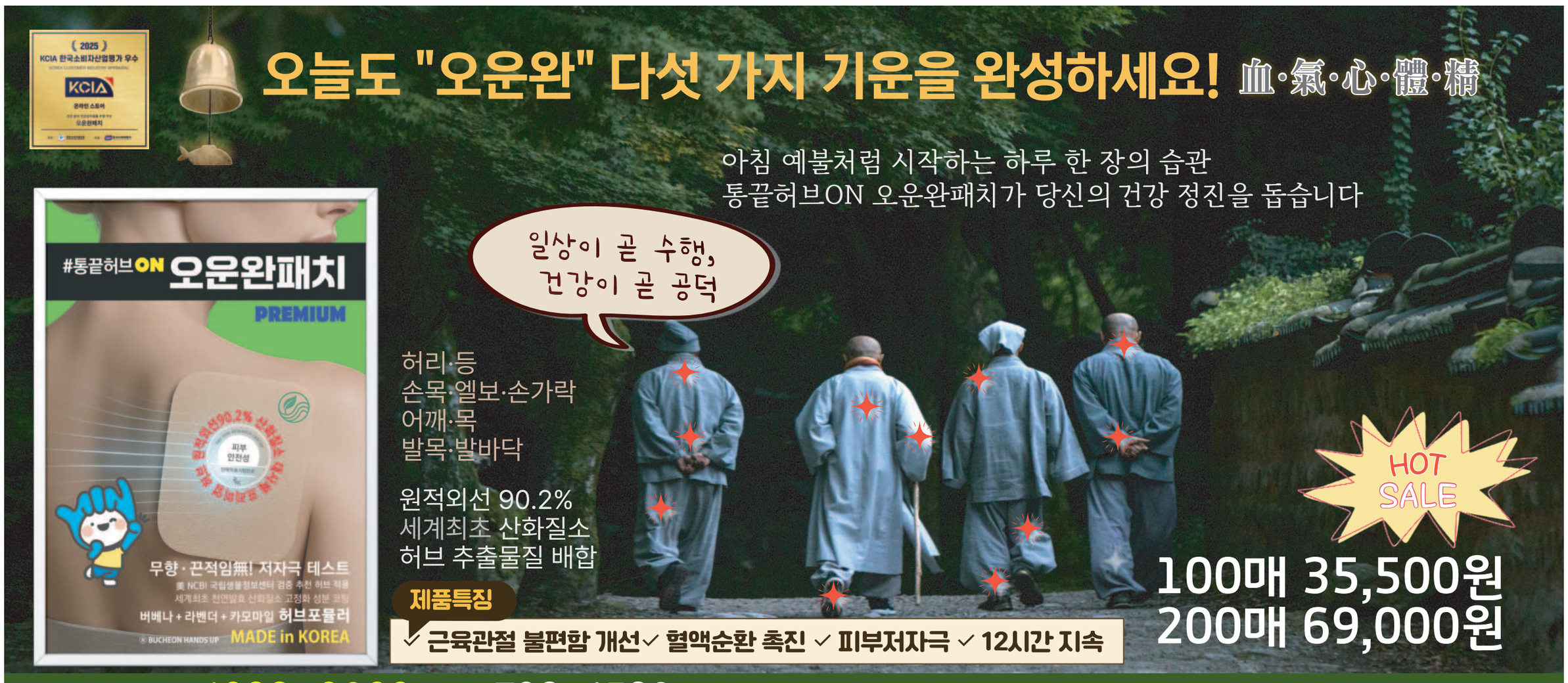
신흥사에 갔을 때는 아주 추운 겨울이었다. 잠깐 맨손을 꺼내도 손끝이 아렸다. 그렇게 절을 둘러보다 보제루 문살에 핀 매화꽃을 만났다. 문득 할머니 생각이 났다.

어릴 적 나는 할머니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다. 손녀인 나에 대한 할머니의 사랑은 나와 사촌인 손자들에 비해 반의반도 되지 않았다. 그렇게 당당했던 분이 '남존여비'라는 시대의 압력에는 왜 그렇게 고분고분했을까. 그래도 나는 할머니에게 타인을 대하는 태도만큼은 소중한 유산으로 물려받았다. 이 매화꽃이 할머니에게 전해졌으면 좋겠다.

손영자 작가



신흥사 보제루.



예순에도 젊은 사람, 서른에도 늙은 사람

현불논단



성제 정사
위덕대학교 전법원장

우리는 흔히 나이를 '늙어 가는 과정'으로만 생각한다. 그러나 조금만 돌아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어떤 사람은 예순이 넘어도 여전히 생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서른도 되기 전에 이미 지쳐 버린 듯한 표정을 하고 있다. 결국 사람을 늙게 만드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가짐이리라.

사람이 진짜 늙는 순간은 언제일까. 머리가 희어질 때도 아니고 주름이 늘어날 때도 아니다. '나는 이제 끝났다'고 스스로 단정하는 순간이다. 그때 마음이 먼저 늙는다.

반대로 나이가 들어도 '아직도 재미있게 살아보자'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젊다.

불교에서는 이 마음의 상태를 매우 중요하게 본다. 몸은 세월을 따라 변하지만, 마음은 훈련에 따라 얼마든지 밝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행은 몸을 젊게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늙지 않게 하는 공부라고 할 수 있다.

젊음의 가장 큰 특징은 가능성이다. 무엇이든 해 볼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다는 마음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가능성이 꼭 나이와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세월을 겪은 사람에게는 젊은 시절에는 없던 또 다른 힘이 생긴다. 그것이 바로 여유와 깊이다.

수행은 마음을 늙지 않게 하는 공부
나이 듦은 삶의 여유·깊이 쌓는 과정
세월의 흔적에 '수행의 향기' 깃들길

젊은 시절에는 속도가 빠르다. 대신 넘어지기도 쉽다.

세월이 흐르면 속도는 조금 느려질 수 있지만 대신 중심이 단단해진다. 인생의 기복을 몇 번 겪어 본 사람은 작은 일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세월이 주는 지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멋있어진다. 말이 많지 않아도 존재감이 있고, 큰 행동을 하지 않아도 주변의 공기가 달라진다. 그것은 겉모습 때문이 아니라 삶의 시간이 쌓여 만들어 낸 품격 때문이리라.

불교에서는 이런 삶을 '수행의 향기'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수행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과장되지 않는다. 대신 자연스럽고 편안해진다. 마치 오래된 나무가 그늘을 만들어 주듯,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안정된다.

우리는 누구나 세월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세월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선택할 수 있다. 나이가 든다는 사실을 부담으로만 여길 수도 있고, 삶의 깊이가 쌓이는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인생은 길이보다 멋이 중요하지 않을까. 오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남지만 마음에는 여유와 웃음이 남는다면, 그 사람은 이미 인생의 멋을 아는 사람이다.

오늘 거울을 보며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어떨까.

"나는 몇 살인가?"가 아니라 "나는 지금도 멋있게 살고 있는가?"라고.

그 질문 하나가 우리 삶의 방향을 바꿔 줄지도 모른다.

곤충이 살 수 없는 지구에서 우린들?

세간과 출세간



최원형
환경생태작가

홍매가 다 진 뒤에야 고아한 통도사 홍매화를 사진으로 만났다. 날이 풀리고 꽃 소식이 올라오니 참 좋다. 기후가 뒤죽박죽인 시절에 계절이 순하게 제시간에 찾아와 주는 일이 기적이 아니라면 달리 무엇이 기적일까? 문득, 올여름은 또 얼마나 진이 빠지도록 뜨거울까 싶은 두려움이 슬그머니 고개를 든다. 냉방기를 곁에 두고 있으니 당장의 폭염은 어느 정도 비껴갈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야생에서 폭염을 그대로 맞을 생물들의 고통의 크기를 가늠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독일 뷔르츠부르크대 연구팀이 아프리카 케냐와 남미 페루에서 높이에 따라 경사면에 서식하는 약 2300종의 곤충 8000여 마리의 열 내성 한계를 측정한 결과가 지난 4일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실렸다. 곤충은 체온이 주변 환경 온도에 따라 쉽게 변하는 변온동물이다. 그래서 기온 상승에 특히 취약하다. 이번 곤충의 열 내성 데이터는 개미, 초파리 등 일부 분류군에 편중돼 있어 온난화가 곤충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불확실하다. 그럼에도 현재의 기온 상승 추세로 볼 때 최악의 경우 2100년에 이르면 아마존 저지대 지표면의 절반 이상에서 곤충이 움직이지 못하는 수준까지 온도가 상승할 수도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지구가 워낙 복잡계라서 이런 예상치가 그대로 적용될지는 단언할 수 없다. 그럼에도 암울한 예측인 것만은 분명하다.

2100년 아마존서 곤충 활동 멈출 수도
기후 재난, 탄소 배출 기업에 책임 있어
'그린워싱' 근절 위해 시민 감시 필요

최근 폭염과 가뭄이 잇달아 발생하는 복합기후 재난이 21세기 들어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2021년 한 환경단체가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에 공개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자산 총액 상위 10대 그룹과 한국전력공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6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왔다. 기후 재난의 원인인 탄소 배출의 가장 큰 책임이 기업에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 재난으로 비난의 화살이 기업을 정조준하자 꺼내 든 카드가 ESG경영이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 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재무적 요소 외에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 구조를 고려하는 경영 철학이다. 한마디로 친환경 경영을 하겠다는 의미인데, 과연 말처럼 하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기업들은 친환경 경영 대신 친환경이라든가 에코의 이미지만을 차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를 '그린워싱'이라고 하는데, 대표 사례가 친환경 활동 홍보 수단으로 기업들의 텀블러 등 친환경 경품 증정이다. 자연 이미지로 기업을 홍보하며 텀블러를 증정한다면 시민들은 기업이 친환경 경영을 한다고 착각할 수 있다.

기업 활동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줄이기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린다든가 폐기물 발생을 줄이려는 노력 대신 얄팍한 마케팅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이러한 그린워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똑똑해져야 한다. 예리한 시선으로 기업을 감시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4억 년 가까이 지구에서 살아온 곤충이 어쩌면 더 이상 살 수 없는 지구로 만든 기업들에 책임을 지도록 요구해야 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 곤충이 살 수 없는 지구에서 우린들 살 수 있을까?

社 說

총성 멈추는 힘, 자비와 성찰에 있다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의 참화가 이어지고 있다. 4년째 접어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최근에는 중동 전쟁이 격화되며 또 다른 비극을 낳고 있다. 인간의 탐욕과 증오가 빚어낸 폭력은 국경을 넘어 수많은 생명을 앗아 가고, 살아남은 이들에게는 지울 수 없는 고통을 남긴다.

최근 한국 불교계가 거리에서 오체투지를 올리며 전쟁 중단을 발원한 것은 이러한 시대적 비극에 대한 처절한 응답이다. 한 걸음마다 온몸을 땅에 맡기는 오체투지는 폭력과 살생을 거부하는 간절한 평화의 언어라 할 것이다.

불교인권위원회가 "전쟁은 지옥의 다른 말"이라고 지적한 바와 같이, 전쟁은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고 생명을 도구화하는 가장 극단적인 폭력이다. 특히 민간인과 어린이, 노약자들이 희생되는 현실은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지구촌 전쟁 장기화…폭력 악순환 끊어야
비폭력 실천 '마음 전환'이 평화의 출발점

더 큰 문제는 전쟁이 또 다른 전쟁을 낳는 악순환의 구조에 있다. 이는 불교의 연기(緣起) 사상이 일깨우듯, 하나의 폭력이 또 다른 폭력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가 결국 모두에게 고통으로 되돌아온다는 사실과 맞닿아 있다. 한 지역의 분쟁이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인류 전체의 삶을 위협하는 현실이 이를 증명한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직시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며 전쟁의 참혹함을 경험했다. 그 상처는 아직도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다. 특히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전쟁이 개인의 존엄과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수요시위가 34년째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는 태도는 또 다른 폭력의 씨앗이 될 수밖에 없다. 불교계가 3월 18일 제1744차 수요시위를 주관하며 "진정한 사죄와 배상이 세계평화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전쟁을 멈추기 위해서는 단순한 휴전이나 힘의 균형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근본에는 인간의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삼독(三毒)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모든 고통의 원인이 마음에 있음을 밝히셨다. 전쟁 또한 다르지 않다.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제거의 대상으로 삼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한, 평화는 결코 지속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무력의 확대가 아니라 마음의 전환이다. 더 많은 무기와 군사적 대응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 그리고 상호 존중이야말로 갈등을 해결하는 길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노력뿐 아니라 불자들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전쟁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데 그치지 않고 일상에서 자비와 비폭력의 가치를 실천해야 한다. 작은 분노를 내려놓고 타인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모일 때 비로소 평화는 현실이 된다.

전쟁은 결코 해답이 될 수 없다. 오직 자비와 지혜만이 인류를 살리는 길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기사제보 (02)2004-8257
광고문의 (02)2004-8204
구독문의 (02)2004-8212
인터넷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 010-4152-4376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경기남부지사 : 010-8825-4367
경기북부지사 : 010-5323-0834
구독료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대한불교대승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 대승종은 1988년 도암선사께서 창종하였으며 (사)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원종단으로 총본산은 서울 종남산 흥도사이며 제6세 종정예하 법경 스님과 제14대 총무원장 일봉스님을 중심으로 전국 350여의 사찰과 750여명의 승려및 전법사들이 포교와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대승불교의 대표 종단입니다.

이에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대승불교 정신을 계승하고 중생교화에 뜻을 함께 할 도반을 모집합니다.

문의 : 010-5165-0108 교육원장 진산

불기 2570년(2026) 3월 25일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70년(2026) 3월 25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70년(2026) 3월 25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걷는 순간이 곧 수행이다

발은 수행의 첫걸음, 땅과 연결된 걸음은 곧 마음의 고요입니다.

"모든 길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법구경』



재질 : 인조가죽

"마음이 청정하면 길도 청정하다."

어싱(접지) 슈즈 리센스 블랙
Earthing Shoes Re-sense

◆ 주요 특징
- 두 개의 끈 구멍, 단순함 속의 무소유
- 제로 드롭(3mm) 밑창, 땅과 하나 되는 균형
- 클래식 블랙, 흔들리지 않는 중심

◆ 특판가 : 65,000원

※ 사은품 : 2켤레 이상 구매시 '어싱 전용 양말' 증정



재질 : 인조가죽

"몸과 마음이 고요하면, 걸음은 곧 선정이다."

어싱(접지) 슈즈 와이드 베이지
Earthing Shoes Wide

◆ 주요 특징
- 발가락을 옥죄지 않는 와이드 설계
- 인조가죽의 따뜻한 휴식
- 어싱(Earthing) 설계, 몸과 땅의 합일

◆ 특판가 : 65,000원

※ 사은품 : 2켤레 이상 구매시 '어싱 전용 양말' 증정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